금주의 법구-〈법구경〉
항상 새벽처럼 깨어 있어라.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을 즐겨라.
자기의 마음을 지켜라.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62호 hyunbulnews.com (불기 2567년 음력 10월 24일) 2023년 12월 6일 수요일

圓寂

해봉당 자승 대종사
(1954~2023)



종단안정 · 전법도생 발원하고 적멸에 들다

해봉당 자승 대종사 원적…장례 종단장 엄수

11월 29일 칠장사서 소신공양
법랍 51년, 세수 69세 일기로
조계종, 대종사 법계 긴급 추서
조계사 등 본사에 분향소 마련
스님이 남긴 유언장 일부 공개
'미안함'과 '종단미래 걱정' 담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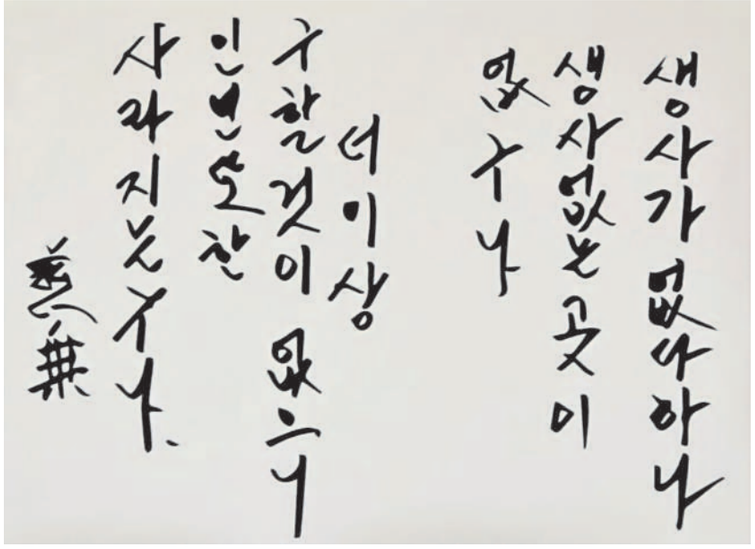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 제33 · 34대 총무원장을 역임하고 상월결사 회주로 수행과 전법에 매진해온 해봉당 자승 대종사〈사진〉가 11월 29일 저녁 안성 칠장사에서 소신공양으로 원적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50분께 칠장사 요사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출동, 한 시간여 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요사채 내부에서 스님으로 추정되는 시신 1구가 발견됐으며, 이는 자승 대종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랍 51년, 세수 69세.

자승 대종사의 원적은 소신공양에 따른 것이었다. 원적 이틀 전만 해도 교계언론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상월결사의 행보를 설명해왔던 대종사이기에 온갖 추측성 의혹이 난무했다. 이에 조계종 대변인 우봉 스님은 11월 30일 '해봉당 자승 대종사 종단장 언론 브리핑'을 통해 "대종사께서 종단 안정과 전법도생을 발원하면서 소신공양 자화장을 하심으로써 모든 종도들에게 경각심을 남기셨다"고 밝혔다. 자승 대종사의 법계는 기존 종사에서 원적에 따른 대종사 긴급 추서가 이뤄졌다.

조계종은 지난 2005년 前 총무원장 법장 스님과 2010년 법정 스님 원적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대종사 법계 추서를 결의한 바 있다.

브리핑에선 자승 대종사의 열반송도 공개됐다. 스님은 '생사가 없다 하나 생사 없는 곳이 없구나.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으니 인연 또한 사라지는구나'라는 열반송을 남겼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장례를 종단 규정에 따라 前 총무원장 예우 차원에서 종단장으로 거행했다. 조계종 총본산 서울 조계사와 전국교구본사, 총무원 직영사찰 봉은사 · 보문사에 분향소를 마련하고 12월 3일 오전 10시 조계사에서 영결식을, 오후에 자승 대종사 재적본사인 용주사에서 다비식을 엄수했다. 〈차주상보〉


해봉당 자승 대종사 열반송.

한편 지난 12월 1일에는 자승 대종사가 남긴 공식 유언장도 공개됐다. 조계종 대변인 우봉 스님은 자승 대종사가 이사장을 맡고 있던 재단법인 은정불교문화진흥원에서 발견된 유언장 3장을 공개했다. 총 10여 장의 유언장 가운데 개인 신상에 대한 내용을 제외한 것이다.

유언장에 따르면 자승 대종사가 먼저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 대한 미안함을 전했다. 대종사는 유언장에 '총무원장스님께, 끝까지 함께 못해 죄송합니다. 종단의 미래를 잘 챙겨주십시오'라고 적었다. 전직 총무원장으로서 앞서 여러 차례 종단 발전을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자승 대종사이기에 현 행정수반인 진우 스님이 앞으로 받게 될 중압감을 걱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안성 칠장사 요사채가 자신에 의해 화재로 전소된 것은 상좌 4명이 복원할 것을 주문했다. 자승 대종사는 '탄묵, 탄무, 탄원, 향림 각자 2억(원)씩 출연해서 토굴을 복원해주도록 25년까지 꼭 복원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자승 대종사는 스스로 여러 소임을 보면서 수행이 부족했던 점을 반성하고 안거마다 정진하는 스님들에 대한 존중을 표했다. 자승 대종사는 '상월선원과 함께해주신 사부대중께 감사합니다. 우리 종단은 수행종단인데 제가 여러 소임을 살면서 수행을 소홀히 한 점을 반성합니다. 결제 때마다 각 선원에서 정진하는 비구 비구니 스님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해제 때마다 많은 선지식들이 나와 침체된 한국불교를 이끌어 가주시길 서원합니다'라고 유언을 남겼다. 다만 다른 유언장 어디에도 대종사의 소신공양 배경이 적힌 것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추모특집 2·3·4·5·6·7면

해봉당 자승 대종사 주요 연혁

1954. 04	강원도 춘천 출생
1972.	해인사서 사미계 수지
1974.	범어사서 구족계 수지
1982. 07. ~1982. 12.	영월암 주지
1984. 05.~1986. 01.	수원포교당 주지
1986. 01.~1986. 08.	망경암 주지
1986. 01.~1986. 06.	총무원 교무국장
1986. 06.~1986. 09.	조계종 총무원 규정국장
1987. 08.~1988. 01.	영월암 주지
1988. 01.~1991. 03.	대덕사 주지
1991. 03.~1994. 01.	삼막사 주지
1992. 09.~1994. 11.	제10대 중앙종회의원
1994. 01.~1999. 12.	연주암 주지
1996. 11.~1998. 11.	제11대 중앙종회 사무처장
1997. 12.~2002. 11.	과천종합사회복지관장
1999. 11.~2000. 02.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장
2000. 02.~2002. 11.	제12대 중앙종회의원
2002. 12.~2005. 11.	제13대 중앙종회의원
2004.	재단법인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장
2005. 11.~2006. 10.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2006. 11.~2008. 11.	제14대 중앙종회의장
2009. 11.~ 2017. 10.	제33 · 34대 총무원장
2019. 11. 11~ 2020. 02. 07.	상월선원 천막결사
2020. 10. 07~ 2020. 10. 27.	불교 중흥 · 국난극복 자비순례
2021. 10. 01~ 2021. 10. 18.	만행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
2022. 3 · 4 · 5 · 7 · 8 · 10.	상월결사 평화방생순례
2022. 4. 23.	위례 상월선원 대웅전 상량식
2022. 12. 18.	사단법인 상월결사 창립총회
2023. 02. 09~2023. 03. 23	상월결사 인도순례
2023. 07. 06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 창립
2023. 09. 05~2023. 09. 06.	대학생전법위원회 워크숍
2023. 11. 11.	사부대중 전법대회
2023. 11. 27.	안성 칠장사서 소신공양



“부처님 법 전합시다” 화두 던진 원력의 화신

해봉당 자승 대종사 행장 및 업적

조계종 제33 · 34대 총무원장을 역임한 상월결사 회주 해봉당 자승 대종사가 11월 29일 경기 안성 칠장사에서 소신공양했다. 법납 51년, 세수 69세.

자승 대종사는 1954년 4월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나 1972년 해인사에서 지관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4년 범어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이후 동화사 선원 안거를 시작으로 봉암사 선원 등에서 정진했으며, 수원 포교당(現 수원사), 삼막사, 연주암 주지 등을 역임했다.

총무원 재무부장 · 총무부장 등 종단 주요 소임을 지낸 자승 대종사는 제10 · 11 · 12 · 13 · 14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한 종단 발전을 견인했다. 특히 제14대 전반기 중앙종회의장을 맡아 신뢰와 소통의 리더십으로 종회 운영 전반을 원만히 이끌었으며, 종회 본연의 기능인 입법 활동과 집행부에 대한 감사와 견제 활동을 활발히 지원하면서 중앙종회의 위상을 높였다.

사회를 향한 자비행 돋보여

이 같은 소통의 리더십으로 자승 대종사는 제33대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해 종책모임 간 연대를 이끌어내며 당선됐다. 제33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하며 자승 대종사가 강조한 것은 ‘한국불교의 도약과 중흥’ 이었고, 이를 위한 길은 안으로 자성과 쇄신, 밖으로는 자비 정신 구현과 사회와의 소통이었다. 이는 자승 대종사의 취임사에서도 잘 나타난다.

“부처님의 정법안장(正法眼藏)을 이어온 우리 조계종은 지금 우리 사회에 새로운 희망과 가치관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동체대비(同體大悲) · 자리이타(自利利他)의 부처님 정신을 적극 실천하여 고통 받고 소외된 우리 이웃과 사회를 향해 따뜻한 자비의 발걸음을 적극 내딛고 이를 통해 국민과 세계인의 존경과 신뢰를 이끌어내도록 하는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취임사처럼 자승 대종사의 취임 첫 행보 역시 용산참사 현장을 방문해 유가족을 위로하고 보듬으며 자비행을 펼쳤다. 대종사는 제34대 총무원장을 연임하면서도 지속적인 대사회 행보를 보였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농성장 방문해 격려했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로 피신했을 때에는 공권력의 침탈까지 견뎌내며 정부와 노동계의 대화를 이끌어냈다.

국내 · 외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 및 재해 현장에 긴급구호단을 급파해 초기대응에 나선 것도 자승 대종사가 만들어 놓은 대사회 대응 시스템이다. 총무원장 재임 당시 국내로는 세월호 침몰에 따른 지원 활동과 2016년 울산 태풍 피해지역 긴급구호가 있다. 국외로는 필리핀 하이옌 태풍, 네팔 대지진, 미얀마 홍수 피해 구호활동 등이 있다. 이 같은 선제적 대응은 단발성이 아닌 장기적 지원으로 이어져 이재민 및 유가족들의 자립에도 기여했다.

자승 대종사는 현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의 전신인 ‘노동위원회’ 를 출범시켰으며, 갈등으로 치닫는 사회를 화쟁 정신으로 교화하고자 ‘화쟁위원회’ 를 설립해 갈등의 중재자로 나서기도 했다.

종단 내부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도 큰 족적을 남겼다. 취임 초 터진 승려 도박 사건을 ‘자성과 쇄신 결사’ 를 통해 종단 청정성 회복 운동을 펼쳤다.

종단의 수행 종풍 선양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 스님들의 수행환경 기반 조성을 위해 종단 역사상 처음으로 승려 노후복지제도를 시행했고, 이는 현재 아미타요양병원 개원 등의 성과로 이어지는 바탕이 됐다.

세종신도시와 위례신도시의 포교 도량 건립의 초석을 놓은 것도 자승 대종사였다. 자승 대종사가 세종신도시와 위례신도시 종교부지를 확보한 것이 세종 광제사와 위례신도시 포교당 건립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자승 대종사는 성보문화재 보존과 환수 활동의 기틀도 세웠다. 2014년 경찰청 · 문화재청과 ‘불교문화재 도난 예방 및 회수를 위한 협약’ 을 체결한 데 이어 수십 점의 도난 문화재를 환수했다. 또 국외로 반출된 불교문화재 역시 미국 · 독일 · 프랑스 등 다양한 국가에서 환수해 환지본처에 앞장섰다.

자승 대종사의 ‘전법 원력’ 시작은

일생에 걸쳐 자승 대종사의 모든 관심은 ‘전법’ 에 있었다. 자승 대종사는 2017년 10월 27일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주최한 퇴임 만찬에서 재가불자들에게 “ ‘1인 1불자 만들기’ 를 위해 노력해달라”는 당부를 남겼다.

“한국불교는 불자 감소의 위기 국면에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는 힘은 불자들이 주변 가족, 이웃부터 불교를 접하게 하는데 있습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중심에 서서 1인 1불자 만들기에 솔선수범 해주길 바랍니다. 한국불교가 세계화와 함께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중앙신도회가 더욱 더 힘써주길 바랍니다.”

(2023년 11월 27일 불교계 기자단 간담회서)

자승 대종사의 전법에 대한 열정은 오래 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 1984년 수원 포교당 주지로 살던 당시 자승 대종사는 총무원이 소재한 종로로 전철을 타고 출퇴근을 했다. 그러면 꼭 개신교인이 승복을 입은 대종사 앞에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쳤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자승 대종사는 ‘우리는 참 부처님 법 전하는 데 소극적이구나’ 라고 생각했다.

이후 1986년 대덕사 주지로 부임해서는 오전에는 기도를 하고 오후에는 전법에 나섰다. 다른 방법도 없었다. 그냥 가가호호 다니며 기도와 축원을 해주는 것이었다. 이런 노력으로 첫 법회에서는 5명이 오던 것이 1년이 지나니 150명으로 늘었다. 이후 자승 대종사에게 전법은 생활이 됐다.

“전법에 몰두하니 불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 포교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전법행은 재무부장, 총무부장, 종회의장을 할 때도 꾸준히 했고, 총무원장에 재직할 때에도 한결같이 한 일입니다. 내 발자취를 찾아보십시오. 저는 전법의 중요함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27일 불교계 기자단 간담회서)

11월 29일 칠장사서 소신공양

12월 3일 서울 조계사서 영결식

재적본사 용주사서 다비식 엄수

조계종 33·34대 총무원장 역임

‘자성과 쇄신 결사’로 종단 안정

사노위, 화쟁위 설립…화합 견인

퇴임 후 아홉스님 천막결사 비롯

상월결사 이끌며 ‘불교중흥’ 발원

올해 초 1167km 인도 도보순례

‘대학생 전법’ 통한 인재양성 강조

전법 원력 결집을 위한 초석들

퇴임하자마자 자승 대종사는 수행자로서 본분을 찾기 위한 수행 정진에 들어갔다. 이는 전법 원력을 결집하기 위한 초석들이었다. 퇴임 직후 2017, 2018년 동안거를 백담사 무문관에 방부를 들인 대종사는 2019년 세 번째 동안거를 위례 상월선원에서 천막결사 정진으로 지냈다.

당시 천막결사 정진엔 회주 자승 대종사를 비롯해 선원장 무연 스님, 입승 진각 스님, 한주 성곡 스님, 지객 호산 스님, 지전 재현 스님, 정통 심우 스님, 시자 도림 스님, 다각 인산 스님 등 아홉 스님이 참석했다.

이들은 △하루 14시간 이상 정진 △하루 한 끼 공양 △옷 한 벌만 허용 △양치만 허용하고 삭발 · 목욕 금지 △외부인 접촉 금지하고, 천막 벗어나지 않기 △묵언 등을 골자로 한 청규를 정하고 스스로를 가둔 채 수행에 매진했다.

극한 환경에서의 수행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정진 대중의 정진력은 날카로워져 갔다. 한 끼 공양마저 마다하고 곡기를 끊고, 두부 4쪽 · 방울토마토 3쪽 · 나물무침 2젓가락만 섭취하는 스님도 있었다. 70여 일이 지날 즈음에는 대중스님 중 한 명이 의식을 잃는 응급 상황이 발생해 의료진이 출동했지만, 정신을 차린 스님은 “수행을 방해하지 말라”며 다시 정진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 같은 정진력을 이끈 것은 자승 대종사이었고, 이는 대중들을 감화시켰다. 2019년 11월 11일 입재 이후 회향까지 10만여 명의 대중이 전국에서 찾아와 결사에 동참했고, 체험관에서 무문관 수행을 한 불자들도 110명에 달한다.

2020년 2월 7일 닫혀있던 천막의 문이 열리고 비로소 아홉스님들이 세속으로 나오며 상월선원 천막결사는 회향했지만, 아홉스님의 정진은 불교 중흥의 기치 아래 만행결사 자비순례(2020) · 삼보사찰 천리순례(2021) · 평화방생순례(2022) · 인도순례(2023)로 이어지는 원동력이 됐다.

상월결사 그리고 ‘부처님 법 전합시다’

특히 ‘상월결사, 부처님과 함께 걷다’ 를 슬로건으로 지난 2월 9일부터 3월 23일까지 총 43일간 1167km를 걸은 인도순례는 수행과 전법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순례코스는 인도, 네팔의 부처님 탄생부터 열반지까지 부처님 7대성지를 순례하는 길이며 그동안의 상월결사 순례와 마찬가지로 길 위에서 먹고 자고 행선하며 부처님처럼 전법수행을 펼쳤다.

3월 23일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된 상월결사 인도순례 회향법회에서 단상에 오른 자승 대종사는 회향사를 통해 대중에게 다시 한번 ‘전법’ 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 퇴임 이후 자신이 이끈 천막결사 수행과 만행결사 자비순례 · 삼보사찰 천리순례 · 평화방생순례 등 모든 것이 전법 원력을 추진하는 데 있음을 밝힌 것이다.

“부처님은 평생 최선을 다해 중생의 이익을 위해 법을 설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구 하나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부처님 믿으라고 전법하는 이 없습니다. 부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신 임무는 ‘전법하라’ 입니다. 전법 없는 불교는 죽어가는 불교입니다. 지장보살께서는 지옥중생을 다 제도하기 전까지는 성불을 다음 생으로 미룬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성불합시다’ ‘성불하세요’를 다음생으로 미루고, 금생에는 ‘부처님 법 전합시다’로 살아갑시다.”

자승 대종사가 던진 ‘부처님 법 전합시다’ 는 이내 한국불교의 화두가 됐고, 스님은 ‘대학생 전법’ 에 전법 원력을 결집하기 시작했다. 7월 6일에는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를 구성하고 ‘1교구-1대학 지원’ 목표를 세웠다.

9월 5~6일 열린 ‘대학생 전법위원회 워크숍’ 에서는 “직접 탁발해 전법기금을 모으겠다”는 원력을 내보였다. 11월 11일 열린 사부대중 전법대회를 통해서는 대학생 전법기금 151억여 원을 모연해 대학생 전법 중흥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했다.

11월 27일에는 서울 강남 봉은사 구생원에서 불교계 언론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그간의 소회 등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다. 이 자리에서 자승 대종사는 “불교 동아리 설립 현황 등을 직접 살피면서 대학생 전법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한 선순환 모델 구축과 전역 후 불자장병 신행 독려 프로그램 계획에 대한 밑그림도 제시했다.

또한 최근 불거진 정부의 ‘불교홀대’ 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본다면 종단에서 항의할 수 있다”면서도 “정부 인사에 불교 인재가 없다는 것은 불교계가 인재를 양성하지 않은 이유도 있다. 이제부터라도 각 분야에 불교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이것이 대학생 전법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부처님 법 전합시다’ 라는 화두와 실천 과제인 ‘대학생 전법’ 을 대중에게 제시한 자승 대종사는 11월 29일 ‘생사가 없다 하나 생사 없는 곳이 없구나.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으니 인연 또한 사라지는구나’ 라는 열반송을 남기고 돌연 적멸로 나아갔다.

조계종 종단장으로 치러진 자승 대종사의 빈소는 총본산 조계사에 마련됐다. 영결식은 12월 3일 오전 10시 조계사에서 엄수됐으며, 다비식은 대종사의 재적본사인 제2교구본사 용주사 연화대에서 봉행됐다.

〈영결 · 다비식 차주 상보〉

“향후 10년 동안 오로지 ‘대학생 전법’에 매진하겠습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은 원적에 들기 직전까지 한국불교의 최대 화두인 ‘대학생 전법’에 진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스님은 원적 이틀 전인 11월 27일 서울 봉은사 구생원에서 불교계 언론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그간의 소회와 불교계 안팎 현안에 대한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전했다. 퇴임 후 직접 나서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고, 결국 마지막이 됐다.

자승 스님은 “상월결사 전법부터 최근 불교계 현안들까지 전부 내 입장을 직접 표현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상상하고 만들어낸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더 이상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자승 스님이 모두 발언을 통해 밝힌 것은 조계종의 정체성과 상월결사 정신이었다. “조계종은 선 · 교 · 율에 근간한 통불교종단”이라고 전제한 자승 스님은 “상월결사의 근간은 ‘미래불교는 사부대중과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함께하는 과정은 수행과 전법”이라며 “상월결사 정신은 통불교라는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수행과 전법이라는 두 가지로 실행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대학생 전법, 달라이라마 초청, 현 정부의 불교 홀대 등 다양한 주제의 질의들이 쏟아졌고, 자승 스님은 솔직한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 특히 대학생 전법에 대해 자승 스님은 “불교 동아리 설립 현황 등을 직접 살피면서 대학생 전법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한 선순환 모델 구축과 전역 후 불자장병 신행 독려 프로그램 계획에 대한 밑그림도 제시했다.

또한 최근 불거진 정부의 ‘불교홀대’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본다면 종단에서 항의할 수 있다”면서도 “정부 인사에 불교 인재가 없다는 것은 불교계가 인재를 양성하지 않은 이유도 있다. 이제부터라도 각 분야에 불교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이것이 대학생 전법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하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신중일 · 윤호섭 기자**



11월 27일 봉은사 구생원에서 교계 기자들을 만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문답형식의 인터뷰를 한 자승 스님.

자승 스님이 남긴 마지막 목표 ‘대학생 전법 매진’

해봉당 자승 대종사 생전 마지막 인터뷰

11월 27일 불교계 언론 간담회서
불교계 안팎 현안들 입장 피력해
상월결사 정신, 수행과 전법 바탕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불교’ 그려

대학생 전법 안정적인 재정 마련
졸업 동문 기부 선순환 구축 기대
제대 장병, 지속적 신행 독려 위해
동아리 · 사찰 연계 프로그램 추진

달라이라마 초청, 종단협서 나서야
“불교홀대, 불자 인재 없어 생긴 일
인재 양성부터…대학생 전법 중요해”

“중승대 폐교시 5천억원 정재 사라져
동국대 제3캠퍼스 활용 등 방안 필요”

11월 11일 ‘전법의 날’ 지정 제안도

Q 상월결사가 대학생 전법에 사활을 걸고 여러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최근 많은 후원금도 약정했지만 앞으로 안정적 재원의 뒷받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A 대학생 전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교수, 지도법사, 동아리에 대한 활동비 지원입니다. 지난 전법대회를 통해 10년간 후원할 수 있는 정재는 마련됐습니다. 이를 종잣돈으로 하고 향후 방송광고 등을 통한 불자들의 후원이 자리 잡고 불교동아리 출신 학생들이 졸업해 취업 후 동문을 위해 후원하는 선순환 제도를 도입하면 재정적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본사주지, 지도법사스님들의 원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군포교의 경우도 제대할 때가 되면 초코파이나 피자, 햄버거의 기운이 빠져버려 정작 사회에 나와서는 불교 신행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젠 무늬만 수계 군불자가 아니라 전역 이후 불자로 활동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전역 후 불자장병이 대학에 복학하면 해당 대학 불교동아리 지도교수가 동아리 활동을 안내하고, 대학생이 아니라면 지역 주지스님이 연락해 사찰음식을 먹으며 격려해 청년회 활동을 연계하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상월결사와 포교원, 군종특별교구가 1월부터 한 달에 한 번씩 논의하면서 방안을 수립하려 합니다.

Q 앞서 세계불교 청년대회를 언급하셨고 달라이라마 방한도 추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달라이라마께서 워낙 고령이셔서 초청을 더 빨리했으면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A 달라이라마의 초청은 현실화될 수 있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문제는 두 번째고, 가장 중요한 건 청년불자들이 결집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 문제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중심이 돼야 합니다. 종단협이 정식으로 달라이라마 초청을 결의하고 초청장을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달라이라마 초청을 포교에 전념할 수 있는 결집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Q 몇 년간 걷기순례를 바탕으로 새로운 수행풍토를 일구셨는데 인도순례 이후 또 다른 순례계획이 있으신지요?

A 앞으로 순례는 각자가 할 일입니다. 제가 주관하는 순례는 더 이상 없을 겁니다. 저는 이제 대학생 전법에 10년간 모든 열정을 다 쏟으려 합니다. 그간의 천막정진이나 순례는 큰 틀에서 포교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한 방편입니다. 결코 개인적으로 좋아서, 즐거워서, 체질에 맞아서 걷고 굶은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뜻을 이해해주고 힘을 실어주며 함께 침체된 불교를 일으켜 보자는 취지의 자극이었던 겁니다. 그 결과가 대학생 전법기금으로 결집되지 않았나 싶고, 그 마음이 헛되지 않도록 대학생 포교에만 전념할 겁니다.

Q 요즘 현 정부의 인사가 지나치게 기독교 편향적이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스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A 중앙종회의원 초선모임, 교구본사주지협의회 등이 정부 인사문제나 공약 미이행으로 항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각계각층에 갈만한 불자가 없다는 겁니다. 장관, 차관, 수석, 행정관 등의 인재풀에서 불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종교를 배제한다기보다 불자 인재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임명권자가 종교까지 고려해서 임명해주면 좋겠지만 많은 후보들 중에 능력을 검증하며 추리다보면 결국 추천된 불자가 적겠죠. 우리가 통계적으로 억울하다고 항의할 순 있어도 근본적인 원인은 인재를 길러내지 못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젊은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Q 일각에선 성명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A 범불교대회나 승려대회 같은 걸 지금 말하기엔 성급합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듯 내면으로 불자면서도 대중 앞에서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현 정부와 여야가 대선 때 제시한 불교 공약사항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는 게 현실적으로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Q 중앙종회 정기회에 앞서 중앙종무기관 개편에 대한 방향도 말씀하셨는데 개시 시점이나 언제 어느 정도까지 진척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 성급하게 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일단 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교육원과 포교원 개편은 가능하다는 정서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큰 틀에서는 1994년 이후 30년이 지난 종헌종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총무원장 스님을 중심으로 조직개편 특위를 구성해야겠죠. 원로의원, 중앙종회의원, 교구본사주지, 종단 중진, 불교전문지식을 가진 변호사 등으로 위원회를 꾸려 2~3년간 로드맵을 만들어가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Q 직할교구로 봤을 때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A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조계종은 중앙분담금을 없애고 종단이 자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총무원은 직영사찰과 직할사암만 갖고 운영해야 합니다. 점점 인구는 감소하고 산중사찰은 주지를 가려 하지 않는데 중앙분담금을 계속 받게 되면 조직이 살 수 없습니다. 교구본사중심제를 강조하면서 교구중심화하지 않았던 걸 실천해야 합니다.

Q 최근 동국대가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역대 최고성적인 8위를 기록했습니다. 건학위원회 설립 이후 이어진 성과인데, 이전부터 계획하셨던 일인지 궁금합니다.

A 역사만 100년이 넘은 동국대는 종립대학으로서 30만 명이 넘는 동문이 있고, 가장 좋은 명 터에 자리 잡았지만 건학이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동국대를 명문으로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건학위원회를 설립한 겁니다.

대학 순위보다 중요한 건 지속적인 인구감소 상황에서 대학이 앞으로 어떻게 10년, 20년을 유지하느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를 위해선 등록금 걱정 없이 다니면서 취업이 보장된 학교여야 한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동국대 동문으로서 여러 자리에서나 자식들에게 당당하게 모교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건학위원회 역할보다는 학교에서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8위까지 올라왔다고 봅니다. 지금 같은 방식으로 더 노력한다면 순위가 오를 것이고, 한눈팔고 여유를 가지면 다시 10위 밖으로 밀려날 겁니다. 앞으로는 이사장과 총장의 원력과 신심이 중요합니다. 5위까지 가는 길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Q 승가학원 이사회가 중앙승가대의 동국대 통합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동국대 발목을 잡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A 중앙승가대 문제는 개인적으로 동국대 대학 순위보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폐교하면 5000억 원에 가까운 재산이 국가로 귀속됩니다. 동국대가 뼈를 깎는 인내를 가지고 합병해 한 10년간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요? 중앙승가대는 개운사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폐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동국대 동문과 학교, 재단이 함께 노력해 극복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WISE캠퍼스처럼 승가대가 제3의 캠퍼스처럼 될 수 있게끔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동국대는 현재까지 승가학원의 공식 의견을 받지 않은 상태다. 이와 별개로 동국대는 과거 승가대 합병 시 연간 80~100억 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Q 사회에선 다양한 수행법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종단은 간화선을 주 수행법으로 하면서 위기론도 나오는데요. 종단 수행방법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A 요즘엔 속인들이 편하게 명상이라는 말을 따와서 몇 가지 상식을 이용해 마치 그것이 부처님이 추구한 명상처럼 왜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속된 말로 우리가 우리 밥 못 챙겨먹은 겁니다. 부처님이 3000년 전부터 가르침을 주셨는데 말이죠.

선방에 앉아서 2000명이 안거를 하는데 해제 후에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결제와 해제는 우기 때문에 밖을 다닐 수 없어서 했던 것이고, 우기가 끝나 해제하면 동네방네 다니면서 부처님 법을 전해야 합니다. 그게 수행과 전법입니다. 해제해서 걸망지고 만나는 사람마나 내가 공부한 얘기, 느낀 얘기, 부처님 가르침 알리면서 마음 다스리는 법을 전했어야 합니다. 3000년 전부터 이어져 온 노하우를 우린 선방에서만 썩혔습니다. 그 또한 우리 탓입니다.

그래서 동국대를 중심으로 명상을 체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학제를 통해 전문 자격증이 있는 인재를 배출해야 합니다.

Q 10년간 대학생 전법에 매진하신다면 10년 뒤의 불교가 어떤 모습이었으면 하시는지요?

A 예측할 순 없습니다. 10년간 지켜봐야죠. 그 대신 매년 한 번씩 대학생들을 모아서 캠프를 할 겁니다. 그때마다 참여인원이 늘어난다면 그만큼 노력한 것이 될 테고, 그렇지 않다면 실패한 것이 되겠죠. 앞으로는 불교동아리를 만드는 과정, 출범하는 과정, 학생 숫자의 변화, 후원금 지급하는 과정 모두를 제가 들여다보고 관리할 겁니다. 10년 뒤 영캠프에는 수만 명의 청년들이 참여해야지 않겠어요?

이상훈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이 11월 11일을 전법의 날로 정하자고 했는데 그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종단에서도 이날을 전법의 날로 정해 우수한 공로를 시상하는 행사를 하는 게 도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來無來 去無去’ 만장…대종사의 원적을 장엄하다

자승 대종사 조계사 분향소 조문 행렬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
“와도 옴 없고 가도 감 없다”
진우 스님 ‘일체유심조’ 휘호

중앙종무기관 소임자 외에도
교구본사 · 종회 · 단체별 조문
정 · 관계 인사들 발길 계속돼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가 12월 1일 조계사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헌향하는 모습.

윤호섭 · 임은호 · 김내영 기자

조계종 제33 · 34대 총무원장을 역임하고 상월결사 회주로 수행과 전법의 가치를 대중에 전하다 지난달 29일 원적에 든 해봉당 자승 대종사. 종단의 가장 큰 어른인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는 자승 스님의 삶을 ‘무거무래(無去無來)’로 표현했다. 시작도 끝도 없이 항상 존재해 진여가 무한함을 이르는 말.

성파 대종사는 12월 1일 오후 2시께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자승 스님의 원적을 애도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교역직 종무원과 함께 분향소에 들어선 성파 대종사는 자승 스님 진영을 말없이 바라본 뒤 헌향했다. 이어 성파 대종사는 만장에 휘호를 쓰기 위해 경내 가설 천막으로 자리를 옮겨 ‘來無來 去無去’라는 여섯 글자를 남겼다. 성파 대종사는 “와도 옴이 없고 가도 감이 없다”고 짤막한 설명을 덧붙였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도 오후 1시께 만장 휘호를 썼다. 진우 스님이 쓴 휘호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였다. 수많은 대중법문을 통해 마음에 따라 업이 쌓이고 그로 인해 괴로움도 생겨나듯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고 설한 가르침을 압축해 표현한 것이다.

한편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 분향소 조문은 전날 오후 3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첫 조문을 올린 건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총무원 교역직스님들, 전국에서 온 교구본사주지스님, 중앙종회의원스님, 서울 주요사찰 주지스님들이었다.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과 교육원장 범해 스님, 포교원장 선업 스님,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 등 60여 스님들은 굳은 얼굴로 자승 대종사의 진영 앞에 섰다.

대표로 분향하기 위해 나선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허탈한 표정으로 한동안 자승 대종사의 진영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종단 발전을 위한 조언을 듣고자 자주 찾을 수밖에 없었던 대종사의 갑작스런 원적은 진우 스님도 이겨내기 어려운 슬픔이었다.

스님들의 조문에 이어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과 장정화 대한불교청년회장, 유정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 등 신도 · 포교단체장들이 분향소에 들어섰다. 또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을 비롯한 전국비구니회 소임자스님들과 비구니종회의원스님들도 차례로 조문했다.

정관계 인사로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가장 먼저 분향소를 찾았다. 오후 3시 30분께 조계사에 방문한 유 장관은 방명록에 ‘자승 큰스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합니다’라고 추모의 글을 적었다.

조문을 마치고 나온 유 장관은 “자승 큰스님께서 15년 전 총무원장 하실 때 (저도) 문체부 일을 했으니까 이미 상당히 오랜 시간 옆에서 뵈었다”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지금은 너무 황망하다. 정말 좋은 곳으로 가시길 바란다”고 추도했다.

뒤이어 최응천 문화재청장도 분향소를 찾아 자승 대종사 영전에 헌화하고 삼배를 올렸다. 최 청장은 “상월선원에서부터 자승 스님 행적을 지켜봐왔고 인도순례를 다녀오셨을 때도 인사드렸다”며 “한국불교를 일으키실 분이라 생각했는데 (입적하셔서)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총무원장을 두 차례 역임하고 퇴임 이후에도 한국불교 중흥과 종단발전을 위해 온 몸을 내던진 자승 스님 원적에 스님들도 안타까움을 표하며 종단이 보다 굳건한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는 걸 강조했다.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어른스님께서 소신하셨지만 상월결사 정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종단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 종정예하와 원로회의, 교구본사주지협의회, 중앙종회 등이 단결된 모습을 보여야 할 때다. 오는 6일 전국교구본사주지회의가 소집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후 7시 20분께 분향소를 찾아 자승 대종사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정청래, 서영교, 유정주 국회의원 등도 함께했다. 방명록에 ‘극락왕생 하소서’라는 짧은 메시지를 남긴 이재명 대표는 조문 후 기자들을 만나 자승 스님과의 만남을 떠올리며 “큰 가르침을 주신 어른”이라고 회상했다.

앞서 주호영 국회정각회장과 이원욱 정각회 명예회장은 정각회원들과 오후 5시 30분께 조문하고 자승 스님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큰스님의 원적에 애도한다”며 ‘한국불교 중흥의 원력을 기억하겠다’는 메시지를 남긴 주호영 회장은 “황망함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청천벽력이라 정신이 없다”면서 눈시울을 붉히고 말을 잇지 못했다.

조문에 함께한 이원욱 정각회 명예회장은 “스님께서는 진정한 부처님이셨다”며 그리움을 표하고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큰 족적을 남긴 스님의 뜻을 따라 더욱 정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조문 3일차인 12월 1일에는 더 많은 조문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먼저 분향소를 찾은 건 오세훈 서울시장. 오 시장은 오전 9시 20분께 조계사를 방문해 방명록에 ‘큰스님의 뜻을 받들어 화합의 정치 이루겠습니다’라고 글을 적었다. 오 시장은 조문 이후 “평소 큰스님께서 화합을 강조하신 만큼 화합의 정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김성태 전 국회의원과 박용진 국회의원도 잇달아 조문에 동참했다. 김성태 전 의원은 “유일하게 정치권에서 형제간 정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자승 대종사를 회고하면서 “스님께서 늘 김성태 잘 있냐고 덕담을 해주셔서 더 가슴이 아프다”고 슬픔을 표했다.

박용진 의원은 “스님께서 며칠 전 전화하셔서 여러 조언을 해주시고 곧 보자고 하셨는데 갑자기 입적하시니 크게 놀랐다”며 “스님께서 한국불교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신 부분은 국민이 기억할 것이다. 이제 남은 분들이 잘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권영세 국회의원과 이진복 정무수석도 불교중흥을 염원한 자승 대종사의 원력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진복 수석은 “대통령님뿐만 아니라 저도 굉장히 오랜 인연을 갖고 있다. 호도 내려주셔서 잘 쓰고 있었는데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며 “솔직히 믿어지지 않는다. 좀 더 계시지 왜 이리 바삐 가셨는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오전 중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 50여 명이 조문을 위해 조계사를 찾았다. 여당 지도부 조문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직접 자리해 받았다. 이 자리에서 진우 스님은 자승 대종사의 원적을 ‘선택적 자살’이라고 표현한 일부 언론 표현을 의식한 듯 이례적으로 마이크를 잡고 말문을 열었다.

진우 스님은 “수행자들의 삶은 일반인과 조금 다른 면이 있다. 소위 차안과 피안,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와 이를 떠난 니르바나 열반의 세계가 있다”며 “큰스님께서는 평소 하시는 일에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임하시면서도 불교의 근본 목적인 해탈, 열반, 성불, 깨달음의 세계에 대해 항상 그 경계선상에 계셨던 것 같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지금까지 나온 여러 정황상 제가 볼 때는 상당한 기간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다만 그 시기가 이때였다”며 “일반인은 잘 이해 못하시겠지만 수행자들에게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 이상 그 이하 (무언가) 더 덧붙이거나 왈가왈부 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강조했다.

자승 대종사 조계사 분향소는 대통령실 각 수석과 부처 장관, 국회, 지자체장, 이웃종교 대표 등 불교계뿐만 아니라 정관계에서 수많은 인사들이 다녀갔다.


12월 1일 여당 지도부 조문에서 자승 스님의 소신 공양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 대표스님들이 조문하고 있다.

해봉당 자승 대종사 입적 추도문

대한불교조계종의 선지식(善知識)이며 상월결사 회주로서 현대 한국불교 사부대중의 수행과 전법의 기치를 높이 세우셨던 해봉당 자승 대종사님께서 지난 11월 29일 입적(入寂)하셨습니다.

무릇 제불(諸佛)의 본원(本源)은 청정하고 오묘하여 형상이 없지만, 중생의 번뇌와 고통이 가득한 사바세계에서 사부대중의 큰 의지처이셨습니다.

자승 큰스님께서는 살아 계실 때는 무문관 수행과 길위의 전법을 통해 불성(佛性)의 본원을 참학(參學)하셨던 길위의 수행자이셨고, 입적하신 뒤에는 무생(無生)의 안락(安樂)을 버리시고 세상과 중생의 구제를 발원하시는 원력(願力)의 법신(法身)이십니다.

자승 큰스님께서는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의장과 제33, 34대 총무원장을 역임하시면서 격변의 혼란을 극복하고 소통과 화합을 통해 종단의 위상을 높이셨습니다.

큰스님께서는 ‘사찰예산회계법’, ‘사찰운영위원회법’ 등 종법을 개정하여 사찰재정 투명화의 발판을 마련하셨고, 중앙징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종단의 청정과 사법제도 개선에 노력하셨고, 사회에 팽배한 노사갈등 중재를 전담할 노동위원회의 발족을 통해 사회의 갈등을 화쟁(和諍)의 가르침으로 통섭하셨습니다.

조계사 성역화 불사와 승려복지의 기틀 마련 등 종단의 오랜 숙원사업들을 해결하신 분도 바로 자승 큰스님이십니다.

총무원장직에서 물러나신 뒤에는 상월결사를 조직하여 회주로서 부처님 법을 전하는 데 앞장서셨고, 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를 설립하여 동국대학교가 명문사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아낌없는 지원과 각고의 노력을 다하셨습니다.

이처럼 큰스님의 업적은 산처럼 높고 강변의 모래처럼 많아서 전도미혹(顚倒迷惑)의 중생들에게 현실의 난관을 돌파하고 새로운 불교실천의 길과 중생제도의 활로(活路)를 열어주셨습니다.

큰스님께서는 총무원장을 연임하면서 낮에는 종단의 행정을 살피시는 한편, 날이 저물면 불조(佛祖)가 부촉(咐囑)한 심인(心印)을 향해 백척간두(百尺竿頭) 진일보(進一步)의 두타정진(頭陀精進)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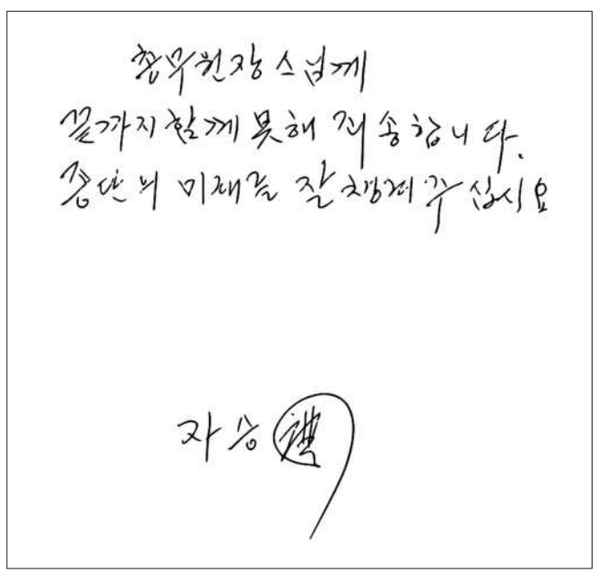
특히 큰스님께서는 세간과 출세간을 가리지 않고 만나는 대중마다 그 근기에 맞게 자애(慈愛)의 가르침을 보여서 용기를 얻게 하시고 새로운 활력의 길을 찾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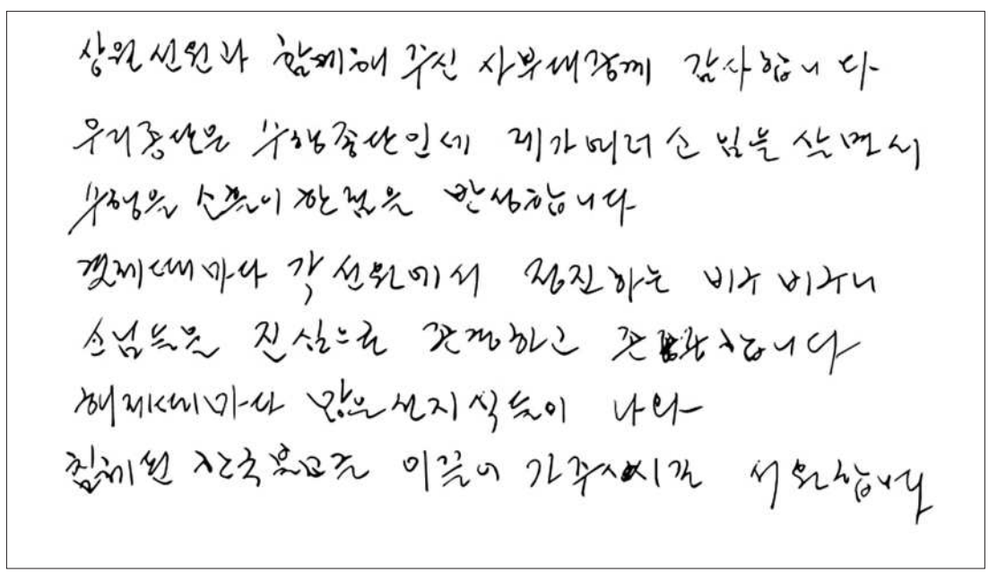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는 자승 큰스님께서 남기신 자비섭화(慈悲攝化)의 원력과 행장을 가슴에 새기고 종단 집행부와 함께 뜻을 모아 지도자를 잃은 참담한 슬픔을 딛고 혼란의 위기를 극복함으로써 큰스님께서 마련하신 초석(礎石) 위에 종단 미래의 당우(堂宇)를 세우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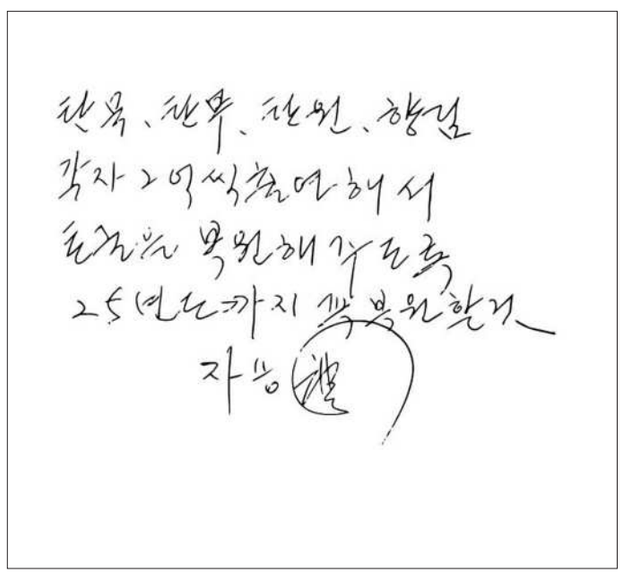
큰스님 열반의 세계에 오래 계시지 말고 속히 저희 곁으로 다시 돌아오소서.

불기 2567년 11월 30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일동


총무원장스님께
끝까지 함께못해 죄송합니다.
종단의 미래를 잘 챙겨주십시요
자승 合


상월선원과 함께해 주신 사부대중께 감사합니다
우리종단은 수행종단인데 제가 여러 소임을 살면서
수행을 소홀히 한점을 반성합니다
때마다 각 선원에서 정진하는 비구 비구니 스님
스님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해제 때마
다 많은 선지식들이 나와 침체된 한국불교를 이
끌어 가주시길 서원합니다


탄묵, 탄무, 탄원, 향림
각자 2억씩출연해서
토굴을 복원해주도록
2025년까지 꼭 복원할것.
자승 合

‘종단 걱정·참회’ 그리고 ‘부처님 법 전합시다’

해봉당 자승 대종사가 남긴 유언들

진우 스님께 “함께 못해 미안하다”
상좌들에게 “칠장사 복원” 당부해

신중일 · 윤호섭 기자

조계종 제33 · 34대 총무원장을 역임한 상월결사 회주 자승 대종사의 유언장이 12월 1일 공개됐다.

12월 1일 발표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공개된 자승 대종사의 유언장은 대종사의 주석처인 재단법인 은정불교문화진흥원에서 발견된 것이다. 조계종 기획실장 우봉 스님에 따르면 자승 스님은 지난 3월 인도순례를 마치고 지인들과 차를 마시면서 나중에 본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숙소 내 특정 장소를 찾아보라고 말했다. 우봉 스님은 “당시 지인들은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고 손사래를 쳤는데, 대종사 원적 이후 한 지인께서 이 말씀이 떠올라 직접 숙소를 찾아가 유언장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이어 “해당 지인 중에 상좌는 없었고 어른스님들만 계셨다”고 부연했다.

주석처에서는 10여 장의 유언장이 발견됐고, 이 가운데 개인 신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유언장을 제외한 3장을 공개했다. 3장의 공개 유언장은 이와 같다.

‘총무원장스님께, 끝까지 함께 못해 죄송합니다. 종단의 미래를 잘 챙겨주십시오.’

‘상월선원과 함께해주신 사부대중께 감사합니다. 우리 종단은 수행종단인데 제가 여러 소임을 살면서 수행을 소홀히 한 점을 반성합니다. 결제 때마다 각 선원에서 정진하는 비구 비구니 스님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해제 때마다 많은 선지식들이 나와 침체된 한국불교를 이끌어 가주시길 서원합니다.’

‘탄묵, 탄무, 탄원, 향림 각자 2억(원)씩 출연해서 토굴을 복원해주도록 2025년까지 꼭 복원할 것.’


12월 1일 우봉 스님이 유언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상좌스님들에 대한 당부를 제외하면, 모두 종단의 미래를 걱정하는 이야기들이다. 우선 당신의 원적으로 많은 짐을 안게 될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 대한 미안함이 담겼다. 종단 안팎에서 활발히 활동한 스님의 갑작스런 소신공양으로 벌어질 여러 사안들에 대한 죄송함과 그럼에도 부탁해야 하는 ‘종단의 미래’에 대한 당부는 종단의 어른으로서 안아야 할 책무의 무게감도 함께 느껴진다.

세간에 사판승으로 알려진대로 자승 대종사 스스로 소임을 보며 수행이 부족한 점을 참회한 점도 인상 깊다.

자승 대종사는 2017년 총무원장 소임을 마무리하고 바로 찾은 곳이 백담사 무문관이다. 이곳에서 자승 대종사는 두 번의 겨울을 보냈다. 2017년 첫 백담사 무문관 동안거에 입방에 대한 화두와 소회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라는 짤막한 화두로 답을 대신했다.

‘해제 때마다 많은 선지식들이 나와 침체된 한국불교를 이끌어 가주시길 서원합니다’는 것은 평소 자승 대종사가 강조한 전법 원력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선불교의 견성에 이르는 단계를 10개의 그림으로 표현하는 십우도의 마지막은 ‘입전수수(入廛垂手)’로, 각행(覺行)이 원만해진 상황에서 보살행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자승 대종사가 불교 언론 기자단과 가진 마지막 인터뷰에서도 나타난다.

“한국불교 간화선에는 결제만 있을 뿐입니다. 해제하고 난 뒤에는 걸망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공부한 이야기, 화두 이야기, 마음 다스리는 법 등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깨달은 바가 있다면, 해제 후 고통 받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에게 부처님 법을 전해야 하지 않겠는가.”

결국 마지막 귀결점은 수행과 전법이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법을 바로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전법하는 것. 그것이 자승 대종사가 마지막 남긴 유훈이다.

전법·인재 양성·종단 운영…후학에 던진 화두들

해봉당 자승 대종사가 던진 한국불교 과제

11월 29일 원적에 든 해봉당 자승 대종사는 우리에게 여러 화두를 남겼다. 생전 육성 중 후학들에게 가장 깊게 다가오는 것은 11월 27일 생전 마지막 인터뷰와 10월 31일 불교광장 간담회에서의 ‘작심제언’이다.

전법: 한국불교 지속 과제

자승 대종사에게 전법은 생활이었다. 그만큼 전법에 대한 열정은 오래된 경험에서 기인한다. 수원에서 종로의 총무원까지 전철로 출퇴근하며 노상 전도하는 교인을 보며 ‘우리는 참 부처님 법 전하는 데 소극적이구나’라고 생각한 대종사는 대덕사 주지를 살며 가가호호 전법을 다녔고, 1년 만에서 법회 참여 신도가 5명에서 150명까지 늘게 됐다. 이를 본 자승 대종사는 포교의 중요성을 실감했고, 전법행은 대종사의 생활이 됐다고 한다. 퇴임 후 대중들에게 설했던 법문 곳곳에는 전법에 대한 열정들이 묻어난다.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고 45년 동안 요즘 표현으로 포교만 하셨다. 열반 이후에도 제자에게 두 발을 보이시고, 다비를 통해서 여덟 나라에 사리를 분배하면서 마지막까지 부처님 법을 전했다.

현실적으로 우리 한국불교는 부처님 법을 전하기보다는 불사하는 일에 집착한다. 국민 속으로, 대중 속으로, 사회 속으로, 중생 속으로 사부대중이 떠나지 않으면 한국불교의 미래는 없다. 사부대중이여 떠나라!“

– 2023년 3월 14일 인도 대성석가서 법문 중

11월 27일 생전 마지막 인터뷰에서도 자승 대종사는 한국불교의 문제점 중 하나가 불교 인재 양성 부족에서 기인함을 지적하고 대학생 전법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

자승 대종사는 최근 불거진 정부의 ‘불교홀대’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본다면 종단에서 항의할 수 있다”면서도 “정부 인사에 불교 인재가 없다는 것은 불교계가 인재를 양성하지 않은 이유도 있다. 이제부터라도 각 분야에 불교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이것이 대학생 전법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청년 전법의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꾸준히 지적돼 온 전역 불자장병에 대한 지속관리 방안은 고무적이었다.

자승 스님은 “제대할 때가 되면 초코파이나 피자, 햄버거의 기운이 빠져버려 정작 사회에 나와서는 불교 신행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젠 무늬만 수계 군불자가 아니라 전역 이후 불자로 활동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면서 “전역 후 불자장병이 대학에 복학하면 해당 대학 불교동아리 지도교수가 동아리 활동을 안내하고, 대학생이 아니라면 지역 주지스님이 연락해 사찰음식을 먹으며 격려해 청년회 활동을 연계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부터는 상월결사와 포교원, 군종특별교구가 1월부터 한 달에 한 번씩 논의하면서 방안을 수립하려 한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11일 사부대중 전법대회에서는 △각 교구별 지역 거점대학에 신규 불교 동아리 1개 이상 설립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소속 동아리 활성화 △대학생 불자 영(YOUNG) 캠프 △전국 대학생 불교음악축제 개최 등 계획이 제시됐다. 특히 2026년 3만 명을 목표로 ‘전국 대학생 불자대회’를 정례화하고, 한국 대학생 불자를 주축으로 세계 불자 청년 20만 명이 참여하는 ‘세계불교청년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청사진은 주목해야 한다.

“세계 가톨릭청년 100만 명이 서울에 온다고 합니다. 30만 명은 해외에서 오고 70만 명은 국내 젊은이들이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침체된 한국불교가 더 위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7년도에 우리 종단도 100만 명은 못 모은다 할지라도 최소 20만 명을 모아 세계불교 청년대회를 열고 한국불교의 건재함을 보여줄 준비를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회부나 종회차원의 단순한 것보다는 달라이라마를 초청해서 같이 행사를 하면 어떨까 제안합니다.” – 10월 31일 불교광장 간담회

종단: 현실적인 방안 고민을

자승 대종사가 고민한 종단의 미래에 대한 걱정은 효율적인 종단 운영 시스템이다. 생산 조직이 아닌 오로지 신도들의 보시로 운영되는 종단의 조직이 비대해짐에 대한 걱정이었다. 이것이 잘 나타난 것이 10월 31일 불교광장 간담회다.

이 자리에서 자승 대종사는 중앙분담금에 대한 부담으로 꼽은 가장 큰 원인은 총무원과 산하단체 일반직 종무원 인건비다. 스님은 “현재 산하단체를 포함하면 300명이 넘는 종무원이 있다. 일반직 종무원은 급여가 매년 올라 10~20년이 되면 고액연봉자가 된다”면서 “말사 주지도 없는 상황에서 분담금이 계속 높아지면 무슨 재주로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성급하게 해서 될 일이 아님을 밝히기도 했다.



“큰 틀에서는 1994년 이후 30년이 지난 종헌종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총무원장 스님을 중심으로 조직개편 특위를 구성해야겠죠. 원로의원, 중앙종회의원, 교구본사주지, 종단 중진, 불교전문지식을 가진 변호사 등으로 위원회를 꾸려 2~3년간 로드맵을 만들어가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11월 27일 인터뷰)

출가자 감소로 인하 중앙승가대의 위기에 대한 자승 대종사의 진단은 촌철살인에 가깝다. “출가를 늘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한마디로 현상유지도 어렵다”고 밝힌 대종사는 “이런 상황이면 중앙승가대는 5년 안으로 존폐 위기에 놓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승 대종사는 “중앙승가대가 폐교하면 5000억원에 가까운 재산이 교육기관으로 넘어간다. 이를 그냥 두고 볼 수 는 없다”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동국대가 함께 해야 한다. 뼈를 깎는 고통을 견뎌내면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여러 과제에 무엇이 필요할까. 자승 대종사는 모든 종단의 행정과 불사, 전법에 ‘공심(公心)’을 강조해 왔다. 사부대중이 공심으로 전법을 실천하고, 종단의 고난을 함께 이겨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신심과 원력을 갖고 공심으로 회향하는 것이 수행자의 모습이다. 사심(私心)을 가지고 사유화하고 욕심을 내왔던 것이 국민과 사회, 정치권으로부터 불교가 홀대받은 원인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이것이 자성과 쇄신 결사의 배경이다.

2000만 불자라 하지만 불자라고 당당히 나서는 사람이 없다. 불교를 쉽게 여기고 홀대하는 사람들의 자세를 바꾸기 위해서는 사부대중의 한목소리와 결집이 필요하다. 결사운동은 승가뿐만 아니라 사부대중의 실천을 통해 국민운동으로 승화돼야 한다. 사부대중의 실천 없이 불교는 변할 수 없다.”

(2011년 3월 19일 자정과 정체성 회복을 위한 결집대회서)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사진으로 본 자승 대종사 발자취

조계종 제33·34대 총무원장을 지낸 상월결사 회주 해봉당 자승 대종사가 11월 27일 원적에 들었다.

1986년 총무원 교무국장을 시작으로 총무원 재무부장, 총무부장 등 종단 주요 소임을 지낸 자승 스님은 제10·11·12·13·14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하며 종단 입법활동에 매진했다. 특히 제14대 전반기 중앙종회의장으로서 종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했다.

2009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조계종 제33·34대 총무원장을 역임하며 종단 안정과 대사회 소통을 이어갔다. 퇴임 후에는 위례 상월선원 천막결사를 비롯해 불교 중흥·국난극복 자비순례, 삼보사찰순례, 상월결사 평화방생순례, 상월결사 인도순례를 이끌며 새로운 전법수행을 내보였다. 또한 상월결사 대학생전법위원회 창립하고 '대학생 전법'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자승 대종사가 보인 삶의 여적을 사진으로 정리했다.

〈편집자 주〉



2013년 11월 8일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 취임법회에서 자승 스님이 삼귀의를 하고 있다.

공심·원력으로 종단 안정·사회 화합 견인



자승 스님이 제33대 총무원장 당선 직후 지관 대종사에게 인사를 드리고 있다.



자승 스님이 총무원장 당선 직후 대중에게 인사하고 있다.



제33대 총무원장 취임 직후 용산 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자승 스님.



제33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자승 스님이 취임사를 낭독하고 있다.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불자선수단을 격려한 자승 스님.



2014년 4월 18일 '화쟁코리아 100일 순례단'과 함께 전북 완주 순례에 나선 자승 스님.



2014년 자승 스님과 종단지도자들이 청계천 전통등 전시 개막 점등에서 세월호 실종자의 무사귀환과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2020년 2월 7일 상월선원 무문관 문을 열고 나오는 자승 스님.

> 부처님은 평생 최선을 다해
> 중생의 이익을 위해
> 법을 설했습니다.
> 부처님이 제일 먼저
> 우리에게 주신 임무는
> '전법하라'입니다.
> 전법없는 불교는
> 죽어가는 불교입니다.

'부처님 법 전합시다' 韓불교 화두 남기다


자승 스님이 지난 2월 10일 인도순례 시작지점인 초전법륜지서 법문을 하고 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이 부처님을 품에 안고 녹야원을 나서고 있다.



지난 3월 23일 인도순례 회향식에서 자승 스님이 입장하고 있다.


지난 7월 6일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 창립식에서 자승 스님과 사부대중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승 스님과 함께한 수미산원정대 제1기 수계식 · 졸업법회 및 2기 입학식.


자승 스님이 고운사 마음방생 평화순례에서 순례자들과 함께 걷고 있다.


2020년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만행결사 자비순례에서 회주 자승 스님과 결사대중이 순례를 하고 있다.

문화재연구시설 상량…"체계적 관리 기대"

조계종 종단불사추진위, 11월 29일 양평군 부지서

양평=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지상2층 · 지하2층, 연면적 2천평
보존처리실 · 분석실 등 들어서
봉선사 · 용문사가 부지 기부해


조계종 종단불사추진위가 양평군 공흥리 부지에 건립 중인 불교문화재 연구시설 상량식에서 내빈이 상량판을 개막하고 있다.

불교문화유산의 진단과 보존, 복원 및 연구를 실시할 양평 불교문화재 연구시설이 준공을 앞두고 상량판을 내걸었다.

조계종 종단불사추진위원회(위원장 진우, 조계종 총무원장)는 11월 29일 오후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부지에서 '불교문화재 연구시설 상량식'을 봉행했다. 상량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불사추진위 총도감 만당 스님,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정도 스님,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 최응천 문화재청장, 전진선 양평군수 등 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불교문화재 연구시설 건립사업은 불교문화유산의 전승체계 확립과 체계적인 문화재 보존 및 복원방안 강구, 보존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문화재 가치와 원형성을 보존 · 복원하고 전통 법식을 계승하기 위해 추진됐다. 2013년 4월 사업계획이 수립된 이후 2017년부터 8년에 걸쳐 총 사업비 190억 원을 투입한다. 2020년 부지가 확정되고 2021년 6월 건축허가 승인, 2022년 4월 착공 이후 상량식을 거쳐 내년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특히 양평군 부지는 제25교구본사 봉선사와 용문사의 기부로 마련돼 의미를 더했다.

연구시설은 대지면적 5019㎡(1518평), 건축면적 1889㎡(571평), 연면적 6769(2048평)에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지상에는 사무실과 자료실, 분석실, 보존처리실, 수장고가, 지하에는 대형불화 보존처리실과 전시실, 주차장 등이 들어선다. 한국의 대다수 문화재가 불교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이에 맞는 전문 연구시설로서 분야별 과학적 보존체계를 갖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불교문화재 연구시설은 민족 정체성과 직결된 전통문화재의 보존과 복원, 전승을 담당할 중요한 거점을 마련하는 중요한 불사"라며 "전 총무원장이신 자승 스님의 원력으로 2013년 시작된 이후 대외환경 변화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상량식을 봉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일차적으로 우리 민족문화의 보고인 불교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나아가 전문인력 양성기관 역할과 더불어 기획전시로 방문객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평군을 관할하는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은 환영사에서 "소중한 불교문화유산은 그동안 사찰을 중심으로 스님들과 불자들의 노력으로 보존 · 전승했으나 그 노력에는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이를 극복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종단 차원에서 문화재를 연구 · 관리하는 시설 건립불사는 매우 중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연구시설은 불교문화유산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연구할 수 있는 수장고와 엑스레이실, 대형불화처리실, 훈증실과 관련 분야의 연구자들께서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세미나실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라며 "연구시설이 개관하면 더욱 많은 문화유산이 과학적인 보존시설과 전문화된 시스템 안에서 연구되고 활용될 것"이라고 축사했다.

이외에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정도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 전진선 양평군수도 단상에 올라 연구시설 건립불사가 원만 회향하길 기원했다. 이어 주요 내빈들은 마룻대가 없는 현대식 건물을 감안해 상량판을 대신 개막하며 상량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송현광장 이승만기념관 건립 사실무근"

박민식 보훈부 장관, 진우 스님 예방서 밝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만나 최근 불교계의 공분을 산 송현열린 녹지광장의 이승만기념관 건립 논란에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박민식 장관은 11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진우 스님을 예방했다.〈사진〉 이 자리에는 기획실장 우봉 스님, 호법부장 보운 스님, 사서실장 진경 스님이 배석했다.

진우 스님은 "여러 언론매체를 살펴보니 송현열린 녹지광장에 이승만기념관 건립이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 서울시장 역시 긍정적으로 이를 검토하는 모양새"라며 "관점에 따라, 진영에 따라 해석의 여지가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불교계에서는 이승만에 대한 좋은 인상이 없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특히 "이승만은 대처승과 비구승 간의 갈등 속에서 불교계 내부의 혼란만 부추긴 장본인일 뿐 아니라 기독교 사상에 심취한 인물"이라며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국민통합과 화합을 저해하고 더 큰 불화를 야기한다"고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윤석열 정부의 장 · 차관, 대통령실 참모, 군 장성까지 불자가 전무한 현실도 조목조목 짚으며 "정부의 반복된 친개신교 행보에 본사주지 스님들부터 종회의원 스님들, 원로 스님들까지 규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며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일"이라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에 박민식 장관은 녹지광장 이승만기념관 건립 추진 논란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 입지와 관련해 정해진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또 "총무원장스님의 말씀과 불교계의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했다.

진우 스님은 호국정신이 계승될 수 있도록 용산 인근에 영령관 건립도 제안했다. 스님은 "어느 나라나 역사가 이어져 올 수 있던 이유는 선대가 나라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 받친 스님들과 불자들에 대한 역할과 평가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호국정신 함양과 보존을 위해 국가에 이바지한 모든 이들을 추모하고, 종합적인 예를 올릴 수 있는 공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대통령께서도 용산 공원에 호국정신을 담은 공원 계획을 갖고 있다"며 "후손들이 알아야 할 호국의 역사와 인물을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내영 기자

제35회 조계종 포교대상에 계호 스님

공로상 화봉 · 진성 스님 등 선정
12일 역사문화기념관서 시상식

제35회 조계종 포교대상 종정 표창에 서울 진관사 회주 계호 스님〈사진〉이 선정됐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선업)은 11월 29일 '불기 2567년 제35회 대한불교조계종 포교대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포교대상은 포교분야에서 공적을 세운 스님과 재가 및 사찰, 단체의 공로를 치하하며 불교적 자긍심 고취 및 포교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계호 스님은 수행과 문화로 전법하는 진관사 회주로서 산사음악회, 산사음식시연회, 국행수륙재 등 문화행사와 기도 · 수행 · 명상 · 교육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포교활동에 진력해왔다. 아동센터와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운영으로 지역복지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또한 대한불교조계종 사찰음식 명장으로 2009년 진관사 산사음식연구소를 설립, 사찰음식을 국내외에 소개했으며 불교와 국가 위상 제고에 크게 이바지하는 등 문화, 지역포교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총무원장 표창인 공로상에는 △민주평화통일 대통령자문위원회 상임위원 화봉 스님 △경산백천종합사회복지관장 진성 스님 △이영숙 제11교구 신도회장(중신회 · 전국여성불자회 부회장) △우현의 국군불교총신도회 후원회장이 선정됐다.



화봉 스님은 국제포교사로서 LA대각사를 창건했고 호놀룰루 와이키키 관음사에서 국제 포교활동을 펼쳤다. 또 교도소 교화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진성 스님은 노인복지관 등 교구지역 노인복지와 포교에 진력하고 있다. 이영숙 제11교구 신도회장은 중신회 및 전국여성불자회 부회장, 불국사 신도회장으로 신도조직 활성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여성불자 경제인으로 대사회적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우현의 국군불교총신도회 후원회장은 행사 동참과 후원으로 군불교 발전에 공헌했고 군법당 12곳에 매분기 포교활동 지원금을 후원하고 있다.

포교원장 표창인 원력상에는 △조계종 청년대학생전법단 해동 스님 △동련 광주지부회장 지장 스님 △신영숙 봉은사 신도회 사무총장 △이영선 국제선센터 법당봉사팀장 △김동교 완도 신흥사 신도회장이 선정의 영광을 안았다.

해동 스님은 신구대, 성남중원경찰서, 평택구치소 등에서 지도법사로 활동하며 지역 포교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성남 흥법사 주지다. 지장 스님은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관심을 갖고 동련, 파라미타에서 법회지도 활동에 진력하고 있다. 또 광주BBS 등 방송프로그램 포교활동도 펼친다. 신영숙 봉은사 신도회 사무총장은 상월결사 수미산원 정대 3기로, 봉사와 신행에 모범을 보이고 있다. 이영선 국제선센터 법당봉사팀장은 사찰과 지역 소외계층 봉사와 새신도 대상 포교활동을 하고 있다. 김동교 완도 신흥사 신도회장은 완도지역 청소년 장학금 지원뿐 아니라 신흥사 신도자원봉사단체를 조직, 지역포교에 솔선수범하고 있다.

'제35회 대한불교조계종 포교대상 시상식'은 12월 12일 오후 2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다. 임은호 기자

"의밀심인당, 대구 포교활성화 기대"

진각종, 의밀심인당 헌공불사 · 본존이운가지불사



대구시 달성동에 심인진리 도량이 법계에 헌공됐다.

진각종(통리원장 도진 정사)은 11월 28일 오후 2시 의밀심인당(대구시 중구 달성동 179-3) 헌공불사 및 본존이운가지불사를 봉행했다.〈사진〉 의밀심인당은 연면적 809.76㎡,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1층 사택 및 접견실, 2층 법담실, 3층 심인당이 자리하고 있다.

통리원장 도진 정사는 기념사를 통해 "진기 2년 첫 교화의 문을 열었던 의밀심인당은 초기 교화의 반석고도 같았던 주요한 전당이었다"면서 "의밀심인당이 향후 종단의 교화불사를 견인하면서 대구교구의 포교활성화에 활력소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의밀심인당 주교 수혜 정사는 "20년을 넘게 교화하면서 길상심인당을 비롯해 교석, 능인, 의밀심인당 헌공불사 등 큰 불사와 인연이 깊다"며 "법계에서 심인당을 넓고 크고 둥글고 차게 만들어 주었으니, 내 마음을 넓고 크고 둥글고 차게 만들어 이 지역을 심인진리로 만들도록 용맹정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교구 금강회장 명학 각자는 "의밀심인당 발전과 함께 대구교구가 전국에서 으뜸가는 교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정지 의밀심인당 금강회장은 "의밀심인당을 더욱 넓고 크고 둥근 마음으로 화합하고 용맹정진해 더욱 빛나는 도량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중일 기자



“불교 쇠퇴한 용산, 전통회복·계승 필요”

11월 25일 ‘용산지역 내 불교역사에 대한 고증 세미나’

“해방 후 적산 기독교로 넘어가”
“호국 의승 넋 기리는 시설 필요”
치유 공간으로 재탄생 강조키도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은 11월 2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용산지역 내 불교문화역사에 대한 고증연구 세미나’를 개최했다.

“용산은 침략을 자행했던 일본에게는 반성, 한국을 비롯해 침탈 당했던 이들에게는 치유의 공간이 돼야 합니다. 미군정의 친기독 정책으로 쇠퇴한 전통 불교에 대한 추념사업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진우)이 11월 2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용산지역 내 불교문화역사에 대한 고증연구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제자들은 용산의 역사 변화 속 종교문화의 흐름을 분석하고 해방 당시 미군정의 친기독교 편향으로 인한 불교 쇠퇴에 안타까운 마음을 표했다.

이날 노대환 동국대 교수는 총론 ‘용산지역의 역사적 변화와 문화’에서 종교와 관련한 용산의 가장 큰 변화에 대해 ‘기독교의 약진’이라고 설명했다. 친기독교적인 정권과 미국의 영향력으로 많은 적산이 기독교계에 넘어가면서 용산지역서 기독교가 크게 성장했다는 것이다.

노 교수는 “해방 후 유입된 기독교인들로 인해 교회시설과 기독교계 학교들이 들어섰고 이슬람 사원이 건립되면서 용산은 각종 종교의 핵심 공간으로 자리잡게 됐지만 정작 이곳에 전통 불교의 흔적을 발견하기 힘들게 됐다”면서 이는 “종교기관 재산은 동종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일본 불교계의 재산도 기독교계가 접수하는 일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당시 용산에 존재했던 여러사찰은 불교통제 정책으로 인해 철폐되거나 독서당으로 사용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 미군이 주둔하면서 군사도시로서의 성격을 탈피하지 못했고 친기독교적인 정권과 미국의 영향력으로 많은 적산이 기독교계로 넘어가면서 용산 지역에서 기독교는 크게 성장할 수 있었으나 불교계는 철저히 무시, 정착 한국 전통 불교의 흔적을 차기가 쉽지 않게 됐다.

이 같은 과정은 이후 문혜진 부경대 교수가 발제한 ‘해방 후 적산불하 정책과 불교계 영향’에서도 잘 나타난다. 문혜진 교수의 발제에 따르면 러일 전쟁 이후 용산구 일대에는 신사(神社)와 신사(神祠) 6사, 교파신도 8사, 일본기독교 4사, 일본불교 사원 32사가 창건됐다. 문 교수에 따르면 해방 후 용산 소재 일본불교 사원 중 조선 불교계가 접수한 것은 33.3%에 불과하다. 해방과 함께 일본 종교 관련 적산처리 문제에 관해 ‘일본 종교재산은 조선의 동등한 종교기관에 이양된다’는 방침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용산의 신사 중 규모가 커서 적산재산 추적이 가능한 경성호국 신사와 가토신사 부지에는 기독교계 학교 및 교회가 들어섰다. 그 외 용산 부대 내 위치했던 안산대신궁은 해방 후 미군 용산기지 내에 편입됐다. 이에 동일 종교기관으로의 불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일본신사의 경우 적산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규모의 신사는 용산구에 한해 기독교계에 편향적으로 불하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문 교수는 “기독교에 우호적이던 미군정이 한국의 기독교에게 적산재산 처리에 있어서 각종 지원과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기독교가 한국 현대사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종교로 급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발제에서 문 교수는 용산불교 전통 회복과 계승을 위한 제언도 잊지 않았다. 용산공원 혹은 용산지역 어딘가에 호국의승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기 위한 추념시설을 설립해 달라는 것. 문 교수는 “임진왜란 시기 활동한 의승들은 우리 역사의 의인이자 위인으로서의 위상을 지닌다”면서 “이들을 추모하고 선양하는 추념사업은 불교계뿐 아니라 범국민적 차원에서 전개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지닌다”고 강조했다.

노대환 교수도 “용산은 침략을 자행했던 일본에게는 반성, 한국을 비롯해 침탈 당했던 이들에게는 치유의 공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교수는 “용산 지역에 전통 불교를 접목, 개방성이라는 용산의 특성도 살리고 지역의 역사성도 회복하는 방안을 고민해야한다”면서 “이를 통해 용산 지역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고대 및 고려시대 용산불교의 역사와 문화(고영섭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조선시대 한양 도성 및 용산의 불교(황인규 동국대 역사교육학과 교수) △근현대, 용산불교 모색의 시론(김광식 前 동국대 특임교수) △용산지역 불교의 호국 전통과 구제행(김상영 前 중앙승가대 교수) △해방 후 적산불하 정책과 불교계 영향(문혜진 부경대 교수) 등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개회식에서 조계종 문화부장 혜공 스님은 조계종 미래본부 사무국장 여해 스님이 대독한 개회사에서 “100년이 넘는 시간을 거치며 용산 지역 내 존재했던 불교의 역사와 사찰은 물론, 전통문화와 시설 또한 모두 사라져 버렸다”면서 “이런 현실은 우리에게 용산의 역사적, 문화적, 불교적 전통을 계승하고 새롭게 꽃피워야 한다는 과제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를 통해 민족 수난의 땅이자 불교의 호국과 통일의 염원이 서려 있는 용산이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자비와 평화의 불교 정신이 널리 확산시키는 역사적, 문화적, 정신적 공간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행 선사가 남긴 ‘육성 전법’ 의미는

대행선연구원, 12월 16일 제17회 계절발표회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의 생전 법문들은 녹음·녹화돼 법어집으로 발간됐다. 이 같은 육성 법문과 법어집이 불교 전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살피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 산하 대행선연구원(원장 혜선)은 12월 16일 오후 1시 30분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3층에서 제17회 계절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날 계절 발표회에서는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정완 스님이 ‘참회와 회과를 통해 본 중국불교’를, 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이 ‘묘공대행의 육성(肉聲) 전법’을 발표한다. 논평자로는 정선 스님(동국대), 김영진 동국대 WISE캠퍼스 교수, 김은영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오진영 대행선연구원 연구원이 참여한다.

또한 지난 14회 계절발표회부터 시작된 한마음선원 지원·단체 소개는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이 소개된다. 발표는 통영지원장 혜연 스님이 맡는다.

대행선연구원은 “최원섭 연구원의 ‘묘공대행의 육성(肉聲) 전법’은 대행선사의 법어집과 육성 법문이 시공을 초월해 직접 듣는 역할을 하고, 전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살핀다. 또한 정완 스님의 ‘참회와 회과를 통해 본 중국불교’는 중국불교에서 재난을 막는 주술로 참회법을 행했음을 조명한다”면서 “대행 선사의 사상과 다양한 불교학 주제를 만날 수 있는 이번 발표회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계절발표회에는 한마음선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발표 자료집도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신중일 기자

여성불자회 송년수계산림 템플스테이

11월 25~26일, 은해사 일원서
백흥암 순례 등으로 신심 다져

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회장 김의정)는 11월 25~26일 1박 2일 동안 제10교구본사 은해사와 팔공산 갓바위 일대에서 ‘송년수계산림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각자 단위의 한 해 활동을 정리하고 새해 여성불자회의 활동 방향 점검, 템플스테이와 수계의식을 통해 불자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다.

16개 교구 및 사찰 대의원, 13개 직능단체 대표 회원 총 12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템플스테이는 입재식을 시작으로 백흥암 순례, 팔공산 갓바위 새벽예불, 수계산림법회로 진행됐다. 김의정 회장은 이연화 수석부회장이 대독한 인사말을 통해 “함께 만나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은 조직을 키워내는데 가장 중요한 과정이며, 그 시간의 깊이와 무게가 깊어져야 우리의 역사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서 “한국불교 1700년이 이어온 역사는 우리 여성불자들이 변화되는 환경에서도 가정과 사찰에서 굳건하게 자리를 지켜온 뚝심의 결과다. 각자 그 내공의 뚝심을 끌어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교원장 선업 스님은 입재법문에서 “‘부처님 법 전합시다’라는 슬로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바로 지금 실천하는 것이 부처님 법 전하는 길이 되고 그 길은 세상을 맑고 향기로운 정토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입재식 후 2.5km 떨어진 비구니스님들의 수행도량 백흥암을 ‘생명을 살리는 걷기명상’ 프로그램으로 참배하고, 발우공양과 촛불기도정진으로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둘째 날 새벽 3시, 은해사를 출발해 선본사 갓바위에 오른 회원들은 차가운 새벽공기를 맞으며 각자의 서원을 갓바위 부처님께 전하고 모든 이의 안녕을 기원하는 시간을 보냈다. 임은호 기자



전국여성불자회는 11월 25~26일 1박 2일 동안 제10교구본사 은해사와 팔공산 갓바위 일대에서 ‘송년수계산림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조계사, 종로구에 김장 6톤 자비나눔

해남군서 배추 4000포기 후원…취약계층에 전달키로

조계사가 김장철을 맞아 소외이웃을 위한 김장 자비나눔에 나섰다.

조계사(주지 원명)는 11월 29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이웃과 함께 행복한 조계사 김장 나눔전’을 개최했다. 주지 원명 스님과 이승현 신도회장, 정문헌 종로구청장이 동참한 행사에는 조계사 사부대중 200여 명이 함께했다.

김장 나눔전에는 조계사와 도농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해남군에서 배추 8톤에 달하는 약 4000포기를 후원해 의미를 더했다. 조계사는 이 가운데 김장 3000포기를 담아 종로구 각 주민센터를 통해 이웃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은 “오늘 열심히 김장을 담아서 독거어르신들께서 겨울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려 한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이 맛있게 김장을 담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인사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승현 신도회장, 주지 원명 스님, 정문헌 구청장이 배추에 속을 버무린 뒤 환하게 웃고 있다.

정문헌 구청장은 “조계사가 없는 종로는 상상할 수가 없다. 종로의 핵심 공동체 역할을 조계사가 하고 있다”며 “부처님 법 널리 전하기 위해 스님과 불자님들께서 노력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부처님의 고행과 깨달음, 열반에 이르기까지
인도 성지순례 10일
동 참 금 : 269만원~
주 요 일 정 : 녹야원–보드가야–라즈기르–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스라바스티–아그라–델리
체크포인트 : 호텔, 열반당 가사 공양, 인도·네팔 비자 비용 포함, 성지순례구간 한식 요리사, 전 구간 불교 전문 가이드
▶2024년 2월 22일 ~ 2024년 3월 2일
▶2024년 3월 14일 ~ 2024년 3월 23일

인도 성지순례 13일(아잔타 석굴 포함)
동 참 금 : 320만원~
주 요 일 정 : 델리–오랑가바드–아잔타 석굴–엘로라 석굴–산치 대탑–아그라–기원정사–룸비니–쿠쉬나가르–케사리아–바이샬리–나란다–죽림정사–영축산–보드가야–녹야원

인도양의 진주
스리랑카 순례 6일
주 요 일 정 : 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시기리야–폴론나루와–담불라–캔디 불치사–콜롬보

주요 불교성지와 아름다운 자연 경관, 액티비티 체험까지 多!
라오스 성지순례 5일
동 참 금 : 149만원~
주 요 일 정 : 탓루앙–탁발 행렬 참관–꽝시 폭포–왓씨엥통–탐쌍/탐남동굴
체크포인트 : 특급호텔, 롱테일 보트 체험, 블루라군, 전신마사지 2시간
▶ 2024년 1월 12일 ~2024년 1월 16일 모객완료
▶ 2024년 1월 17일 ~2024년 1월 21일 모객완료

불광산사 등 대표순례지와 자연과 문화, 휴식까지
대만 완벽 순례 5일
동 참 금 : 169만원~
주 요 일 정 : 불광사–불타기념관–중태선사–자제공덕회–태로각협곡–법고산사–자항사
▶2024년 1월 16일 ~ 2024년 1월 20일 모객완료
▶2024년 2월 25일 ~ 2024년 2월 29일
▶2024년 3월 14일 ~ 2024년 3월 18일

세계 3대 불교유적지 보로부두르 사원
족자카르타 보로부두르 성지순례 5일
주 요 일 정 : 자카르타–족자카르타–보로부두르 사원–프람바난 사원–머라피 화산

중국 4대 불산
– 관세음보살의 상주처 보타·낙가산
– 지장보살의 상주처 구화산
– 보현보살의 상주처 아미산
– 문수보살의 상주처 오대산


예약·상담 02-365-7747
www.mahayeon.com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투어

“군불교, 청년 포교 최전선서 선봉장”

11월 29일, 교구장 법원스님 취임
55주년 군승의날 기념법회 봉행
“군포교 새 역사 만들어 가겠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11월 29일 군종특별교구장으로 취임한 법원 스님이 군종특별교구를 상징하는 깃발을 받아들고 힘차게 흔들고 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신임 교구장 법원 스님이 청년 포교를 통해 한국불교의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군종특별교구는 11월 29일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제7대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 취임 및 제55주년 군승의 날 기념 법회’를 봉행하고 한국불교 중흥을 염원하며 포교 원력을 다졌다.

법원 스님은 취임사에서 먼저 지금 이 순간에도 전후방 각지에서 조국 수호의 부여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복무하고 있는 육해공군, 해병대 전 장병과 군무원, 군승 법사들의 노고를 수희 찬탄하고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 돼 오직 전법을 위해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법원 스님은 이날 청년 포교에 대한 열의를 드러냈다. 스님은 “현재 한국불교의 최대 화두는 전법”이라며 “그중에서도 대학생, 청년층의 전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학생과 청년계층 포교의 중심은 군불교”라면서 “전법 포교의 오랜 경험과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 군불교는 대학생 청년 전법 포교의 최전선에서 선봉장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포교원장 선업 스님이 대독한 치사에서 전후방 각지 군포교 현장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자 위법망구 정신으로 불철주야 용맹정진하고 있는 군승법사들을 격려했다. 진우 스님은 이 땅에 불법이 전래된 이래 불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앞장선 일들을 열거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한 호국불교의 빛나는 전통은 군불교로 이어져 끊임없이 정진하며 발전하고 있다”고 치하했다. 이어 “오늘날 한국불교는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탈종교화 시대라는 현실의 직접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청년층에 대한 포교와 전법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불교중흥의 미래를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절대절명의 과제”라면서 “7대 군종교구장 법원 스님을 중심으로 육해공군 모든 군승법사들이 포교와 전법 원력을 세우고 힘찬 정진과 노력으로 군불교 발전과 불교의 내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과 이상철 국군불교총신도회장, 주호영 정각회장도 축사를 통해 60만 장병에게 부처님 법음을 전하기 위해 전법의 한 길에서 정진하고 있는 군승법사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제2대 군종특별교구장인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 스님은 법어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한 호국불교의 빛나는 전통은 끊임없이 정진하며 발전하고 있다”면서 군승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돕고 협력하면서 살자”고 당부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유공자 표창 수여를 통해 전후방 각지에서 군불교 발전에 헌신한 군승과 불자들을 격려했다. 육군 제17사단 호국연주사 주지 원경 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상’을 수상했으며, 혜운 · 자원 스님이 ‘포교원장상’을, 정행 · 혜징 · 진오 · 금조 · 수종 스님이 ‘군종특별교구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또한 송정일 제1군수지원사령부 무량사 금강회 총무와 황용주 제36보병사단 법웅사 금강회장이 ‘군종교구장 공로상’을 받았다.

법회 동참자들은 발원문을 통해 “저희들에게 부여된 군 포교의 사명 가운데 그것이 아무리 작고 경미한 것이라 해도 최선을 다해 정진하게 하며 그 마음이 바로 호국불교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오늘에 이어 나갈 수 있는 길임을 알아차리게 하며 그 정성이 모이고 쌓여 마침내 군 포교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길임을 몸으로 체득하게 해달라”고 서원했다.

조계종 연예인전법단, 화계사 거점 전법 활동 시작

11월 28일, 화계사서 현판식
가수 진미령 등 30여 명 동참
우봉 스님 “공덕 짓는 근본도량”


조계종 연예인전법단이 11월 28일 서울 화계사에서 연예인전법단 현판식을 갖고 불교중흥을 위한 전법 활동을 시작했다.

불자 연예인들이 서울 화계사를 거점으로 불교중흥을 위한 전법 활동을 시작했다.

조계종 연예인전법단(단장 우봉)은 11월 28일 서울 화계사에서 연예인전법단 현판식을 갖고 거점 활동지의 탄생을 알렸다.

현판식에는 화계사 회주 성광 스님, 주지이자 단장 우봉 스님, 포교원 포교부장 남전 스님, 포교국장 선보 스님 등 스님들과 연예인전법단 대표 배우 임혁 씨, 가수분과위원장 가수 김국환 씨, 가수 진미령 씨, 국악소녀 이소원 양, 국민가수 임지민 양 등 연예인 30여 명이 동참했다.

전법단장 우봉 스님은 “오늘 현판식을 기점으로 화계사는 여러분들의 집이 될 것이고, 활동 거점이 될 것”이라며 “여러분들이 지치고 힘들 때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요람이 될 수 있도록 가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계사가 여러분들이 업장을 소멸하고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근본도량이 될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화계사 회주 성광 스님은 “오늘 현판식을 가진 이 순간부터, 연예인전법단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밝게 해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모두 정화하는 감로법이 전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교부장 남전 스님은 연예인전법단의 본격적인 포교 첫발을 응원했다. 남전 스님은 “포교국장 소임을 보던 2010년 당시 여러 전법단이 만들어지면서 연예계도 전법단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졌었다”면서 “오늘 연예인전법단 현판식을 계기로 전법활동이 적극적으로 펼쳐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예인전법단은 가수와 연기, 연극, 방송 등 6개 분과 200여 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현판식을 시작으로 송년법회와 봉사 등 다양한 활동으로 포교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연예인 대표 임혁 배우는 “오늘부터 연예인들의 홍법 포교 전초기지는 화계사”라면서 “스님들 잘 모시고 포교원과 협의해 백각이불여일행(百覺而不如一行)의 마음으로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연예인전법단원들은 현판식에 이어 화계사 템플스테이에 동참했다. 이들은 타종체험과 저녁예불, 108배와 자애명상, 차담 등을 경험하며 신심을 견고히 했다.

임은호 기자

성철 스님 열반 30주기…동안거 ‘백일법문’

불교인재원, 12월 7일~ 2023년 2월 22일까지

부처님이 깨친 중도를 근본으로 바른 신행운동을 펼쳐 온 불교인재원(이사장 엄상호)이 성철 스님 열반 39주기를 기념하는 ‘백일법문’을 개강한다. 백련불교문화재단(이사장 원택)과 함께하는 이번 강좌는 동안거를 맞아 12월 7일부터 2024년 2월 22일까지 진행된다.

‘백일법문’은 조계종 출범 후 최초로 해인총림이 설립되면서 초대 방장으로 추대된 성철 스님이 1967년 동안거에 100일 가까이 ‘불교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법문한 것을 제자 원택 스님이 책으로 엮어낸 것이다.

성철 스님은 ‘백일법문’에서 방대한 팔만대장경으로 공부가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초기 경전인 니까야 아함부 경전에서부터 대승 교학인 중관, 유식과 중국불교인 천태, 화엄, 그리고 선종 사상까지를 두루 살피면서 불교의 근본이 중도라는 것을 정립하고 그 중도를 가장 빠르게 깨치는 길이 화두 참선이란 것을 체계적으로 설법했다.

현대 선지식 고우 스님은 생전에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은 불교입문서로서 세계 최고”라면서 반복해서 읽어 부처님 깨달음이 ‘중도연기’라는 것을 확실히 이해해 정견을 세우면 팔만대장경을 회통할 수 있고 화두 참선도 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좌계의 원로로 지리산 상무주암에서 정진 중인 현기 스님도 “백일법문을 보면서 전율을 느꼈다. 일찍 이 법문을 직접 듣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고 탄식하며 후학들에게 ‘백일법문’ 읽기를 간곡히 권하고 있다.

이에 불교인재원 생활참선에서는 성철 스님 열반 30주기가 되는 이번 동안거를 맞아, 12월 7일 저녁 7시부터 서울 조계사 앞 열린선원(두산위브 836호)에서 성철 스님을 직접 시봉하며 ‘백일법문’을 책으로 만든 원택 스님을 청해 개강 특강을 시작으로 공부를 시작한다. 동안거 12주 동안 진행되는 ‘백일법문’ 공부는 서재영 성철사상연구원장(성균관대 초빙교수)과 박희승 (사)한국명상지도자협회 사무총장이 안내한다.

아울러 실시간 ZOOM앱과 네이버 카페(cafe.naver.com/jungdo2018)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공부할 수 있다. 010-4050-5969

임은호 기자

여성개발원, 11차 여성불자 108인 선정

11월 24일 한국프레스센터서 창립 23주년 기념식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여성불자들의 네트워크인 불교여성개발원 여성불자108인회가 11차를 맞았다.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이기향)은 11월 24일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창립 23주년 기념식과 제11차 여성불자 108인 선정식을 개최했다.〈사진〉



이기향 불교여성개발원장은 기념식에서 “지난 23년간 축적해온 개발원의 역량이 발휘되고 여성불자 108인을 비롯한 회원들의 우수성과 주인의식, 붓다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결집될 때 우리는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단체가 될 것”이라며 “붓다가 밝히신 지혜의 빛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가는 주인공이 되어주시길 발원한다”고 말했다.

향운사 주지 지상 스님은 ‘바라밀’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부처님 가르침을 사회에 실현하는 일은 우리의 사명이고 책임”이라며 “여성불자 여러분께서 노력하신 소중한 원력과 공덕이 모아져 오늘의 소중한 인연의 결실을 맺게 됐다”고 격려사를 전했다.

제11차 여성불자108인에는 강경자 IF페이스디자인 원장과 김민지 마인드디자인 대표를 비롯해 경제 · 교계단체 · 교육연구 · 문화예술 · 법률 분야 등에서 활동하는 108인이 선정됐다. 제11차 여성불자108인회는 △수행정진 △생명존중 △평등세상 △전법포교에 매진할 것을 선서했다.

남동현 여성불자108인 회장은 환영사에서 “앞으로 108인회는 부처님과 만나고 신행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 친목을 확대하는 자리로, 각자의 경험과 재능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개발원은 기념식에서 지혜장학회 제8회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 6명에게 지혜장학금 각 100만원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윤호섭 기자

서울 도선사, 도봉구에 ‘자비의 쌀 5톤’

11월 28일 전달…어린이집연합회에도 1톤

삼각산 도선사가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비의 쌀을 전달하는 보살행을 실천했다.

서울 도선사(주지 태원)는 11월 28일 서울 도봉구청에서 ‘도봉구민을 위한 자비나눔의 쌀 전달식’을 봉행했다.〈사진〉 지역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한 전달식에는 도선사 총무국장 원각 스님과 김학규 신도회장을 비롯한 각 신행단체장들이 참석했다. 도선사는 행사에서 정환중 부구청장에게 자비나눔 쌀 5톤(10kg 500포)을 전달했다. 도봉구청은 전달받은 쌀을 도봉동과 방학동 등 지역 주민센터를 통해 저소득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나눠줄 예정이다. 도선사는 같은 날 도봉구 국 · 공립어린이집연합회 소속 69곳의 어린이집 원아를 위한 자비의 쌀 1톤(10kg 100포)을 지정 기탁해 훈훈함을 더했다.



정환중 부구청장은 “도봉구는 동마다 어려운 가구들이 200세대 이상 될 정도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다”면서 “도선사 사부대중의 정성과 따뜻한 마음을 담아 자비나눔의 쌀을 골고루 전달하겠다. 주지스님과 도선사 신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윤호섭 기자

로터스미용센터, 제12기 수료…12명 졸업

11월 20일, 7개월 교육과정 이수
공신력 높은 수료증 취업에 유리



국제개발협력NGO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 산하 캄보디아 로터스희망미용센터가 11월 20일 제12기 수료식을 개최하고 졸업생 12명을 배출했다.〈사진〉

이날 졸업한 12명(여학생 11명, 남학생 1명)은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총 7개월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이번 교육과정에는 총 15명이 입학했으나, 성적과 출석률 등을 반영해 최종 수료생 12명이 결정됐다.

수료생들은 로터스희망미용센터의 교육 커리큘럼을 통해 헤어, 메이크업, 네일아트 등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공부했다. 교육 기간에는 교육 혜택을 캄보디아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취지로 소외계층을 위한 정기 미용봉사도 펼쳤다. 매주 토요일 고아원 2곳, 초등학교 3곳을 방문해 445명에게 미용봉사를 진행했다.

졸업생들은 향후 캄보디아 시엠립 등 각 지역 뷰티 관련 산업 현장에서 활동하게 된다. 특히 캄보디아 시엠립 주정부 노동청의 인증을 받아 발급한 공신력 높은 수료증은 취업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한다.

로터스월드는 “‘직업교육을 통한 저소득 청소년의 자립’이라는 로터스희망미용센터의 설립 취지에 맞춰 12명의 수료생 역시 조만간 로터스희망미용센터 취업 연계프로그램을 통해 외부 미용실과 네일숍 등에 무난하게 취업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수료생들은 성공적인 취업으로 일반 청년들보다 높은 소득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내영 기자

한국전통사찰순례, 2023년도 3차 회향

부부 · 도반 등 60명 회향 증서
33개 사찰 방문 후 인장 받아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명, 문화사업단)이 11월 27일 ‘2023년도 3차 한국전통사찰순례 회향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번 3차 순례에서는 5쌍의 부부팀과 불자회 도반 등 총 60명이 회향 증서를 받았다.

회향 증서는 문화사업단이 발간한 전통사찰순례 책자에 기재된 사찰 33곳을 방문하고, 해당 사찰 인장을 모두 찍으면 받을 수 있다. 한국전통사찰순례 책자에 수록된 33곳 사찰은 고운사, 구룡사, 금산사, 기림사, 낙산사, 내소사, 대흥사, 도선사, 동화사, 마곡사, 백양사, 범어사, 법주사, 법흥사, 보리암, 보문사, 봉은사, 불국사, 선운사, 송광사, 수덕사, 신륵사, 신흥사, 쌍계사, 용주사, 월정사, 은해사, 조계사, 직지사, 통도사, 해인사, 향일암, 화엄사이다.

이날 회향 증서를 받은 박종실(교사불자회 경인지역 사무국장) 씨는 “33관음 성지를 추천 받아 순례를 시작했고, 오늘 동료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회향하게 됐다”며 “향후 좋은 기운을 이어 탑 순례도 계획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2008년 한일 관광교류의 해를 맞아 시작된 한국전통사찰순례에서는 올해 155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307명이 회향 증서를 받았다. 02)2031-2000

김내영 기자

불교진흥원, 군종교구에 7000만원 전달

“청년 불교 활성화 도움되길”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은 “11월 28일 올해 ‘젊은 불교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조계종 군종교구에 군 포교 진흥 지원금 7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사진〉

이한구 이사장은 “군승 등 군불교 관계자들의 능동적인 지원과 노력으로 장병들이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 진취적인 사고로 안정적인 군 생활을 이어가도록 함으로써 군 장병의 사기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면서 “청년 장병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현장에서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장병들에게 도움이 되는 국제적이고 현대적인 불교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청년 불교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진흥원은 설립 이후 군불교 진흥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조계종 군종교구를 통해 매년 군포교 진흥기금으로 1억 원 내외를 전달하고 있다.

신중일 기자

겨울맞이 김장에 더한 자비의 온기

부산불교교육대학 · 화엄승가회
살기좋은 부산만들기 일환으로
취약계층 김장 1250포기 전달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부산불교교육대학과 화엄승가회가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자비의 김장 166박스를 남구노인복지관과 남구보훈회관에 전달했다.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범혜)과 화엄승가회(회장 자인)가 대규모로 김장을 나누며 자비행을 실천했다.

부산불교교육대학과 화엄승가회는 11월 24일 남구노인복지관과 남구보훈회관에서 자비의 김장김치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조계종 삼보문화회가 주최하고 부산불교교육대학과 화엄승가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부산광역시 후원으로 마련됐다. 부산불교교육대학과 화엄승가회는 매년 역점 사업으로 '살기 좋은 부산 만들기 캠페인'과 '부산광역시의 따뜻한 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김장 나눔은 위 사업 일환이다.

이번 김장 나눔에선 배추 총 1250포기(10kg 166박스, 10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김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16세대에 각 1박스, 남구보훈단체 10곳에 각 5박스를 전달한다.

전달식에는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 범혜 스님과 화엄승가회장 자인 스님 등 회원 스님들을 비롯해 박수영 남구갑 국회의원, 오은택 남구청장, 박시우 남구노인복지관장이 참여했다. 또 이강현 남구보훈단체인 특수임무수행자회장, 유영원 광복회장, 강동철 상이군경회장, 정기영 진몰군경유족회장, 정향자 전몰군경미망인회장, 백성태 무공수훈자회장, 문길용 고엽제전우회장, 구수회 6 · 25참전유공자회장 등 관계 단체장들과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생, 화엄승가회 소속 신도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학장 범혜 스님은 "부산불교교육대학은 살기 좋은 부산 만들기를 위해 자살예방과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며 "오랜 전통 속에 불교 교육과 포교를 위해 노력해온 부산불교교육대학은 사회적 역할을 고심하고 다함께 잘사는 사회를 위해 목소리를 더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엄승가회장 자인 스님은 "불철주야 어르신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김장은 모두의 정성을 담아 드리는 선물이다. 동참해준 모든 분들의 공덕이 추운 겨울 어르신들의 온기가 되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영 국회의원은 "오랜 역사 동안 불교는 호국불교이며 어려운 시기 든든한 민중의 기둥으로 자리해왔다"며 "오늘 부산불교대학과 화엄승가회에서 마련한 김장김치가 어르신들의 식탁에 따뜻함을 전하면 좋겠다"고 기원했다.

조계종 부산연합회, 취약계층 난방 지원

복지관에 난방비 1000만원



조계종부산연합회는 11월 24일 부산 영도구노인복지관 분관에서 '2023년 무비 스님과 함께하는 연탄불공회 난방비 지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사진〉 전달식에는 연합회장 원허 스님, 사무총장 석산 스님을 비롯해 이희배 부산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 등 관계자가 동참했으며, 기부한 난방비 1000만원은 저소득 노인 가구 40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달식 후 조계종부산연합회 소속 스님들은 영도구 내 지원세대 가정을 방문해 난방유를 직접 넣고 어르신을 만나 건강을 기원했다.

회장 원허 스님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게 돕고자 한다"며 "추운 겨울 어르신들의 집을 방문하면 우리의 일이 얼마나 뜻깊은지 알 수 있다. 따뜻하게 추위를 이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계종부산연합회 연탄불공회는 前 조계종 교육원장 무비 스님의 발원으로 2017년 시작됐다. 시작 당시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에 연탄을 지원했으며 현재는 유류비 지원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청미단 운암장학회, 고교생 장학금 전달

해동고에 총 1000만원 지원



재단법인 청미단 운암장학회(이사장 운암)가 11월 24일 부산 해동고등학교 법당에서 학생과 우수동아리에 장학금을 지원했다.〈사진〉 운암장학회는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청량사를 중심으로 인재불사를 위해 창립돼 부산 종립학교에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장학금은 학생 10명에게 각 50만원, 우수 동아리 3곳에 각 100만원, 우수 지도교사 2명에게 각 100만원 총 1000만원이 전달됐다.

운암장학회 이사 효산 스님은 "장학금은 스님들의 마음이 담긴 뜻 깊은 인재불사 원력"이라며 "장학금을 받아 명예와 부를 뛰어넘는 불자의 마음을 키우고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원규 해동고 교감은 "학생과 학교의 발전을 위해 후원해주시는 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한국불교선교종, 혜만 대종사 종정 추대

11월 28일 코모도 호텔서
제7대 종정 추대법회 봉행
"불법은 세간에 있다" 법어


사단법인 한국불교선교종 제7대 종정 추대법회가 11월 28일 부산 코모도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봉행됐다.

사단법인 한국불교선교종(이하 선교종) 제7대 종정으로 경보 혜만 대종사가 추대됐다.

선교종(총무원장 대풍)은 11월 28일 부산 코모도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7대 종정 추대법회를 봉행했다. 선교종 중앙포교원장인 도청 스님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된 법회는 △삼귀의 △반야심경 △봉행사 △행장소개 △축사 △격려사 △헌사 △등단봉청 △불자봉정 △법장 봉정 △법어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 △결의문 낭독 △발원문 △축가 순으로 진행됐다.

총무원장 대풍 도영 스님은 "경보 혜만 대종사께서는 평소 참선과 교학을 놓지 않고 철저한 수행에 매진해 이(理)와 사(事)를 겸비한 스님으로 운수납자들의 지남이 되고 있다"며 "이처럼 중생교화에 큰 발원을 세우시고 덕풍을 일으키시는 대종사님을 종정으로 추대하여 모시고 전 종도들은 종정예하를 중심으로 결집해 화합하고자 한다"고 봉행사를 전했다.

제7대 종정에 취임한 경보 혜만 대종사는 "불법이 세간에 있으니 세간에서 깨달음을 떠나지 말라. 세간을 떠나서 깨달음을 구하면 마치 오리에서 뿔을 구함과 같도다"며 "밝고 티 없는 청정한 법신은 연꽃이 티끌에 물들지 않음과 같도다. 사대는 본래 주인이 없고 오온은 텅 비었으니 문득 옛 거울을 밝히니 해와 달이 빛을 잃는구나"라고 추대 수락 법어를 내렸다.

화엄승가회장 자인 스님과 정용환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축사에 이어 사상구 경승실장 성문 스님과 성주사 조실 흥교 대종사의 격려사가 진행됐다.

흥교 대종사는 "선교종은 선종과 교종 양종을 한국 최초로 병합하여 수행가풍과 승풍을 진작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종단"이라며 "종정으로 추대되신 경보 혜만 큰스님을 중심으로 결집해 종정예하의 원력에 따라 화합과 전법 교화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격려사를 했다.

이어 승정원 부원장 도신 스님, 중앙종의회 의장 도정 스님, 중앙사정원장 도경 스님, 문화예술원장 월수 스님의 헌사와 중앙교육원장 덕운 스님이 결의문 낭독, 교무부장 덕광 스님의 발원문이 진행됐다.

경보 혜만 대종사는 1965년 3월 경북 문경 대승사로 출가해 1966년 3월 인봉 화상을 은사로 사미계를 수지했다. 이후 1971년 5월까지 5년간 선 · 교 · 율 삼장을 수학 후 1972년 충북 중원군소재 세계사, 1977년 양산 금륜사, 1980년 영도 다보사 주지에 취임했다. 1996년 동호 스님으로부터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1983년 구덕산 수도사 주지에 취임한 뒤 수도사에 선원을 열고 35안거를 성만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흥교 대종사, 화엄승가회장 자인 스님, 대한불교승가공동회장 도현 스님, 태고종 경남종무원장 성각 스님, 대한불교옴조계종 종정 정오 스님, 대선불교조계종 종정 혜승 스님,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 범혜 스님, 동국대학교 前 총동문회장 고담 스님, 사상구 경승실장 성문 스님, 해운대불교연합회 사무총장 법안 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함께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부산영산재보존회, 2023년 공개행사 개최

11월 24일, 의례 의미도 설명



사단법인 부산영산재보존회(이사장 경호)가 11월 24일 부산민속예술관 2층 송유당에서 '2023년 부산영산재 공개행사'를 개최했다.〈사진〉 부산영산재는 유래 구성 및 진행절차가 독창적이고 소박하며 작법무(作法舞) 춤의 구성이 특이하다고 알려져 있다. 나비춤은 느리고 장엄하면서도 지역적 특징을 갖고 범패는 가락이 다양하며 독창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행사는 먼저 식전공연으로 시작해 삼귀의, 반야심경, 경과보고, 내빈소개, 봉행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삼신이운과 대령, 관욕, 영산작법 등 영산재를 시연하는 순서로 이어졌다. 영산재를 시연하는 동안 스님들은 각 순서가 담긴 의미를 설명해 행사에 동참한 불자 및 시민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사장 경호 스님은 "부산영산재는 금정산 범어사와 영축산 통도사를 중심으로 조직된 부산불교어산회를 이은 부산영산재보존회에서 계승하고 있는 불교의식"이라며 "영산재는 석가여래가 영축산에서 제자들에게 법화경을 설법한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례"라고 설명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김오곤 한의사가
강력추천


그린에너지 전속모델
한의사 김오곤

★ 일반황토보다 187배가 넘는 고농축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 게르마늄 황토알파토(사계절용) ★

온열요법 건강매트 · 방석

36.5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력을 높여주고 면역력이 올라가면 자연치유력을 강화시킵니다.

2만개의 게르마늄황토알파토 볼이 촘촘히 박혀있어

체온을 올리고 세포를 활성화하며 독소를 배출함으로써 체온이 1도 상승하면 림프구 계통인 세포, NK세포가 활성화되고 면역력은 5~10배 강해져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을 없애고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과 세포조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노화방지, 신진대사 촉진,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예방에도 큰 효과를 보입니다.

매트 99만원(SS사이즈 : 1100×2000)



게르마늄황토알파토
건강매트 · 방석의 효능

- 혈액순환개선, 피로회복, 면역력강화
- 근육통완화, 세포활성화, 퇴행성협착증 개선
- 교통사고후유증, 디스크치료에 도움
- 혈액순환촉진, 신진대사 원활
- 통증완화(신경통, 관절통, 견통예방)
- 숙면(불면증, 피로회복, 좌골신경통) 효과
- 생체의혈류개선(고혈압, 저혈압)
- 암예방(온열에 의한 악성종양 사멸) 효과


방석 35만원

황토알파토 건강베개

- 수면의 질이 높아지면 삶의 질도 높아집니다.
- 경추척추통증개선
- 코골이 개선
- 목디스크 효과
- 지압효과
- 거북목 통증완화

베개를 선택할 때 보통 6~9cm 높이의 베개가 가장 적당합니다. 옆으로 누웠을 때 목뼈가 위나 아래로 휘지 않고 등뼈와 일직선으로 유지되어야만 목에 무리가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인 남자의 경우 바로 누운 자세에서 7.9cm, 옆으로 누웠을 때는 9.5cm의 높이가 적당합니다. 여자는 바로 누웠을 때 6.3cm, 옆으로 누웠을 때 7.3cm가 적당합니다. 너무 낮은 베개를 베면 몸이 불편하고 일자목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베개를 밸 때는 머리를 받치기보다는 목을 받친다는 느낌으로 베는 것이 좋습니다. 목의 근육이 이완돼 편안한 느낌을 주며 목뼈가 정상적인 C자 곡선을 유지할 수 있어야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베개 20만원

그 린 에 너 지
GREEN ENERGY COMPANY

제품문의 031-542-2735
010-3576-6802

계 좌 : 농협 1186-02-058581
예금주 : 그린에너지(이도연)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319-16 (무봉로 15)

전제품 국내산

“비건버거 맛있어요”…고교생들 ‘입맛에 딱’

화엄사, 정광고서 비건버거 시식
비건버거 800개 학생들에게 제공
덕문 스님 “불교 생명사상 알려”
시식 학생들 “환경에 좋다” 호평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화엄사가 11월 29일 불교종립 정광고등학교에서 비건버거 시식행사를 개최했다.

화엄사가 제작한 비건버거가 현역 고등학생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사찰에서 제작하는 비건버거 출시로 큰 화제의 중심이 된 화엄사(주지 덕문)가 11월 29일 불교종립 정광고등학교(교장 이동배)에서 시식행사를 개최했다.

화엄사 비건버거는 채식을 기반으로 만든 버거로, 화엄사는 별도의 상표와 식음료 등록을 마치고 일반인 판매에 앞서 시식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덕문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늘 이사장으로 햄버거를 사줬는데, 이번에 화엄사 이름으로 비건버거를 출시해 공부에 지친 아이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전달하게 됐다”며 “우리 식재료와 불교의 생명존중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비건음식을 전해주고 싶었고, 그중에서 학생들이 좋아하는 햄버거를 비건 음식으로 전달하고 싶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앞서 덕문 스님은 “현재 화엄사 입구에 1호점을 개설할 예정이다. 향후 선화여고 등 불교종립학교에서 시식행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일정을 소개하며 “수익금은 대학생 전법기금과 지역사회에 환원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광고등학교에서는 800개의 비건버거와 콜라(600만원 상당)가 시식음식으로 제공됐다.

첫 시식을 한 정광고등학교 이세영(2학년) 학생은 “사실 비건버거라 큰 기대를 안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 깜짝 놀랐다”며 “비건 음식은 가축들의 온실가스를 절감해 환경에도 좋고, 학생들이 환경보호에 참여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비건버거는 고기의 맛이 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먹어 보니 맛과 식감이 고기와 닮아있고, 시중에 파는 버거보다 훨씬 좋았다”고 밝혔다.

화엄사 비건버거는 콩단백질을 재료로 만든 비건 패티와 우리 쌀로 만든 쌀빵이 번으로 사용된다. 치즈와 소스도 순 식물성 재료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이 버거는 채식주의자뿐만 아니라 고급 수제 햄버거 매니아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맛을 구현해 내는 데 목표를 두고 개발됐다.

화엄사는 내년 3월 비건버거 1, 2호점을 오픈하고, 비건 피자, 음료와 아이스크림도 동시에 출시할 예정이다.

상진 스님, 전북특별교구 순시…격의 없는 소통 행보

11월 23일 전주서 환영법회 봉행
종도와 자유토론 진행, 의견 수렴
향산 스님, 전북교구와 대화 시사



태고종 전북특별교구종무원은 11월 23일 총무원장 상진 스님 방문 환영법회를 봉행했다.

태고종 전북특별교구종무원(원장 혜암, 모악사 주지)은 11월 23일 전주의 한 식당에서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전북특별교구 방문 환영법회를 봉행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전국 교구 종무원을 순회 방문하면서 태고종단의 정책을 설명하고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전북특별교구 방문 환영법회에는 전북특별교구종무원장 혜암 스님, 전북특별교구 원로위원장 향산 스님, 원로의원 일허 스님, 중앙종회의원 진공 스님을 비롯한 특별교구 소임자 스님들과 전법사들이 참석했다. 총무원에서는 행정부원장 능혜 스님과 총무원 소임자스님들이 배석했다.

전북특별교구 종무원장 혜암 스님은 상진 스님에게 축하난과 꽃다발을 전달했고, 상진 스님은 혜암 스님에게 팔만대장경 목판본을 선물했다.

전북특별교구종무원장 혜암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전북특별교구종무원은 작은 규모이나 가족적인 분위기로 활동하고 있다”며 “총무원장스님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적극 협조해 태고종이 더욱 발전하고 최고 전통의 종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교구 원로위원장 향산 스님은 “전라북도는 두 개의 교구가 양립된 상황에서 여러 갈등이 내재돼 있다. 하지만, 필경에는 ‘하나로 운집돼야 한다’는 전제로 대화합을 위한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며 “시대가 변해도 전통적으로 내려온 조사스님들의 기치와 수행력을 본받아 열심히 수행하고 화합 단결하는 것이 승가의 전통적 가르침”이라고 강조했다.

상진 스님은 “역대 원로스님들의 가르침과 종도들의 단합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태고종은 존재하기 어려웠다. 종단을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어른 스님들에게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며 “종도들의 화합과 단결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더욱더 힘을 내서 종도들의 발판이 되는 종단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진 스님과 종도스님들은 격의 없는 토론의 시간도 가졌다. 지방분권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상진 스님은 “지방 교구종무원에서 합의가 안 된 안건은 총무원에서도 거절하고 있다”며 “혹시 있을 수 있는 민원과 관련해 종도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태고종 종도로서 승적과 관련해 입종과 전종의 벽이 높다는 의견에 대해 상진 스님은 “종단의 입종과 관련해서는 지방 교구종무원장의 책임하에 입종을 허락하고 있다”며 “총무원에 전종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탈종스님들의 재입종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미륵신앙 신봉 견훤왕, 원찰은 금산사”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11월 24~25일 학술대회

‘후백제 불교와 금산사’ 주제로
금산사 처영문화기념관서 열려


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후백제 불교와 견훤, 김제 금산사에 대한 학술대회가 개최됐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정덕)은 11월 24일과 25일 이틀간 김제 금산사 처영문화기념관에서 ‘후백제의 불교와 김제 금산사’ 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에서는 송화섭 중앙대 교수(前 후백제학회장)가 ‘후백제 견훤대왕과 금산사’ 주제로 기조발제했다.

송화섭 교수는 〈삼국사기〉에 기술된 견훤왕의 금산사 유폐설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오히려 견훤이 아들 신검에게 왕위를 양위하자 신검이 아버지 견훤왕을 봉양하고자 금산사로 보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 근거로 금산사의 방등계단과 홍예문은 왕을 유폐할 목적에서 세운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송 교수는 “견훤왕은 미륵신앙의 신봉주의자였다. 익산의 금마산 백제 건국설은 백제의 역사와 사상을 잇겠다는 구상에서 나온 것이며 미륵사 개탑설은 백제 미륵사상을 정치이념으로 국가운영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또 “견훤왕의 미륵신앙은 금산사에서 발원한 진표율사의 미륵사상을 그대로 수용한 듯하다”며 “금산사는 견훤왕이 자주 왕래하던 원찰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최연식 동국대 교수는 “송화섭 교수의 금산사가 견훤의 원찰이었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며 “금산사는 견훤이 중창한 사실이 확인되는 유일한 사찰이고 아들 신검이 견훤왕을 금산사에 유폐한것도 부왕이 평소 자주 방문하던 사찰이었

학술대회에 앞서 열린 개회식에서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후백제가 남긴 교훈과 1400년의 유구한 세월을 이어온 금산사의 전통을 확인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며 “전북과 김제, 그리고 금산사를 중심으로 역사유적과 불교문화 전반을 다각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우리 역사와 지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4대 종교 함께 담근 김치 이웃에 전해지길”

태고종 전북종무원 ‘사랑의 김장나눔’ 동참

11월 27일, 전라북도청서
350세대에 각 6kg씩 전달


김장김치를 맛있게 드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태고종 전북종무원(원장 진성, 마이산 탑사 주지)과 (사)붓다봉사단이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가 주최한 ‘2023 국민대통합 사랑의 김장나눔 연합봉사활동’에 동참했다.

11월 27일 전라북도청 야외주차장 다목적광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태고종 전북교구외에 원불교 봉공회, 천주교 전주교구, 동현교회 등 종교단체와 북한이탈주민 봉사단, 국민연금공단, 전북문화관광재단, 건강관리협회, 전북신용보증재단 봉사자 100여 명이 참여해 절임배추 800포기 2230kg (절임배추 1600kg, 양념 630kg)의 김장김치를 담궜다.

이날 담은 김장김치는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지역 350세대에 각각 6kg씩 전달됐다.

태고종 전북교구에서는 원장 진성 스님을 비롯해 부원장 현진 스님, 사회국장 법정 스님, 현담 스님, 이재현 붓다봉사단 봉사자들이 동참했다.

고영호 (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참여하신 여러분들께서 정성스럽고 따뜻한 마음을 담아 담근 김장김치를 도내 취약계층에게 전달하겠다”며 “상생과 연대를 위한 나눔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은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와 태고종 전북종무원이 이웃종교 종단들과 함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김장나눔 봉사활동에 동참했다”며 “이제 다가올 겨울 추위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정성이 담긴 김장김치를 맛있게 드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임상규 전북행정부지사는 “전국의 김장재료를 하나로 모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김장김치를 담그는 대통합 매개를 마련하기 위한 봉사활동이다”며 “오늘 동참하신 봉사자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담긴 김장김치가 우리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백미 200포 전달

11월 28일 광주 서구청에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지원장 혜월)이 11월 28일 광주 서구청(청장 김이강)을 방문해 백미 10kg 200포(6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사진〉

전달식에는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최성휴 고문, 김용섭 신도회장, 황선자 여자회장, 정성택 신도회 총무, 김이강 서구청장 등이 참여했다.

김용섭 신도회장은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매년 신도들이 직접 기금을 마련해 준비했다. 꼭 필요한 분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기강 청장도 “매년 어려운 이웃들에게 신도들의 정성이 담긴 쌀을 전달해 주셔서 감사하다. 기쁜 마음으로 정성껏 전달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은 2010년부터 매년 2000kg씩 올해까지 13년째 자비의 쌀을 서구지역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에 전달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 소원정사, 20년 이어온 지역 자비행

11월 29일 사찰 앞마당서



광주 소원정사(주지 도계)가 11월 29일 경내 앞마당에서 ‘제20회 나눔 및 제14회 연꽃상 시상식’을 봉행하고 부설기관인 연꽃향기자비나눔운동본부를 통해 백미 10kg 1300포와 1500만원 상당의 가방, 의류를 광주 동구, 남구, 북구, 자비신행회에 전달했다.〈사진〉

이날 전달한 백미와 물품은 연꽃향기자비나눔본부 8개 도시에서 모연한 것으로, 각 지자체와 불교단체가 추천한 저소득가구에 전해질 예정이다.

도계 스님은 “후원자들의 간절한 마음이 모여 1300포와 물품이 모연됐다. 소원정사 신도들과 인연있는 불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소원정사는 지난 1년간 모범적으로 신행활동을 한 최유리, 김소정, 이동욱 불자에게 봉사상과 상금도 수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화엄사 남암, 아미타삼존불 봉안법회

11월 25일 극락보전 낙성도



제19교구본사 화엄사(주지 덕문)가 11월 25일 산내암자 남암에서 아미타삼존불 봉안과 극락보전 낙성식을 봉행했다.〈사진〉

남암은 화엄사의 8원 81암자 중 안지원 옛터를 복원하여, 최근 새 도량을 일신하면서 이날 중심 전각인 극락보전을 새로 건립하고 아미타삼존불을 점안했다.

낙성식에는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과 前 화엄사 주지 종삼 스님 비롯한 화엄사 본말사 주지스님과 신도 등이 참여했다.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종삼 스님께서 묵은 터전에 일찍이 도량을 새로 일구느라 고생하셨다”며 “화엄사 옛 암자 터에 남암을 건립해 화엄사의 숙원을 풀어주었고, 여법한 암자가 생겨 수행과 전법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축하했다. 이어 스님은 “남암이 수행도량으로서 법등과 향화가 끊이지 않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축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 관음사 제4회 지구생명살림 공양대제



창건 108주년을 맞은 광주 관음사(주지 소운)가 11월 26일 ‘2023 제4회 지구생명살림 관음사 삼천불공양대재’를 봉행했다.〈사진〉 행사에서는 90년대에 봉안된 관음사 삼천원불을 새로 개금봉안하면서 ‘1인 1부처님 인연맺기’를 통해 훼손된 삼천분의 소원불을 다시 소생시키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

주지 소운 스님은 “관음사는 충장로에서 시작해 충장로와 함께 100년의 세월을 함께하며, 번영과 힘겨운 시절도 보냈다. 앞으로 불자들의 신행공간이기도 하지만 우리지역 충장로에서 지역민과 함께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관음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장을 대신해 김병철 충장동장에게 자비나눔공양금 100만원과 청소년활동대상 학생 4명에게 장학금 각 50만원씩 총 200만원을 전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울산 덕원사 창건 25주년 개산대재



울산 덕원사(주지 덕원)가 창건 제22주년 개산대재를 봉행했다.〈사진〉

11월 19일 덕원사 신도회, 지장회, 산악회, 추모관의 주관으로 봉행된 덕원사 창건 25주년 개산대재는 강한설 신도회장의 사회로 명종5타, 삼귀의례, 반야심경 봉독, 내빈소개, 연혁보고, 감사패 증정, 봉행사, 봉축사, 축사, 사홍서원의 순으로 진행됐다.

주지 덕원 스님은 “덕원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울산 불교의 중심도량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1998년 개원한 울산 덕원사는 2007년 설법전, 2010년 대웅전과 나한전을 중창했으며 2022년에는 덕원사 추모관을 개관해 운영하고 있다. 2022년에는 석가설법도가 울산광역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印 불교단체 "부다가야를 불교도에게"

부다가야 사원 관리 불균형 해소 촉구
現 힌두교 성직자 관리 대한 항의 나서
"성지 대표에 힌도교인 대표성 부적절"
사원 앞 거리서 평화집회…펀딩 모금도

박영빈 객원기자



부다가야에서 평화집회를 가진 시킴 불교도들. 사진출처=인디아투데이

부처님의 성도성지인 부다가야. 부다가야의 보리수와 대탑이 있는 마하보디 사원은 '부다가야 사원 관리위원회(BTMC)'의 운영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불균형한 위원회의 구성으로 불교신자들의 꾸준한 이의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11월 26일, 인도의 '인디아 투데이'는 전인도불교협회의 시킴 지부가 부다가야에서 BTMC의 불균형 해소를 촉구하고, 부다가야를 불교도들에게 돌려달라는 평화집회를 가졌다고 보도했다.

BTMC는 부다가야의 마하보디 사원을 관리하는 위원회로 1949년 제정된 법률에 의해 9인의 위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이 법률에 따르면 위원회의 의장은 지방 치안판사가 되어야 하며 힌두교도여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9인의 위원 중 불교계에 배석된 자리는 단 4석이다. 이 법률은 제정 당시부터 불교계로부터 불교의 성지를 대표하는 위원회로는 대표성이 부적절하다는 항의를 받아왔다.

실제 불교도의 관리가 있기 전까지 힌두사원으로 운영되었던 마하보디 사원은 현재도 대탑의 본존불 정면에 시바신의 상징인 링가가 봉안됐던 좌대가 남아있다. 또한 사원 한쪽에는 시바신을 모시는 사당이 운영되고 있으며, 관세음보살의 화신인 타라보살을 봉안한 법당은 힌두교 성직자가 관리하고 있다.

전인도불교협회의 시킴 지부의 지부장 옹디 핀초 부티아는 "부처님의 성도성지를 관리하는 BTMC의 구성은 오랫동안 지나친 불균형이 이어져왔다. 마하보디 사원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에서 공평, 공정한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것은 큰 불의다"라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부티아 지부장은 집회에서 "BTMC의 부적합한 대표성을 인도 정부는 인지해야한다. 이 집회는 그 부당함을 해결하기 위한 인도내 불교 공동체의 목소리가 모인 것"이라고 연설했다. 또한 시킴에서 부다가야까지 이동하는데 사용된 경비와 집회에 사용된 모든 경비는 크라우드 펀딩으로 모금했음을 밝히며 "이 펀딩의 성공은 우리의 목소리를 지지하고 동의하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26일 오전, 마하보디사원 앞의 거리에서 진행된 행진과 집회에는 시킴지부의 각 사찰과 불교단체를 대표하는 40명의 대표단과 다른 불자들, 부다가야 현지의 불교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불교기와 아쇼카 대왕의 초상화 등을 들고 마하보디 사원까지 행진했으며, 집회에 모인 이들은 BTMC의 의석에 더 많은 불교도의 자리를 추가하거나 균형을 맞추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살아있는 나무에 조성된 11면 관음상

수령 450년된 은행나무 안에
1828년 조성…마을 안녕 기원


살아있는 은행나무 안에 조성된 11면 관음상. 사진출처=아사히신문

수령 450년의 살아있는 은행나무에 190년 전의 스님이 조성한 관음상이 화제다. 지난 11월 26일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후쿠이(福井)현 타이오지(諦應寺) 경내에 있는 '은행관음상'에 대해 보도했다.

일본각지에는 살아있는 나무에 불상을 조성하는 신앙이 있다. 흔히 영험담이 전하는 나무나, 민간신앙과 결합된 형태로 입목불(立木佛), 혹은 생목불(生木佛)이라고 불린다. 후쿠이현 와카사 역사박물관의 카와무라 켄지 학예원은 "자연목 그대로에 불상을 조성한 예시는 다양한 사료에서 볼 수 있지만, 나무의 성장에 따라 불상이 훼손되거나 반대로 불상을 조각한 부분이 부패되면서 나무가 고사하는 경우가 많다. 타이오지처럼 나무가 그대로 살아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전했다.

타이오지 산문 좌측에 서있는 은행관음상은 높이 약 30m, 둘레 4.4m, 수령 약 450년의 은행나무 줄기에 조성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여성적인 모습으로 조성되는 관음상에 비해 은행관음상은 단단하고 강한 눈매를 가진 남성적인 모습으로 조성된 것도 특징이다. 마을의 향토지에 의하면 이 불상은 약 190년 전인 1828년의 작이라고 한다. 조성한 불모는 사찰과 마을의 구전에 따르면 당시 타이오지의 주지였던 케이류(惠隆) 스님으로 마을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며 직접 한 자루의 칼만으로 조성했다고 한다.

타이오지의 주지 타카다 토쿠오 스님은 "불상이 조성된 나무는 절을 방문한 사람이 반드시 지나가고, 또 마을이 내려다보이는 곳에 서 있다. 옛 스님들의 기원이 강하게 느껴지는 불상인 만큼 앞으로도 건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현재도 잎과 열매를 많이 내는 나무이지만 고령인 까닭에 사찰과 신도들이 오랜 세월에 거쳐 나무에 대한 방제작업과 불상의 수리를 거쳐 왔다. 타이오지 측은 올해 11월에 수목의(樹木醫)인 이케가미 나루시 씨에게 의뢰하여 수복작업을 진행했다. 관음상의 열화된 표면을 청소하고, 목재용 오일의 도포, 균열이나 공동이 생긴 부분엔 발포 우레탄 수지를 사용해 구멍을 막고 더 이상의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 이케가미 씨는 "현재까지 나무 자체의 생명력은 매우 강하며, 크게 문제 될 부분은 없다"고 진단했다.

타이오지 측은 최근 SNS등을 통해 불상이 알려지면서 타지역에서도 불상을 친견하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전했다. 나고야에서 불상을 십수 년 만에 다시 친견하러 왔다는 한 노부부는 "자비로우면서도 굳센 상호를 보면서 보살님께서 오랫동안 사람들을 돌봐주셨다는 생명력이 느껴진다"며 두 손을 모았다. 박영빈 객원기자

美, 티베트 불교 사원 확장 개원

1999년 개원…티베트 불교 포교 힘써


확장 개원한 가댄 삼둡링 사원 전경. 사진출처=가댄 삼둡링 사원

미 오하이오주 콜레인 타운쉽에 티베트 불교 사원 '가댄 삼둡링'이 확장 개원했다. 개원식에는 제3대 캡제 티쟝 촉툴 린포체가 참석해 축원했다. 지난 11월 21일 미국 오하이오 지역 방송사 'WVXU'는 티베트 불교사원의 확장 개원 소식을 전했다.

가댄 삼둡링 사원 확장 개원식은 22일 오전 10시 대중 법회로 봉행했다. 캡제 티쟝 촉툴 린포체의 축원과 티베트, 스리랑카, 태국 불교 전통 염불, 몽골 흐미(몽골 전통 배음 창법) 가수의 법음 봉송이 있었다. 개원식이 끝나고 티베트 전통 음식으로 점심 공양을 제공했다.

가댄 삼둡링 사원의 잠양 라마는 "1999년 개원한 가댄 삼둡링 사원은 불교 연구 및 수업, 명사 수행 등 티베트 불교문화를 위한 공동체 센터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나날이 불교에 귀의하는 불자가 증가해 티베트 불교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확장하기로 결정했다. 불자들의 도움을 받아 전법활동 공간을 조성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새로운 사원을 히말라야, 티베트 산 등에서 볼 수 있는 전통적인 티베트 불교 사원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만약 네팔, 인도 또는 티베트를 여행할 수 없거나 티베트 불교를 체험해보고 싶은 분들은 우리 사원에 찾아오면 된다. 생생한 현지 감성 그대로 조성해 해외여행 대리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가댄 삼둡링 사원은 현대적 가치인 친환경과 지속 가능한 재료를 활용한 티베트 전통 건축 디자인으로 지었다. 법당 외에도 상주하는 승려들과 방문자를 위한 요사채 모두 같은 방식으로 건설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泰, 제7회 불교-기독교 콜로키움 개최

7가지 실천 발표 및 연대 강조


태국 승가 최고 평의회의 프라 브라마푼딧 스님과 교황청 종교간대화부 장관 미겔 양헬 아유소 기소 추기경. 사진출처=카톨릭리뷰

지난 11월 21일 불교전문매체 '부디스트도어 글로벌'은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7회 불교-기독교 콜로키움 개최 소식을 전했다. 마하출라롱컨라자위달라야 불교 대학교, 교황청 종교간대화부, 태국 가톨릭 주교회의가 개최한 콜로키움은 '지구와 인류의 아픔을 치유하는 자비와 아가페'를 주제로 논의했다. 이번 콜로키움에는 아시아 12개국의 불교, 기독교 신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불교와 기독교 대표는 공동 성명을 통해 역경에 직면한 세상에 희망과 자비를 심어주기 위한 종교간 협력의 중요성을 말했다. 그리고 각 지역과 종교적 가르침에 뿌리를 둔 7가지 실천을 발표하면서 공동 행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콜로키움에서 합의한 7가지 실천은 기도, 교육, 대화, 협력, 고통 인정, 공감 함양, 혁신 촉진이다.

태국 승가 최고 평의회의 프라 브라마푼딧 스님은 "아무도 혼자서 구하지 못한다"고 강조하고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오직 함께 구할 수 있다. 우리는 포용적인 세상을 육성하기 위해 시민 사회, 다른 종교의 추종자들, 언론 관계자들, 정부들, 국제기구들, 학계와 과학계, 그리고 다른 모든 이해 당사자들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기후 위기, 빈곤, 분쟁으로 인한 상처로부터 인류와 지구를 치유하는데 자비와 아가페가 필요하다"며 상호 의존적인 인간의 특성을 중심으로 자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캄보디아 프놈펜의 사도 대리인 올리비에 슈미트하이슬러 주교는 "대화 없이 평화가 존재할 수 없다. 대화는 치유와 영감을 제공함으로써 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면서 "대화는 정의와 진실을 찾고 지구를 보호하는 다양한 종교 집단을 동원할 수 있다. 우리는 타인과 환경의 고통에 대해 공감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결정에 자비와 아가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사회적 격차로부터 자유롭고 조화와 상호 존중의 가치를 바탕으로 구축된 세계를 구상하며 공동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콜로키움 참석자들은 의사결정에서 공감의 중추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포괄성과 정의를 증진하기 위해 정치적인 영역과 경제적인 영역에서 자비의 연대를 촉구했다. 궁극적으로 인류와 지구가 직면한 다면적인 도전들을 해결하기 위한 공통의 근거로서 자비와 아가페를 강조하며 종교간 협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불교와 꽁트의 만남!! 꽁트를 통해 불교의 세계로 들어간다

불교 지식 꽁트

화제의 신간



무아

혼이 나간 듯
TV를 보고 있는 어린아이의 얼굴
나는 나의 존재를 잊었다.
망아(忘我)

백화점 명품 코너에서
화석이 되어 버린 아가씨
설마 죽은 것은 아니겠지?

무아(無我) — 나(我)란 없다는 뜻. 논리적 바탕은 오온무아(오온은 무아), 제법무아(모든 존재는 무아)이다. 또 무아는 아뜨만(ātman)을 부정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초기경전의 주석서들에서는 대부분'실체가 없다'는 뜻으로 정의하고 있다.

-본문에서-

글 윤창화 | 204쪽 | 9,500원

저자 윤창화 1972년 해인사 강원을 졸업(13회), 1999년 민족문화추진회 국역연수원(한국고전번역원)을 졸업했다. 1980년 불교 전문 출판사인 민족사를 만들어 42년째 불교책을 내고 있다. 논문으로 「한암의 자전적 구도기 일생패궐」, 「한암 선사의 서간문 고찰」, 「무자화두 십종병에 대한 고찰」 등이 있다 저서로는 《왕초보, 선 박사 되다》, 《근현대 한국불교 명저 58선》, 《선불교》, 《불교 사자성어》 등이 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불교 사자 성어

사자성어의 의미와 우리의 삶!
사자성어 60개를 두 달 만에 익힐 수 있다!



몽중설몽
-꿈속에서 꿈 이야기를 하다
회자정리
-만난 자는 반드시 헤어진다
무명장야
-어리석음의 기나긴 밤
팔풍부동
-희로애락에 일희일비하지 말라
자비무적
-자비 앞에는 원수가 없다
이고득락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을 얻다
실유불성
-모든 인간은 부처가 될 수 있다
즉심시불
-그대 마음이 바로 부처다

글 윤창화 | 224쪽 | 13,8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29~12/5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화엄경을 머금은 법성게의 보배구슬	김성철	오타쿠
2	보리도차제광론1(나란다불교학술원총서1)	쫑카파	도서출판나란다
3	절수행입문(불교수행입문2)	교육원불학연구소	조계종출판사
4	보리도차제광론2(나란다불교학술원총서2)	쫑카파	도서출판나란다
5	중론:산스끄리뜨게송의 문법해설을 겸한(개정본)	용수 지음/청목 주석	오타쿠
6	체계불학:신념체계로서의 불교학	김성철	오타쿠
7	언어진실을 전달하는가 왜곡하는가(밝은사람들총서18)	박찬욱 기획/한자경 편집	운주사
8	푸른수행 파란행복	종원	맑은소리맑은나라
9	불교하는 사람은:김성철 교수의 실천불교	김성철	오타쿠
10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 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책세상

소설로 만나는 선지식 '탄허'의 진면목



천하의 지식인이여, 내게 와서 물으라
백금남 지음
피플워치
2만6000원

박재완 기자 waniholo@hanmail.net

"1983년 6월 5일, 오대산 월정사 방산굴에서 세수 일흔하나, 법랍 마흔아홉의 한 노승이 조용히 숨을 몰아쉬었다. 탄허는 갈 때가 되었음을 알았다. 유시를 앞두고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영화 '관상'의 원작과 〈십우도〉 등으로 알려진 작가 백금남이 신작 소설 〈천하의 지식인이여, 내게 와서 물으라〉(이하, 천하의 지식인이여)를 출간했다.

〈천하의 지식인이여〉는 금세기 최고의 학승이자 선승으로 추앙받는 탄허 스님의 일대기를 이야기로 엮은 전기적 소설이다. 탄허 스님은 10만 장이 넘는 번역 원고를 남겼음에도 자신의 사적인 기록은 거의 남기지 않았다. 따라서 작가는 탄허 스님의 어린 시절부터 열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세밀하게 재구성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특히 사서삼경을 비롯한 유가의 모든 경서를 섭렵하고 노자와 장자까지 두루 통달했음에도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의혹을 풀지 못해 방황하는 청년 유생의 모습, 갈등과 방황을 끝내고 깨달음을 얻게 되는 과정에서의 의식적 변화 과정 등은 백금남 작가의 남다른 노력이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다.

백 작가는 이러한 어려움을 다양한 일화들을 통해 구체적인 이야기로 엮어냈다. 출가 전인 김금택이 유가와 도가의 교리만으로 풀 수 없었던 문제들을 그의 스승이었던 이극종이나 당대의 선지식들과의 대담을 통해 구체화하는가 하면, 불가로의 귀의에 있어서는 인연법에 기인한 예지몽을 통해 나병환자들의 피고름을 손수 닦아내며 돌보았던 경허 선사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불가의 스승인 한암 스님의 출가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젊은 출가자의 갈등을 우회적으로 풀어냈다.

이처럼 〈천하의 지식인이여〉는 설명이나 주장이 아닌 '이야기'로 탄허 스님의 일대기를 재구성한 소설이다. 이 같은 작업은 작가의 불교에 대한 깊은 이해로부터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백금남 작가는 〈십우도〉 〈칼의 어록〉 〈붓다 평전〉 등 전작에서 이미 자신의 깊은 불교적 정서와 성향을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이번 작품에서도 또 다른 무늬의 불가적 색채로 '탄허'라는 인물을 그려냈다.



한국불교 대강백이자 선승인 탄허 스님.

탄허 스님 삶 · 사상 '이야기'로 엮어
어린 시절부터 열반에 이르기까지
일화 · 설법 · 대담 · 지인 증언들 토대로
불교 몰라도 재밌게 읽을 수 있어
전작과 또 다른 불교적 색채 담아

이번 〈천하의 지식인이여〉는 굳이 불교를 잘 알지 못하더라도 그 안에 담긴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한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아주 오랫동안 우리 민족의식의 근간이 되어왔음에도 항상 추상적이고 멀게만 느껴졌던 이야기들이 구체적이고 가깝게 다가온다.

탄허 스님은 독립운동가인 율제 김홍규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사서삼경을 비롯한 유학의 전 과정을 공부했다. 김제 제일의 천재로 통했던 그의 학문적 성취는 놀라울 만큼 빠르고 깊었다. 그러나 유학의 모든 경전을 독파하고도 삶의 근원적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22세의 나이에 오대산 상원사로 입산한다. 입산 후 탄허 스님은 조계종 초대 종정을 지낸 한암 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용맹정진을 시작했고, 수행 2년 만에 상원사 승려연합수련소에서 〈금강경〉 〈기신론〉 〈범망경〉 등을 강의하면서 대중의 이목을 끌었다. 이후 고암, 탄옹 스님의 청에 의해 〈화엄경〉과 〈화엄론〉을 강의하는 등 학승으로서의 명성을 쌓았다. 당시 탄허 스님은 자신을 찾아온 수강자들에게 "천하의 지식인이여, 내게 물으시오. 알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다면 어찌 명전천추(名傳千秋)할 수 있겠소. 모르면 묻고, 묻지 않는다면 다 안 것으로 알고 내가 물어보리라"고 했다.

탄허 스님은 학승뿐만 아니라 선승으로서도 인정을 받았다. 스님의 강의가 소문을 타면서 당대의 내로라하는 선승들도 그의 강의에 관심을 보였다. 당시 최고의 선승으로 불리던 전강 화상은 탄허 스님의 강의를 들은 후 후학인 탄허 스님의 절을 맞절로 받았다.

이처럼 탄허 스님은 유교와 불교를 아우르고 선(禪)과 교(敎)를 겸비한 석학이자 선지식이었다. 그런 탄허 스님은 종종 주위를 놀라게 하는 예지력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자신의 종명일을 예언한 일은 승가는 물론 세간에도 잘 알려진 일화다. 모두에 언급한 소설 속의 이야기가 실존의 그 이야기다.

시주의 은혜를 무겁게 여겼던 스님은 59세부터 돌을 갈아 죽을 쑤어 먹으며 수행했다.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몸소 실천에 옮긴 것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스님은 암이라는 큰 병을 얻게 된다. 석 달밖에 살지 못한다는 진단에 제자들은 안타까워했지만 스님은 제자들에게 병이 사람을 잡아갈 수 없다며, 자신의 종명일을 모두에 언급했던 6년 뒤인 음력 4월 24일 유시라고 예언했고, 실제로 6년을 더 살고 예언일에 원적에 들었다.

탄허 스님은 자신의 종명일 말고도 이승만 정권의 몰락과 이기붕의 죽음, 박정희 前 대통령의 총기 사망 등 세간의 큰 사건들을 예언한 바 있다.

백금남 작가가 5년 동안 집필한 소설 〈천하의 지식인이여〉는 탄허 스님이 남긴 일화, 설법, 대담, 지인들의 증언들을 토대로 유추해 완성됐다. 따라서 글의 서술에 작가의 주관이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작가는 시간의 맥을 짚어가며 이야기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소설은 지금까지 대부분 '학승'으로 조명되었던 탄허 스님을 여러 면에서 좀 더 깊이 조명했다고 할 수 있다. 화엄학의 종장으로서 세상의 앞날과 자신의 종명일까지 내다본 탄허 스님의 치열했던 생애를 만날 수 있다.

불교 잡지 톺아보기

극락으로 가는 배, 반야용선

월간 〈불광〉 12월호



불광출판사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월간 〈불광〉 12월호는 '극락으로 가는 배, 반야용선'을 특집 주제로 다뤘다.

반야용선은 돌아가신 분들의 극락왕생을 염원하며, 천도재 같은 불교의례에 사용되는 의식구다. 〈천수경〉 독송시에도 '어서 속히 반야선에 오르기(원아속승반야선願我速乘般若船)'를 염원하기도 한다. 이렇듯 불교 의례에는 지혜를 뜻하는 '반야'와 힘을 상징하는 '용'이 만나 반야용선이 주요하게 등장한다.

월간 불광 12월호에서는 반야용선 신앙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불화를 통해 살펴본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반야용선 그림은 의외로 미륵신앙과 관련된다. 13세기 고려시대에 제작된 〈미륵하생변상도〉에 용선이 처음 등장하는데, 미륵부처님이 이 세상에 내려와 법회를 여는 곳으로 향하는 두 척의 배가 그려져 있다. 남녀를 각각 태운 두 척의 반야용선이 향하는 곳이 아미타부처님이 계시는 극락세계가 아니라, 미륵부처님이 설법하는 용화삼회(龍華三會)인 것이 의외다.

아미타 부처님이 나타나는 반야용선은 15세기 조선시대에 이르러 등장한다. 또 불화마다 배에 탑승하는 불보살이 달라지는 모습도 함께 볼 수 있다. 초기의 아미타 삼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에서 인로왕보살과 지장보살이 추가로 등장하는 신앙 형태의 변화도 알 수 있다.

죽음 의례에서 '배'와 '용'이 등장하는 다양한 문화권도 살펴본다. 특히 우리나라에 오래된 울주 암각화에도 배와 용은 사람들의 행렬과 더불어 등장한다. 아울러 삼국시대 토기 문화, 이집트와 서양, 일본의 죽음 의례에 등장하는 배도 살펴본다.

신중일 기자

불교 성지순례길 의미를 살피다

월간 〈불교문화〉 12월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이 발간하는 월간 〈불교불화〉 12월호 특집은 '불교 성지순례길'이다. 성지는 현재와 과거, 미래가 공존하는 특별한 곳으로, 과거의 길에서 현재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내일을 준비한다는 순례길의 의미는 마치 한 사람의 인생과도 같은 가르침을 담고 있다.

월간 〈불교문화〉 12월호에서는 세계 각 종교에서의 성지순례의 의미와 함께 불교 성지순례길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여정을 탐험하고 그 속에서의 의미와 부처님이 전한 가르침을 살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불교사회학부 교수는 '불자에게 성지순례의 의미'를 주제로 성지순례가 단순히 성지를 참배하는 것을 넘어서 종교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종교적 영감과 지혜로운 삶의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의미를 담는다고 했다.

〈인도 네팔 순례기〉 저자인 각전 스님은 '인도 불교 성지순례길- 불자는 왜 인도에 가는가'를 주제로 룸비니, 보드가야, 사르나트, 쿠시나가르와 같은 4대 성지를 소개하며 성지순례가 정신을 향상시키고 스스로를 정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해인사승가대학 학감 법장 스님은 '일본의 성지순례길- 과거의 길을 걸어 현재의 삶에서 내일로'를 주제로 쿠마노 옛길, 시코쿠 88개소 순례길을 소개했으며, 권중서 정견불교미술연구소장은 '한국의 성지순례길'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삼보사찰, 관세음보살의 중생구제 서원이 있는 33관음성지, 부처님이 시공을 초월해 상주 불멸한 존재임을 느끼게 하는 경주남산 순례길을 전했다.

윤원철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명예교수는 '여러 종교에서 성지순례의 의미'에서 성지는 거룩함과 일체가 되려는 욕구 때문에 이끌리는 곳이라고 말하며 이슬람교, 가톨릭과 개신교의 성지순례 실태와 특징을 조명했다.

신중일 기자

불교학술서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도서출판 운주사의 〈프라즈냐 총서〉



성철선사상
도대현/448쪽/23,000원

인도불교사
정순일/726쪽/35,000원

주역선해 연구
청화/510쪽/25,000원

율장의 승단분열 연구
자현/280쪽/15,000원

불성론 연구
최현민/368쪽/18,000원

불교의 마음챙김과 사상의학
불교와 사상의학 연구회 편/416쪽/23,000원

천수경 연구
정각/500쪽/28,000원

역경학 개론 우수학술도서
최종남 외/454쪽/23,000원

현수 법장 연구
계환/252쪽/15,000원

유식삼십송 풀이
후카우라 세이분 저/500쪽/25,000원

불교사회복지개론
조보각 외/408쪽/20,000원

한국 고대 정토신앙 연구
현송/320쪽/17,000원

경봉 선사 연구
정도/304쪽/17,000원

화엄경의 문학성 연구
도업/360쪽/18,000원

정토 수행관 연구
법상/524쪽/25,000원

정토불교의 역사와 사상 우수학술도서
현송/436쪽/23,000원

동산의 불교계 정화운동 연구
진관/242쪽/15,000원

한국불교 의례체계 연구
이성운/454쪽/23,000원

불교세시풍속
오인/446쪽/23,000원

삼계교 사상 연구
법공/424쪽/23,000원

범망경보살계본휘해
이원정 편/목정배 역/556쪽/28,000원

심오한 중도의 새로운 문을 여는 지혜의 등불
게쎄 텐진 남카/484쪽/24,000원

중국불교사상사
김진무/496쪽/25,000원

숭산행원의 생애와 사상
최용운/292쪽/17,000원

불상점안의식 연구
해사/488쪽/25,000원

불교사회사상의 이해
이병욱/364쪽/18,000원

분황 원효의 생애와 사상
고영섭/464쪽/25,000원

삼계교 연구 우수학술도서
서본조진 저/박부자 역/716쪽/35,000원

대각국사 의천 연구
무원·진관 공저/272쪽/16,000원

티베트 돈점 논쟁 연구
박건주/364쪽/20,000원

중국 불성론
라이용하이 저/법지 역/696쪽/33,000원

송시의 선학적 이해 우수학술도서
박영환/536쪽/27,000원

대행선사의 수행법 연구
청강/312쪽/17,000원

불교교육론
이송곤/528쪽/27,000원

균형의 마음, 우뻬카
박재은/328쪽/18,000원

한국의 죽음 의례의식 연구
탄탄/384쪽/20,000원

불교학의 사회화 이론과 실제 우수학술도서
박경준/824쪽/37,000원

경량부 연구 세종학술도서
카토 쥰쇼 저, 김재현 역/576쪽/37,000원

붓다의 법담학 연구
이광준/448쪽/25,000원

생전예수재 연구
승범/280쪽/18,000원

일본불교를 세운 고대 한국승려들
이윤옥/372쪽/22,000원

불교 시간론 원전 연구 세종학술도서
정은해 역해/696쪽/35,000원

대승불교흥기시대 인도의 사원생활
임은정 역/384쪽/23,000원

불교와 사회윤리
차차석/304쪽/18,000원

환성지안 선사
무각/344쪽/22,000원

문명전환과 불교의 응답
이명호/224쪽/17,000원

반야경의 사상 개설
이광준/336쪽/20,000원

불교사회경제사상
박경준/436쪽/25,000원

용성 사상 연구
진관/296쪽/20,000원

신자유주의와 상생의 불교경제학
김광수/284쪽/20,000원

불타의 대승선맥
오형근, 박화문/316쪽/22,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세종이 부른 부처님 일대기, 칸타타로 만난다

국립해오름극장 12월 29일~31일
'세종의 노래: 월인천강지곡' 공연
찬불가 '월인천강지곡'이 칸타타로
313명 출연진 참여하는 대형 공연
작곡가 박범훈 "가장 공들인 작품"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11월 28일 열린 '세종의 노래: 월인천강지곡' 기자간담회서 작곡과 지휘를 맡은 박범훈 조계종 불교음악원장이 작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말은 다양한 클래식 공연들이 펼쳐지기에 클래식 애호가들에게는 즐거운 시즌이다. 하지만, 공연 내용 대부분이 예수를 찬양하는 기독교 찬송가들이 일색이여서 불자들에게는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았다. 올해 연말에는 부처님 일대기를 주제로 한 대형 공연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국립극장(극장장 박인건)은 12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세종의 노래: 월인천강지곡(이하 세종의 노래)'을 해오름극장에서 공연한다. '세종의 노래'는 한국 공연예술의 비약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한 국립극장 남산 이전 50주년을 기념해 선보이는 대형 칸타타(교성곡, 다악장 형태의 성악곡)로, 각 분야 최고 거장인 작곡가 겸 지휘자 박범훈, 연출가 손진책, 안무가 국수호가 의기투합한다.

세종이 직접 지은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을 바탕으로 한 이번 공연에는 3개 전속단체인 국립창극단 · 국립무용단 · 국립국악관현악단과 서양 오케스트라, 합창단 등 총 313명 출연진이 무대에 오른다.

2017년 국보로 지정된 〈월인천강지곡〉은 1447년(세종 29년)경에 세종대왕이 지은 찬불가다. 세종대왕은 소헌왕후가 먼저 세상을 떠나자, 아내의 명복을 빌기 위해 아들 수양대군에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를 담은 〈석보상절〉을 쓰게 했고, 이를 토대로 지은 노래가 〈월인천강지곡〉이다.

'마치 달이 천 개의 강에 비추는 것과 같다'는 의미를 담은 〈월인천강지곡〉은 석가의 탄생부터 성장 과정, 불도를 깨우치기까지 등의 일대기를 장장 538장으로 기록한 찬불가로 훈민정음의 음운 법칙, 음절 구성 등이 거의 그대로 반영돼 있어 한글 창제의 이념을 잘 드러낸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처음 금속활자로 간행된 한글 문헌이라는 점에서 초기 국어학과 출판인쇄 역사에서 사료적 가치가 크다.

박범훈 조계종 불교음악원장은 세종이 쓴 〈월인천강지곡〉을 바탕으로 상상력을 가미해 세종이 부르는 노래로 재구성해 대형 칸타타로 완성했다. 박 원장은 작가이자 시인으로 활동하는 박해진과 오랜 시간에 걸쳐 부처님의 생애를 담고 있는 대서사시를 압축한 후, 작사에 맞춰 2년에 걸쳐 곡을 썼다. 이렇게 탄생한 '세종의 노래'는 독창 · 중창 · 합창과 동서양의 관현악이 결합한 칸타타로, 서곡과 8개 악장으로 구성된다.

초연의 지휘는 작곡가 박 원장이 직접 맡는다. 작품의 극적인 선율을 끌어내 경건하면서도 웅장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연출가 손진책이 극 공연 못지않은 무대 · 영상 · 조명 · 의상 등을 조화롭게 펼쳐내는 가운데 안무가 국수호가 완성한 다채로운 움직임까지 더해져 통념을 깨는 현대적인 무대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국악관현악단과 서양 오케스트라가 합쳐진 관현악단 97명을 중심으로 합창단 174명, 창극단 11명, 무용단 31명 등 출연자만 313명에 달하는 초대형 무대가 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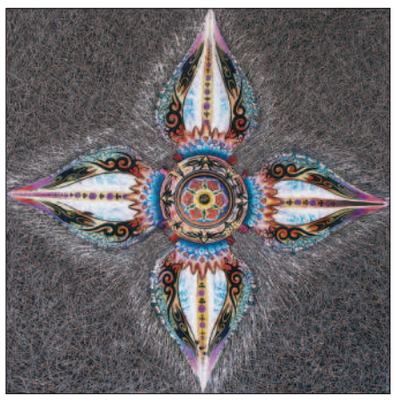
박 원장은 "칸타타(교성곡)를 포함해 수많은 창작곡을 써왔지만,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공들인 작품"이라며 "특히, 가사의 내용을 음악으로 표현하기 위해 노랫말이 품은 뜻과 이야기의 흐름에 맞춰 숱한 가사 수정과 편곡 작업을 거쳤다"고 전했다.

박 원장과 노랫말 작업을 함께한 박해진이 작사를 맡아 공연에 맞게 전반적으로 수정했다. 세존이 태어나 열반에 오르는 과정을 그린 팔상도(八相圖)에서 '도솔래의'를 '흰 코끼리 타고 오신 세존'으로, '쌍림열반'은 '세존, 열반에 들다'로 풀어쓰는 등 지금 관객이 공감할 수 있는 쉬운 노랫말로 만들었다. 또한, 에필로그와 프롤로그를 넣어 작품의 메시지를 강조했다.

국립극장은 "'세종의 노래'는 군주로서의 외로움과 지아비로서의 지고지순한 순정, 한글이 만백성에게 제대로 전파되길 바라던 마음이 담긴 노래를 통해 '사랑'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말했다. (02)2280-4114

추상화로 표현한 佛法…길상 기운 담다

능허 스님, '대길상 에너지전' 개최
12월 2~22일, 법련사 불일전시관서
오일 페인팅 기법으로 불법 표현해
'옴마니반메훔' 새긴 '시방도' 눈길
"그림에서 카르마 소멸 방법 찾아"



부처님 가르침을 형상화한 독특한 그림으로 마음의 치유와 명상의 가치를 전하는 특별한 전시회가 마련됐다.

시인이자 화가인 능허 스님은 12월 2일부터 22일까지 서울 법련사 불일전시관에서 '대길상 에너지전'을 연다. 전시에는 못을 사용해 서양화 오일 페인팅 기법으로 구현한 작품 40여 점이 공개된다. 전시의 시작을 알리는 '대길상 에너지전' 개막식은 12월 2일 오후 3시에 열렸다.

산스크리트어와 한문 등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표현한 작품과 삼라만상의 우주와 해탈의 경지를 예술적 에너지로 표출한 추상화 등을 선보인다. 특히 전 세계에 불법이 퍼져나가길 염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동서남북 사방에 '옴마니반메훔'을 새긴 작품 '사방도'도 눈여겨볼 만하다.

능허 스님은 출가 전인 16살부터 그림을 그렸다. 독학으로 서양화를 공부한 스님은 1982년 출가한 이후에도 손에서 그림을 놓지 않았다. 스님은 출가 이후 곧장 태국, 베트남, 몽골, 티베트 등을 오가며 수많은 이들에게 그림을 통해 한국불교를 알려왔다. 부처님의 자비와 공덕은 물론 종교를 떠나 화합과 평화의 중요성도 일깨웠다.

스님이 한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소요된다. 잠까지 줄여가며 작품활동에 매진한 결과 스님은 지금까지 200여 개 작품을 남겼다. 그간의 노력과 성과물을 함께 나누기 위해 개인전은 10회, 초대 및 단체전은 30회 이상 참여했다.

11월 28일 서울 인사동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능허 스님은 "말과 행동, 생각을 통해 지은 카르마를 소멸하기 위해 방법을 고민하다 보니, 그림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나에겐 그림이 곧 수행"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림을 통한 명상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고 깨달음에 가까워지길 바란다"며 "이번 전시회가 부처님 가르침과 한국 불교문화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토대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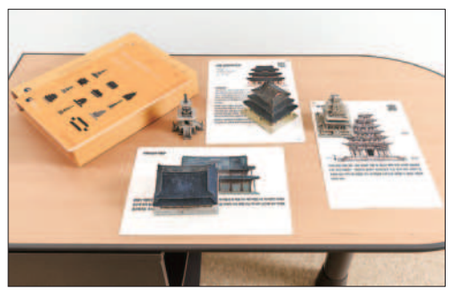
능허 스님은 향후 목표도 소개했다. 스님은 "그림뿐 아니라 명상의 영역을 소리로도 확대할 것"이라며 "소리 명상법을 개발, 시스템화하고 보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파키스탄 탁실라 간다라 유적지에서 평화법회 개최를 계기로 능허 스님과 인연을 맺은 남양주 봉인사 주지 적경 스님은 "유튜브를 통해 파키스탄인들이 불교 유적을 훼손하는 장면을 봤다. 충격적이고 가슴이 아팠다. 그즈음 능허 스님을 알게 됐고, 활동과 작품에 관심이 갔다"며 "작품이 너무 좋아 전시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많은 분들이 스님의 그림을 보고 마음의 평안을 얻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시각 장애인용 한국 불교건축 교구 제작

국립문화재연구원, 3차원 촉각 모형 만들어

"구례 화엄사 각황전이 이렇게 생겼구나." 시각장애인들이 한국의 건축 유산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교보재〈사진〉가 제작됐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원장 김연수)은 "시각장애인이 우리나라 건축문화유산을 현장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촉각으로 느끼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의 건축문화유산 12선 점자 감각카드와 3차원(3D) 촉각모형 교구'를 제작해 전국의 시각장애인 관련 교육기관 등에 배포한다"고 11월 27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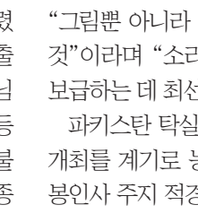
점자감각카드는 '소통24' 플랫폼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총 12개의 불교건축문화유산(목조건축6, 석조건축6)을 대상으로 제작했다. 목조건축으로는 △구례 화엄사 각황전 △김제 금산사 미륵전 △보은 법주사 팔상전 △양산 통도사 대웅전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이, 석조건축에는 △개성 경천사지 십층석탑 △경주 감은사지 동 · 서 삼층석탑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 △경주 불국사 다보탑 △경주 불국사 삼층석탑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제작됐다.

해당 교보재는 건축문화유산의 형태를 알기 쉽게 체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글과 세밀화(일러스트)로 구성됐으며, 물방울 방식의 특수 점자와 점화를 삽입했다. 함께 포함된 QR코드를 인식하면 성우의 음성 설명도 들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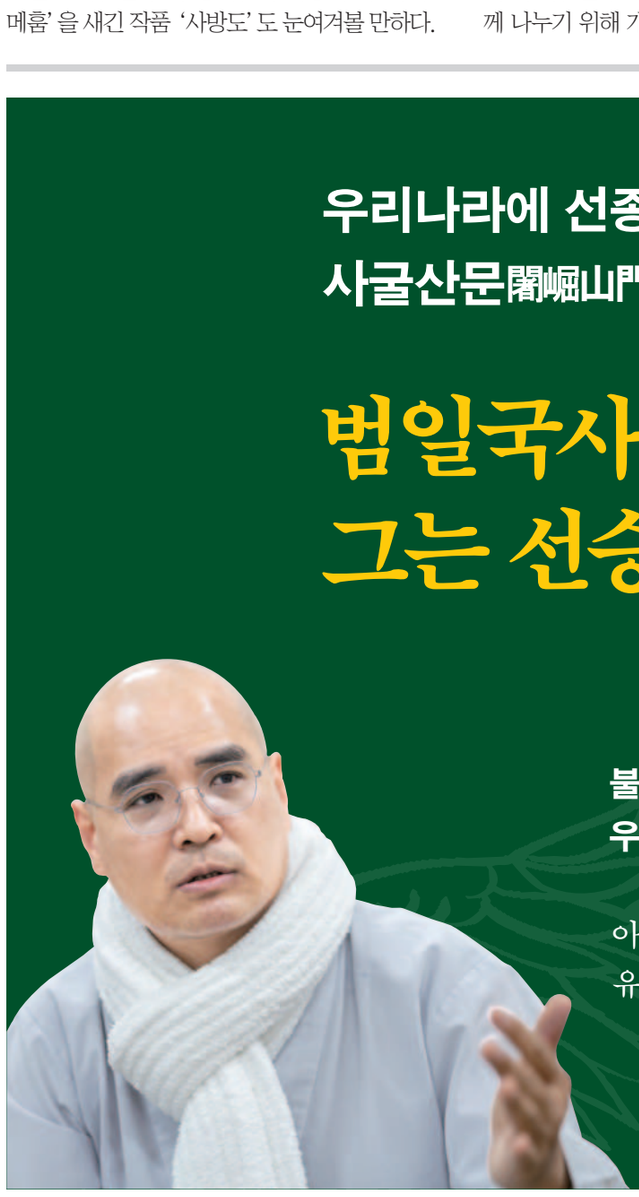
3차원(3D) 촉각모형 교구는 점자감각카드로 제작한 12개의 건축문화유산 중 4개를 선별해 제작하였으며, 150㎜ 내외의 크기로, 한 손으로 형태와 질감을 느낄 수 있어 시각장애인 촉각체험 활동에 활용될 수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원은 "이번에 제작된 점자감각카드는 오는 12월 전국의 시각장애인 관련 시설에 배포되며, 3차원(3D) 촉각모형 교구는 점자감각카드와 함께 전국의 맹학교와 점자도서관에 배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우리나라에 선종禪宗의 뿌리를 심은
사굴산문闍崛山門의 개창자!



범일국사梵日國師
그는 선승禪僧인가, 신神인가



불교계 전방위 지식인 자현 스님이 밝히는
우리 불교사, 또 하나의 주요 장면!

아직 숙제로 남아 있는 범일국사의 생애를 복원하고,
유네스코 무형유산 강릉단오제의 주신이 된 사연을 밝히다!

추천사

범일국사는 시대를 초월한 한국 선불교를 대표하는 고승입니다. 이분께서 개창하신 사굴산문에 보조지눌과 송광사의 16국사 그리고 나옹혜근과 환암혼수, 무학자초 등의 거목들이 배출됩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선종사를 관통하는 남상濫觴인 범일국사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임이 분명합니다.

- 대한불교조계종 제15대 종정 중봉성파



신이 된
선승,
범일국사

자현 지음 | 544쪽 | 올컬러 | 32,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백금남 소설 # 아디카야의 검 44 아디카야의 눈물 1



▶한줄 요약
이 기자 일행은 드디어 이석원을 만난다. 그리고 그에게서 아버지 지안 스님의 죽음에 대해 듣게 된다.

"명상서 본 난타에 미쳐 쌍불도를 그렸소"

-국가 보조 말이 쉽지요. 세월이 세월이라 그 옛날보다야 사람 사는 곳이 되었지요. 의학도 많이 발전했고요. 그러나 아직입니다. 달나라 별나라 가는 세상이지만 한센병은 잡기가 어려운 병이라오. 예방과 관리가 첫째인데 정부 관리 놈들 어디 이곳에 한 번이라도 와 봤어야지요. 그 사람들이 환자들입니까. 그 사람들 이곳 사정 몰라요. 아무리 구명해 달라고 울며 매달려도 소용없어요. 그저 사무적일 뿐이지요.

그렇다고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이런 원시적인 형태의 어쩌고 하는 말이 입 밖으로 터져 나오려는 걸 나는 억지로 참았다. 인도는 단일 국가 중 한센병 환자가 가장 많은 나라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걸 기억해 내었기 때문이었다.

노인네가 걸음을 멈춘 곳은 병원으로부터 꽤 멀리 떨어진 맨 위쪽의 판잣집 앞에서였다. 앞에서 몇 번 집주인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다.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노인네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문을 살며시 열었다. 곰보 유리창이 달린 나무문이었다.

문이 열리기가 무섭게 나는 나도 모르게 손으로 코를 막았다.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던 노인네가 한순간 깜짝 놀라는 것 같았다. 그는 뒤이어 후다닥 안으로 뛰어들었다. 왜 그러나 하고 네 사람은 마주 얼굴을 쳐다보았다. 안에서 갑자기 고함이 터져 나왔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오!

심상치 않음을 느낀 심 작가가 후다닥 안으로 뛰어들었다. 심 작가의 뒤를 따라 안으로 들어서던 나는 깜짝 놀랐다. 대여섯 평이나 될까. 그냥 바닥만 평평하게 닦아 합판을 깔고 그 위에다 장판을 깔아 놓은 곳이었다. 주위엔 가재도구가 널린 것 같았다. 그 중앙에 두 사람이 누워 있었다. 여자는 동쪽으로 반듯하게 누워 있었고 사내는 그 여자의 가슴을 베고 문 쪽을 향해 누워 있었다. 그들 주위는 온통 피범벅이었다. 흘러내린 핏줄기가 내가 들어선 입구까지 흘러 내려와 있었다. 여자의 얼굴은 반대편으로 돌려져 있어서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사내는 승복을 입은 것으로 보아 찾던 이석원이 아닐까 싶었다.

그는 눈을 뜨고 들어선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직 생기가 느껴지는 눈이었다. 상상했던 모습이 저러했던가? 날카로운 콧날, 긴 얼굴, 활처럼 휘어진 엷은 입술….

그들이 흘린 피는 남자와 여자의 손목에서 흘러내리는 것 같았다. 여자와 사내의 손목은 포개어져 있었지만 두 사람이 함께 손목의 동맥을 잘랐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다.

멍청하게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던 노인네가 사내를 향해 달려들려고 몸을 움직였다. 그러자 사내가 천천히 한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껄끄럽게 쉬어 있었으나 발음은 정확했다.

-이제 무슨 짓이오?

노인이 소리쳤다.

-가까이 오시면 안 됩니다.

노인네가 다시 달려들려고 하자 사내가 눈을 시퍼렇게 치떴다.

-어르신의 손에 바늘구멍만 한 상처만 있어도 곧 감염되고 말 것입니다. 오시면 안 됩니다.

노인네가 안 되겠는지 밖으로 뛰쳐나갔다. 아마도 병원 사람들을 데리러 가는 모양이었다.

사내의 눈이 천천히 네 사람에게로 돌아왔다.

-한국에서 오셨군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심 작가가 고개를 끄덕였다.

-잘 오셨습니다. 오실 줄 알고 있었지요.

-댁이 아디카야요?

내가 물었다.

그가 웃었다.

-맞습니다. 이곳에서 저를 그렇게 부릅니다.

-한국식 이름은 이석원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석원입니다. 아버지 지안 스님을 죽이고 암자를 불태웠던 사람이오.

-왜 그랬소?

냉정을 가장하며 내가 물었다.

이석원이 자조적으로 입가에 웃음을 물었다.

-분명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찾아온 것 같으니 말씀드리지요. 지안 스님은 내가 죽인 게 아니었소.

-죽이지 않았다고?

심 작가가 무슨 소리냐는 듯이 언성을 높였다.

그가 머리를 내저었다.

-그를 죽인 건 내가 아니라 진리란 놈이었소.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군.

심 작가가 뇌까렸다.

-그렇소. 그대가 무엇을 이해할 수 있겠소.

-이해할 수 없다고?

심 작가가 되물었다.

-그렇소. 그대들은 그 무엇도 이해할 수 없소. 하기야 이해만큼 더러운 것이 있을까만….

나는 눈을 감았다 떴다. 가슴에 불을 맞은 것 같았다. 갑자기 심장이 벌떡거렸다. 그 사이로 그의 음성이 파고들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모양이니 내 말해 드리리다. 쌍불도를 아시오?

'쌍불도?'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어느 날 쌍불도에 대해서 말하던 천추사원의 조실이 생각났다. 두 사람의 부처. 부처님의 고행상 옆에 이석원이 그려진, 분명히 그는 그 말을 하는 것 같았다.

-물론 여기까지 왔으니 그걸 모를 리 없겠지. 그렇소. 그 쌍불도. 그러나 그건 아버지가 그린 것이었어.

-당신이 그린 것이 아니고?

내가 냉정을 가장하고 물었다.

그가 고개를 내저었다.

-내가 나를?

그의 얼굴에 '천만에 그럴 리가 있겠느냐'는 미소가 흘렀다.



삽화 · 김상규

-그것은 내 아버지가 그린 것이었소. 천하에 다시없을 금어가 말이오. 그 금어가 미쳐서 자기 아들을 부처로 앉힌 것이오.

-방금 그대의 아버지가 미쳤다고 했소?

-하하하 미치지 않았으면 그럴 리가 있겠소! 일가를 이루다 보니 삼세가 보인다는데, 도대체 나는 그 경지를 이해할 수 없었소. 하기야 그 경지가 이해될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아버지를 죽였다?

그게 이유가 되느냐는 듯이 오오스마 기자가 물었다.

그의 입가에 다시 미소가 흘렀다.

-그것을 찢으러 들어가던 날 밤이었소. 아버지는 내가 들어올 줄 알고 있었지. 자신이 그린 쌍불도 앞에 척추를 펴고 꼿꼿하게 앉아 명상에 잠겨 있었으니까.

바람이 부는 것인가. 열린 문이 흔들렸다. 힐끗 나는 밖을 내다보았는데 먼 산등성이가 보였다.

-아버지는 내가 그림을 찢으러 들어왔다는 걸 알고 있었소. 난타란 허깨비에 속아 아버지가 그린 그림이었소. 아버지는 늘 내게 말했소. 넌 분명히 난타 존자의 후생이라고. 그때마다 나는 코웃음을 쳤소. 지금이 어떤 세상이오. 우리의 마음까지도 뇌과학으로 규명되는 세상이오. 그런데 전생 후생? 어림없는 수작 아니오. 그런데도 아버지는 명상 중에 본 난타에게 미쳐 쌍불도를 그렸소.

-그렇다고 아버지를 죽인다는 건 말이 안 돼!

심 작가가 조급하게 소리쳤다.

그에 상관하지 않고 그가 말을 이었다.

-나는 같은 금어로서 미쳐버린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소.

-용서할 수 없었다니? 정말 그래서 아버지를 죽였다고?

심 작가가 또 조급함을 드러내었다.

그는 심 작가의 성급함에 상관하지 않았다. 할 말을 그대로 해나갔다.

-그런데 그렇게도 지키려 했던 쌍불도를 이상하게 가로막지 않았소. 나를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았소. 이제 갈 때가 된 것처럼 스스로 촛불을 쌍불도와 자기 몸에 붙였소. 그때 어떻게 알았겠소. 이미 아버지가 몸에 휘발유를 덮어썼다는 걸.

-무엇이? 스스로 휘발유를 덮어썼다고?

나는 멍하니 그를 쳐다보았다.

그가 내 속마음을 들여다본 듯이 이내 말을 이었다.

-그렇소. 그는 그렇게 쌍불도와 함께 이 세상을 떠났소. 왜겠소? 왜 쌍불도와 하나가 되어 이 세상을 떠났겠소?

-그래. 왜?

역시 심 작가였다.

그의 음성이 이어진 것은 잠시 사이를 두고서였다.

-아버지는 내게 보여준 것이오. 어떠한 것도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는 대승(大乘)의 경지를 말이오. 그는 불을 붙이기 전에 내게 마지막으로 말했소. 삶보다 먼저 시작된 저 시원의 끝에 누가 있을 것 같냐고. 나는 이제 본래 대로 돌아가리라고.

-그렇다면 그대가 지안 스님을 죽이지 않았단 말인데 그럼 지안 스님의 상혼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심 작가가 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다. 그 와중에도 어느새 그의 말꼬리가 내려가 버렸다는 걸 나는 느낄 수 있었다.

그가 머리를 내흔들었다.

-나는 처음 아버지를 구하려고 했었소. 비록 그림을 찢으러 들어가긴 했지만. 그러나 불은 삽시간에 옮겨 붙었고 그 바람에 단상이 무너져 내리면서 촛대가 목에 박힌 것이오.

-거짓말이다. 촛대가 위에서 떨어졌다면 부처를 모신 단상이었을 텐데 그 정도라면 목에 박히기는커녕 튕겨 나갔을 것이다. 박힐 수가 없어.

심 작가는 분명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러고 보니 이번 사건을 작품화하기 위해 나름 많이 노력했다는 생각이 나는 들었다.

심 작가의 말을 들은 그가 희끄무레하게 웃었다.

-대단하군. 그러고 보니 부처님에게 올린 공양기(供養器)와 불상 등 단 위의 물건들이 촛대와 함께 연달아 떨어진 것 같구려. 하지만 그것이 이제 와 무슨 소용인가.

-그건 그렇고 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오?

심 작가가 다시 나설 것 같아 내가 물었다.

그가 쿨쿨 웃었다.

-그대들이 이곳까지 찾아온 걸 보면 더 잘 알 것 아니오.

-하지만 모든 것은 사실이다?

내가 물었다.

-나는 내 본래면목을 찾아다니다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이오.

-그래 여기까지 오면서 무엇을 보았소?

-비로소 보입디다. 나의 삼세가.

-삼세?

-과거, 현재, 미래.

-정말 삼세를 보았단 말이오?

이번에도 내가 물었다.

-내가 아무리 부정하고 부정해도 고래로 이어져 온 나의 업장, 그 업장 말이오.

-정말 그 업장을 보았다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심 작가가 물었다.

-그때부터 꿈만 꾸면 난타가 보였소, 그가 묻고 있었소.

-물었다?

말이 너무 느리다는 듯이 또 심 작가가 물었다.

-자, 부처님은 무아(無我)라고 했다. 나는 유아라고 한다.

-무아? 유아? 무슨 소리야?

또 심 작가가 되받았다. 〈계속〉

자연(기) 치유 힐링쉼터

자연(기)치유 원리는 우주에 늘 가득하여 전지전능하며 영원불멸하는 우주만물의 창조근원인 우주무한생명기운을 환자의 체내로 불어넣어 환자의 생명기운을 북돋움으로써 체내 손상된 체세포들이 지극히 빠른 속도로 정상적 건강세포로 원상 회복하는데 있습니다.
자연(기)치유는 기치유자가 환자의 치유를 위해 하는 일은 오직 우주 원기운 즉, 우주본성을 환자의 체내에 불어넣기만하고 모든 치유는 우주본성에 의해 저절로 되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내 일반기공사들의 기공치유와 그 원리측면에서 크게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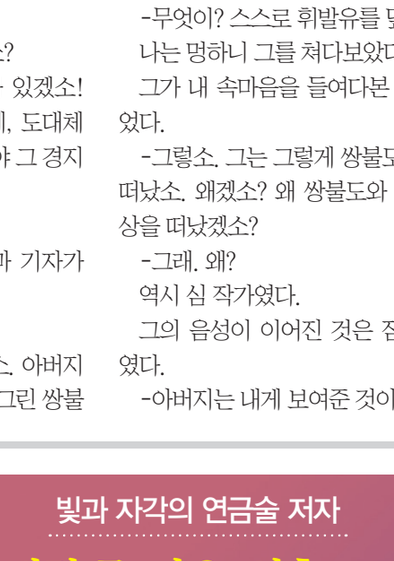
광희기치유는 선천이 아닌, 후천적으로 생긴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곳입니다.
자연(기)치유 힐링쉼터에서 새로운 삶을 누려보십시오.

치유대상 관절협착증, 신경통, 녹내장, 산후풍, 불면증, 통풍, 공황장애, 냉한별, 이명, 소화장애, 불안증, 심장질환, 호흡장애, 비염, 각종통증, 난치성 질환 등

NAVER 광희기치료

접수문의 010-8589-2679
충남 논산시 계백로 1012 (터미널 근처 차부약국 옆 2층)

빛과 자각의 연금술 저자
빛을 직접 몸, 마음, 영혼으로 체험
내안에 잠자는 영혼을 깨워 대 자유찾자



삶과 신성을 여는 마스터키를 자각선원에서 찾아보십시오.
자각선원은 가슴을 깨워 내면의 신성에 이르는 길을 제시합니다.

1. 전생치유, 빙의, 우울증, 정신병, 영가장애, 신병, 무속병, 조현병, 원인을 알수없는 특이한 질병
2. 굿과 천도제로 해결 안되는 영적인 문제
3. 수십년 수행해도 진전이 없는 스님, 보살님, 수행자
4. 가슴이 찢어지게 아팟던 한과 집착 정화 수행, 돈에 대한 한, 관계의 한, 권력의 한, 명예의 한, 사랑에 대한 한, 성에 대한 한으로 정신, 마음에 고통받으시는분
5. 가슴에 한과 집착을 내려 놓아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 하고 싶은 분
6. 모든 질병, 고통, 아픔은 감정이 썩어 부정이 물질화된 고통체가 원인, 노여움, 서러움, 부러움, 두려움, 소유욕적인 사랑 가슴 정화 수행
7. 직접 몸, 마음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가슴정화, 치유수행
8. 차크라 개발 수행 잠재능력 개발
9. 마음 영혼치유사 제자 양성과정

책 구입 및 교육 문의 010-9242-5259
청주시 흥덕구 경산로 43번길 22번지 202호 자각선원

박희승의
현대인을 위한 禪의 지혜 22 나바오(나를 바로 보는 하루 5분) 명상 2



▶한줄 요약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불성이 갖춰져 있고, 누구나 본래 부처다. 단지 잡념, 분별망상에 가려져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멈추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매일 5분 참선 명상을 생활화해나가면 반드시 내 안의 진귀한 보물을 찾게 된다.

규칙적 참선명상…내 안에 지혜 만나는 법

마음의 평화와 치유가 절실한 현대 생활인에게 참선 명상은 참으로 고귀한 선물이다.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하며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자기 중심을 잡고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으려면 정신이 깨어있어야 한다.

옛말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 는 말이 있다. 선 명상이 바로 정신을 깨어있게 하는 것이다.

오늘은 지난 호에 안내드린 '나를 바로 보는 하루 5분 명상' 인 나바오 참선 명상을 시작한 이에게 도움이 될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 한다. 잘 알아두어야 흔들림 없이 참선 명상을 생활화하여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영원한 대자유로 편안하게 갈 수 있다.



경주 황룡사지 9층목탑지에서 나바오 명상하는 불자들.

꾸준한 생활화가 참선 명상 포인트
매일 5분 명상도 삼매 체험 가능해
내 안에 고요함 · 평안 자주 만나면
자존감 회복되고 존귀함 깨닫게 돼



경주 황룡원 중도타워에서 나바오 참선하는 불자들.

매일 세수하듯이 참선 명상하기

참선 명상은 명상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화두 명상을 하든지 호흡 집중 명상을 하든지 꾸준히 하는 것이 비결이다. 매일 정해 놓은 시간에 단 5분이라도 규칙적으로 꾸준히 해서 명상이 생활화되게 해야 한다.

하루라도 명상을 하지 않으면 뭔가 마음이 찜찜하고 언짢은 기분이 든다면 좋은 것이다. 매일 매일 명상을 하니 마음이 편안하고 점점 밝아지는 느낌이 들고 짜증과 화가 줄었다면 명상의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까지 참선을 생활화해야 한다.

만약 하루 5분 참선 명상을 시작한 사람이 하루라도 깜빡하고 지나치면 다음 날 5분에 5분을 더하여 전날 못한 것을 반드시 해야 한다. 단 하루라도 하지 않고 지나간 것을 버려두면 다음에 언젠가 또 하지 않았을 때 '에이 전에도 안했는데 이번에도 그냥 지나가자!'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이 다음에 또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해서 마침내는 하는 날보다 안하는 날이 많아져 결국 흐지부지 되고 만다. 이렇게 되면 참선 명상이 중단되어 생활화하지 못하고 마침내 분별 망상 속에서 헉헉대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하루 5분 명상을 시작할 때 목표를 숨쉬는 한 매일 5분씩 명상하자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하고, 만약 너무 바쁜 일로 하지 못한 날이 있으면 다음 날 5분에 5분을 더하여 명상을 해서 매일매일 5분 명상을 생활화해 나가야 한다.

우리가 자기 몸은 매일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샤워하면서 깨끗이 하는데, 자기 마음은 그냥 내버려둔다면 얼마나 지저분할 것인가를 생각해보자. 마음도 몸처럼 청정하게 해야 한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면 참선 명상이 최고다. 우리의 마음을 화두나 호흡에 집중하면 잡념, 망상이 저절로 쉬어져 고요해지고 맑아진다. 5분 명상할 때 근심걱정이 떠오르더라도 내버려두고 오직 화두나 호흡에 집중을 하자. 그러면 이내 번뇌가 사라지고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진다.

이렇게 매일 단 5분이라도 명상하는 습관을 들여서 마음을 몸처럼 청정하게 하면 마음이 점점 편안해지고 밝아지면서 지혜의 빛이 난다.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이 5분 명상하기

이렇게 매일 정해놓은 시간에 5분 명상을 생활화해나가면 언젠가 반드시 삼매를 체험하는 날이 온다. 그날이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온다.

매일 5분 참선명상은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이 해야 한다. 인디언은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고 한다. 그 비결은 무엇인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것이다. 5분 참선명상도 삼매를 체험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 나가야 한다. 만약 명상을 중단하면 영원히 삼매 체험은 하지 못한다. 그러니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한 때 젊은이들 사이에서 '중꺾마!' 라는 말이 유행했다. '중도에 꺾이지 않는 마음' 을 말하는데, 하루 5분 명상에서도 '중꺾마!' 해야 한다. 중도에 꺾이지 않는 마음이 관건이다. 절대 포기 하지 말고 매일 5분 명상을 규칙적으로 해나가다 보면 언젠가 반드시 삼매를 체험하는 날이 문득 온다.

삼매를 체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화두나 호흡에 집중하는 참선 명상을 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마음이 고요해지고 환하게 밝아지면서 유리처럼 맑고 투명한 의식을 체험하는 것이다. 이것이 삼매 체험이다. 늘 잡념에 시달리고 초조 불안에 시달리던 마음이 화두나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을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 문득 맑고 편안해지며 또렷또렷한 의식을 체험한다. 그러면 아, 내 안에도 이렇게 맑고 고요한 세계가 있구나! 하면서 이전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마음의 고요와 평안을 체험하게 된다.

이렇게 꾸준히 명상을 하다가 한 번이라도 삼매 체험을 하게 되면 명상의 가치를 알게 되어 스스로 시간을 늘여나가게 된다. 이전에는 하루 5분 명상도 너무 길고 망상이 많았는데, 이런 삼매 체험을 하고 나면 5분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계속해서 고요하고 맑은 의식을 체험하게 된다. 전에는 남의 말이나 책에서 본 명상 체험 이야기를 스스로 체험하여 자기 것이 되니 선 명상에 재미도 느끼고 자신감도 늘어나 시간을 10분이나 15분 나아가 30분 이렇게 점점 늘여나갈 수 있다.

하루 5분 명상의 효과

이렇게 매일 5분 참선 명상을 해나가다 보면 문득 참선 삼매를 체험하게 되지만, 설사 삼매를 체험하지 못하더라도 매일매일 참선명상을 해나가면 여러 가지 좋은 삶의 변화가 온다.

이전에는 밖으로만 보고 살았는데, 5분 명상을 하고부터는 내 안을 보게 되고, 내 마음이 얼마나 시끄럽고 복잡한가를 스스로 알게 되어 마음 공부가 더 절실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또 5분이라도 참선 명상을 생활화하게 되면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게 되어 무질서했던 일상이 정리정돈이 된다.

매일 5분 명상의 가장 좋은 점은 마음이 점점 편안해지고 밝아지는 것이다. 잡념 망상이 들끓더라도 자꾸자꾸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새 마음이 고요해지고 아늑해지며 맑아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런 마음의 고요와 평안은 책에서도 맛있는 음식에서도 멋지고 아름다운 풍경에서도 느낄 수 없는 오직 내 내면의 아름다움이다. 매일 5분 참선 명상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본래 갖춰진 나의 아름다움, 평화, 고요, 지혜, 맑음, 밝음을 느낄 수가 있다.

매일 5분 참선명상, 내안의 보물찾기

이처럼 5분 참선 명상을 해나가면 내 안에 고요와 평안을 자주 만나게 되고, 그러면 힘들고 괴롭고 짜증나는 경계를 만나더라도 스스로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지혜와 힘이 나온다. 자기 마음속에서 참으로 소중한 보물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자존감이 회복되고 스스로 존귀함을 깨닫게 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괴로움, 짜증, 화가 나더라도 그것일 견디고 지나갈 마음의 지혜와 힘이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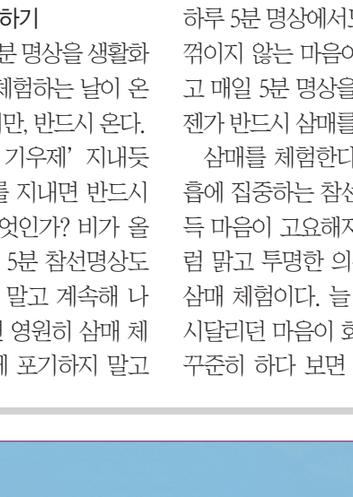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에게 본래 깨달음의 지혜와 복덕이 다 갖춰져 있다고 하셨다. 깨달음, 마음의 평화, 지혜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다. 오직 내 안에 본래 다 갖춰져 있는 것이다. 참선 명상을 매일 규칙적으로 하게 되면 내 안에 본래 갖춰진 지혜와 능력을 회복하게 된다.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불성이 갖춰져 있고, 누구나 본래 부처다. 단지 잡념, 분별망상에 가려져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멈추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매일 5분 참선 명상을 생활화해나가면 반드시 내 안의 진귀한 보물을 찾게 된다.

내 안의 진귀한 보물은 바로 지혜롭고 평화로운 본래 마음이다. 잡념과 번뇌 망상을 비우고 걷어내면 우리의 본래 마음이 드러난다. 먹구름이 걷히면 밝은 해가 저절로 드러나듯이. 이와 같이 우리 본래 마음은 늘 밝게 빛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밖으로 구하고 치닫고 있는 것이다. 밖으로 구하는 마음을 참선 명상으로 돌이켜 내면을 보자! 내 안의 보물을 찾자! 오늘 지금 바로 여기에서

〈불교인재원 생활참선 지도교수
(사)한국명상지도자협회 사무총장〉

한국전통 자연치유 대체요법
뇌와 장을 살리는 힐링마사지
암, 당뇨, 고혈압, 치매, 우울증 등을 자연치유 하는 쾌뇌장 힐링요법
관리프로그램
쾌장경락마사지 (8만원)
기공치유
성인병관리
심리치유
오장육부 기능회복 (간, 심장, 비장, 폐, 위, 신장)
복부비만 등 복부관리
목, 어깨, 골반, 다리 등 각종 통증관리
스트레스 만성피로
각종 뇌질환(우울증 등) 관리
노화 예방, 장수 회춘 관리
영적치유 만트라명상



약손월드힐링센터 화성지부(향남) 010-7302-5620

현대사회는 '정신건강', '마음건강'이 매우 중요한 시대 상황입니다!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을 해치는 중요한 원인에는 '빙의', '신기운'의 폐해가 매우 큽니다! '의학적'으로도 규명이 안되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상담을 통해 해법을 찾으십시오!!"

[상담하면 도움이 되는 분] 전화상담,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 빙의와 신기운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빙의 기운에는 신기운, 사람, 동물, 식물, 기타 여러 가지 영적기운이 몸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몸속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이상증세를 일으킵니다!
※ 빙의와 신기운으로 인한 문제는 병원에서도 안되고, 최고의 심리상담으로도 안되고, 무속굿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 영적기운을 환자로부터 제거하고 몸 밖으로 분리하고, 차단하고, 다스릴(천도)줄 알아야 해결이 됩니다!!

[빙의로 인한 대표적인 증세]
▣ 만성우울증·가위눌림·심한 불면증·공황장애·공포증·심한 불안증세 ·악몽 자주꿈·망자 자주 꿈에 나타남·몸이 매우 무거움·만성피로감 이 심한 경우! ▣ 환청·환각증세 심한경우!
▣ 증세는 있으나 병원에서는 진단이 이상 없이 나오는 경우! ▣ 혼자 중얼거림 심한 경우
▣ 특히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이 빙의와 신기운에 노출되면 인생이 전체가 망가집니다! 반드시 제거 및 벗어나게 해주어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영리하고 똑똑했던 자녀가 어느 시점 이후 갑자기 학습능력 저하, 우울증 걸리고, 방콕하고, 이상행동 하는 경우)
▣ 어느 시점 이후부터 과거와 매우 다른 행동, 습관이 있는 경우(이상행동)!
▣ 병원에 오래 다녀도 낫지 않은 경우 등. ※ 자살충동 심한경우(손목긋는 자해행위 자주함)
▣ 병원에서 낫지 않은(희귀병), 조현병, 분노조절장애, 감정 기복 매우 심함, 묻지마 폭행, 과격한 행동 등
▣ 계속되는 심한 우환, 사고, 줄 초상나는 경우, 매우 심한 가정불화 (의처, 의부증 심함)
※ 애완견 천도 가능, 조류(새종류), 개, 돼지, 소, 닭, 오리, 뱀종류, 구렁이, 어류(장어, 물고기 종류일체), 식물령(큰나무등), 모든 동·식물령 천도가능함

▣ 여러번 천도재, 굿해도 효과 못보신 분 ※ 밤에만 증상이 심하고 밤에 주로 나가는 경우
※ 신병 앓고 있는 분: 신기운 떼어내고자 하는 분 환영!
※ 특히 기도, 수행을 너무 열심히 하시다가 탈(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이 나신 스님, 타 종교인, 성직자, 재가 불자, 일반인(종교와 무관함) 상담 환영 합니다!(비밀보장, 출장 상담도 가능)

▣ 빙의전문의로서 정직과 신뢰와 꾸준한 사후 관리로 빙의 환자와 함께 문제 해결로 집중해 갑니다!
▣ 원격치유가능(환자 직접 오지 않아도 됨) ※육지계신 분 : 당일 정성가능(아침비행기, 오후 비행기) 공항에서 10분이내 거리

49재·천도재 전문도량 전국최고 빙의천도 신기운천도 전문상담원
마음치유·정신건강치유 전문상담원 제주불교조계종금강선원
제주도 제주시 삼무로 47(연동 271-22) 3층 상담문의 : ☎ 064) 746-0789

노재학의 한국산사 목조각 걸작 23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꽃살문

▶ 한줄 요약
한국산사 꽃살문의 백미로 손꼽히는 내소사 대웅보전 꽃살문의 제작 방식은 특별하다. 살대와 꽃조형을 통판투조처럼 일체로 조각했다.



400년 바람에 벼린 해탈의 꽃살문

격자살문, 빗살문, 띠살문, 솟을살문

'창호(窓戶)'는 '창'과 '호'를 합친 말이다. 국어사전에서는 '창과 문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설명한다. 특히 〈명문국어사전〉에서는 '창과 지겟문의 총칭'이라 정의하고 있다. '지겟문'은 또 무엇인가? '창'의 개념은 선명한데 비해 '호'의 개념은 낯설다. '호(戶)'의 갑골문을 보면 외닫이 문처럼 생겼다. 〈명문국어사전〉에서 '호'의 개념으로 설명한 '지겟문'이 외닫이 외짝문이다. 하지만 '호'는 '문(門)'과는 또 다르다. '문'은 대문, 중문처럼 외부에서 외부로 드나드는 경계에 설치하고, '호'는 부엌문이나 방문처럼 외부에서 밀폐된 내부로 드나드는 경계에 시설하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정리하면 이렇다. '창호'는 환기와 채광을 위해서 낸 '창'과 마루에서 방으로 들어가는 '문'을 합친 말로 정리할 수 있겠다.

창호는 외부와 내부의 경계에 낸다. 창호에는 한지로 만든 창호지를 풀칠하여 붙인다. 한지로 만든 창호지는 내부 공간의 대기 순환과 채광을 위한 지혜의 산물이다. 창호지를 붙이려면 바탕 버팀목인 살대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살대는 생선의 뼈처럼 창호의 뼈대가 된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창호지를 창호의 살대 바깥에 붙인다. 그와 달리 한국은 살대 안쪽에 붙인다. 볕이 들면 창호 살대의 구성이 은은히 비춰지고 내부 공간에 따스한 분위기를 불어 넣는다. 창호의 살대 구성은 대단히 기하적이며 전통으로 전해지는 규범성을 가지고 있다. 창호 제작 공정을 보면 문틀인 울거미를 제작한 후 살대를 만들어 조립하듯 울거미에 끼워 완성한다. 살대에는 수평인 씨살, 수직의 날살, 사선의 빗살 등이 있다. 넓은 나무판 문짝에 조형을 뚫어 새긴 통판투조문의 경우는 조형 자체가 살대 역할을 한다. 살대를 엮은 형상과 각도에 따라 창호 종류가 나눠진다. 창호는 크게 날살문, 격자살문, 빗살문, 띠살문, 솟을살문, 특수형, 통판투조문으로 분류된다. 각 창호의 살대 구성과 각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날살문: 90도 날살로만 듬성듬성(▥) 단순하게 구성한다.

△격자살문: 0도 씨살과 90도 날살로 격자(#) 모양으로 엮는다.

△빗살문: 45도, 135도를 이루는 두 사선의 빗살로 엮는다.

△띠살문: 90도 날살을 일정한 간격으로 내린 후, 상단과 중간, 하단 세 곳에 음양의 조화를 생각하며 홀, 짝수 개의 0도 씨살을 엮는다. 씨살, 날살로 엮은 가장 보편적인 창호 형식이다.

△솟을살문: 30도, 150도의 두 빗살에 90도 날살을 더해 엮은 창호다. 때론 격자살과 빗살을 함께 엮기도 한다. 씨살과 날살, 빗살의 조합이고 변주다.

△특수형: 완(完)자창, 용(用)자창, 아(亞)자창, 귀갑문 등 문자나 상형의 특수한 살대를 가진 창호다. 궁궐이나 사대부 민가에서 주로 보인다.

통상 꽃조각은 격자살문이나 빗살문, 솟을살문에 부착한다. 그것이 꽃살문이다. 만약 모란을 부착하였다면 격자모란꽃살문, 빗모란꽃살문, 솟을모란꽃살문이 된다.

내소사 대웅보전은 정면 3칸의 건물이다. 임진왜란 이후인 1633년에 중창했다. 창호에 400년의 시간이 켜켜이 퇴적되어 있다. 창호는 중앙의 어간에 4분합문을 내고, 좌우 협간은 각각 2분합문을 달았다. 정면에 모두 8짝의 문짝을 달았다. 문짝 모두 꽃살문이다. 창호의 크기는 어간 창호가 93cm(가로)×271cm(세로)이고, 좌우 협간 창호는 109cm×271cm에 이른다. 살대 위에 조각한 꽃의 크기는 가로 세로 한 변이 평균 11cm로 측정됐다.

창호는 모두 3단으로 구성했다. 하부는 2단의 궁창으로, 중간은 꽃살문으로, 상부는 금강저솟을살문으로 짰다. 창호 배치는 대칭적이지만 창호에 베푼 조형은 비대칭적이다. 꽃살문끼리의 조화로움을 추구하는 속에서도 저마다의 개성을 살려내고 있다.

'창호'는 채광 '창'과 방의 '문' 합친 말
꽃살문에 평면 채우는 테셀레이션 기법
일체형 꽃살문, 다보사와 내소사 두 곳뿐
단청이 바래고 나뭇결 드러낸 뼈대의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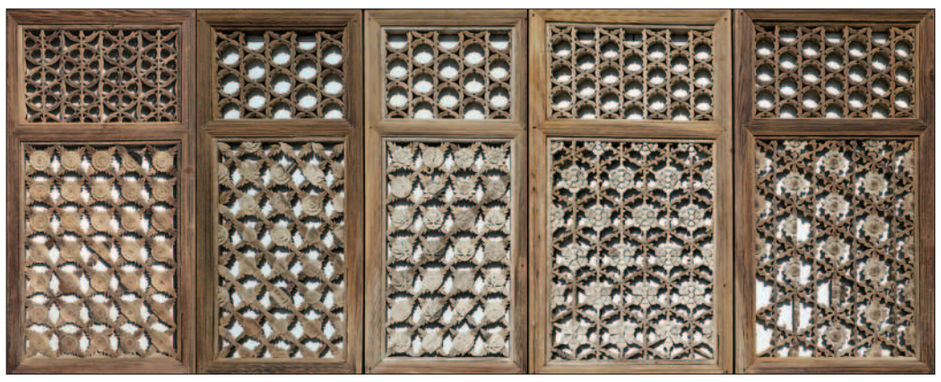
문짝 8곳에 10가지 꽃 조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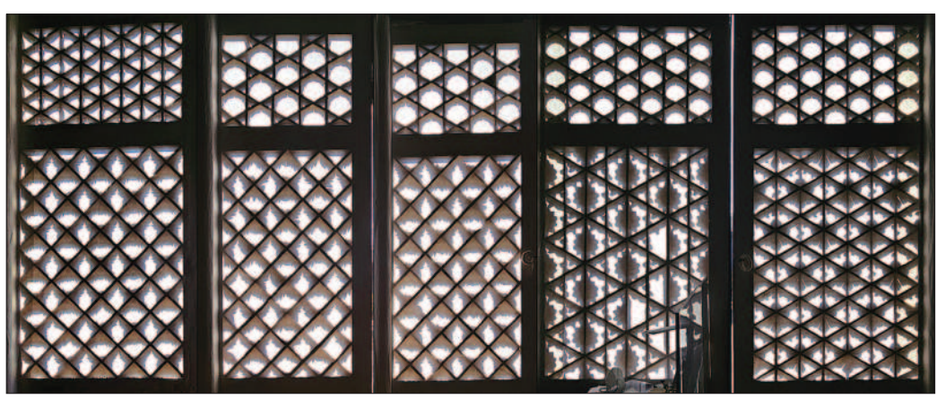
향좌측의 2분합문 협간 창호는 두 짝이 쌍둥이처럼 같다. 둘 다 7행 5열의 국화를 새긴 빗국화꽃살문이다. 마치 빗살문 위에 국화꽃 조형을 부착한 것처럼 보인다. 실제는 꽃과 잎, 빗살 살대 모두 같은 통판재에 일체형으로 조각한 것이다. 살대 모습은 내부에서 창호지에 비친 꽃살문 모습을 보면 정확히 드러난다. 꽃은 한결같이 만개한 상태다. 이 협간 조형의 개성은 상단에 뚜렷하다. 상단은 살대에 금강저 조형을 새긴 솟을금강저문이다. 살대 구성은 두 빗살과 하나의 수직 날살로 짰다. 날살은 두 빗살의 교점을 지난다. 그래서 한 점에서 여섯 개의 금강저가 뻗어나가는 형국이다. 날살에 새긴 여섯 개의 금강저는 면밀하게 짠 하나의 원 내부에서 햇살처럼 퍼져 나간다. 진리의 수레바퀴가 사방 연속한다. 원래 금강저는 번뇌의 싹을 자르고, 무명을 밝히는 진리의 상징 조형이다. 수직 날살을 찬찬히 살펴보면 이 솟을금강저문의 미묘한 조형원리를 파악할 수 있다. 홀수 번째 날살의 금강저는 양변에 모두 뾰족한 끝을 돌출시킨 미늘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짝수 번째 날살은 한 변에만 미늘을 새겼고, 다른 변은 60도 중심각의 부채꼴 원호처럼 둥글게 처리했다. 이 둥근 원호를 가진 여섯 개의 부채꼴이 중심에 있는 하나의 점에서 만나 커다란 원을 만들어낸다. 직선으로 대원을 만들어 내는 놀라운 기하학적 안목이 담겨 있다. 어간과 향우측 협간 꽃살문의 상단도 솟을금강저문이다. 그런데 향좌측 협간 창호의 상단과는 조형원리가 다르다. 이곳에선 수직 날살이 두 빗살의 교점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 변의 중점을 지나게 변화를 줬다. 그리고 모든 날살에 날카로운 미늘과 둥근 원호를 교대로 새겨 육각형에 내접하는 작은 원을 연속적으로 만들어 내고 있다. 날살의 금강저 조형에 미묘한 변화를 줘서 색다른 느낌의 테셀레이션 패턴을 펼치는 경이로운 수리적 감각을 보여준다. 꽃살문에 평면을 무한히 채울 수 있는 오래된 테셀레이션 기하학이 담겨 있다.

중앙 어간의 4분합문 창호는 좌우대칭이다. 모두 빗살문 위에 꽃을 새겼다. 문짝은 넷이지만 두 가지 문양 패턴이 나타난다. 가운데 두 문짝의 문양이 같고, 첫 번째와 네 번째 문짝이 서로 같다. 가운데 두 문짝에는 네 종류의 활짝 핀 꽃을 새겼다. 다른 두 문짝에는 세 종류의 꽃을 새겼지만 한 종류는 아직 개화하지 않은 꽃봉오리 상태다. 어간 4분합문에는 7가지 다양한 꽃들을 리듬감 있게 배치해서 풍부한 조형미를 느끼게 한다. 잎에 선연한 나뭇결이 천연스럽도록 사실적이고 자연스럽다. 꽃의 표정들은 수수하고 해맑다. 꽃 속에 담긴 순한 표정들이 보는 이의 마음을 어질게 길들인다. 꽃을 관상하는데 신심이 고요히 일고 미소가 번진다. 꽃 속에 무정설법이 담겼다.

향우측의 2분합문은 또 다른 변주를 보여준다. 두 문짝에 서로 다른 꽃조각을 새겼다. 빗꽃살문이 아니라 솟을꽃살문이다. 살대 조각도 다른 곳의 잎 조각과는 확연히 다르다. 갈고리 모양의 잎이라 표현하기조차 어렵다. 솟을꽃살문의 살대는 창호 상단의 솟을금강저문처럼 두 가지 패턴으로 제작했다. 하나는 수직 날살이 두 빗살의 교점을 지나는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날살이 두 빗살의 변의 중점을 지나는 유형이다. 이러한 다양한 변화와 반복, 대칭, 비대칭의 조직화가 내소사 대웅보전 창호가 내적으로 가진 가장 뛰어난 점일 것이다. 그것은 꽃살문을 제작한 소목장 장인의 탁월한 안목에서 비롯된다. 내소사 대웅보전 8짝 꽃살문에는 모두 10가지 꽃을 표현하고 있다. 향좌측협간부터 1가지, 7가지, 2가지로 모두 10가지 꽃을 새겼다. 10가지 꽃은 세상의 모든 꽃을 대신한다. 그 꽃들은 세세생생 시들지 않는 장엄의 꽃이며, 환희의 꽃이며, 헌공의 꽃이다.


내소사 대웅보전 꽃살문.


내소사 대웅보전 꽃살문 부분 . 왼쪽부터 1번(향좌측 협간)– 2, 3번(어간 창호)– 4, 5번(향우측 협간).


창호지에 비친 내소사 대웅보전 꽃살문 .

꽃과 잎, 살대를 일체형으로 조각

한국산사 꽃살문의 백미로 손꼽히는 내소사 대웅보전 꽃살문의 제작 방식은 특별하다. 살대와 꽃조형을 통판투조처럼 일체로 조각했다. 꽃살문의 경우 통상 살대를 만들고, 꽃은 따로 조각하여 살대끼리 만나는 교차점에 못으로 박아 부착시키는 방식으로 제작한다. 그런데 내소사 대웅보전 창호의 경우 살대와 꽃을 하나로 조각했다. 두께 6cm가 넘는 넓은 소나무 판재를 구해 깊이 5cm에 이르는 견고한 살대를 투조 기법으로 만든 후 윗면에는 꽃을 새기는 대단히 어려운 기법으로 꽃살문을 제작했다. 살대는 파내는 투조 기법으로, 상부의 꽃은 입체감이 도드라지는 돋을새김으로 조각한 쉽지 않은 제작 방식이다. 살대 없이 통판에 회화식으로 투조한 통판투조 기법보다 훨씬 품이 들고 어려운 새김질이 필요한 고난도라 할 수 있다. 꽃과 꽃잎, 빗살과 솟을살의 살대 모두 한 몸으로 조각한 대단히 드문 사례다. 이 같은 제작 방식은 내소사 대웅보전과 나주 다보사 대웅전 꽃살문에서만 엿볼 수 있다. 두 곳 창호 모두 통판재를 사용했다. 그런데 향좌측 협칸이나 중앙의 어간 꽃조형 몇몇 곳에 쇠못을 박은 것이 뚜렷이 보인다. 통판재로 조각한 꽃살문인데 쇠못 사용은 어찌 된 영문일까? 사방으로 깊이 파내려간 살대 위에 꽃조형을 조각하다 보니 나무 비틀림에 꽃조형이 떨어져 나갈 우려가 있어 쇠못으로 단단히 고정시켜 둔 것이다. 쇠못은 조형 안정화를 위한 일종의 보정작업으로 이해된다.

오랜 세월이 묻어나는 나무 뼈대의 미감은 특별하다. 단청 빛은 바래 사라지고 나무가 서사처럼 간직해 온 나뭇결이 드러났다. 메마르고 수척한 나뭇결이 늙은 아버지 어머니 손등의 주름 같다. 마을 고샅 같고 흐르는 강물을 닮았다. 핏줄 같은 황톳빛 나뭇결에 따스한 질감이 뱄다. 꽃살문에 물리지 않는 자연주의 미감이 고요히 흐른다. 400년 바람에 벼리면서 색과 아상을 여읜 해탈의 꽃살문이 내소사에 있다. 한국산사 꽃살문 걸작이다.

〈사진작가〉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 주 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산수유열매,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복령, 옥수수수염, 천문동, 맥문동, 감초뿌리줄기, 뽕나무뿌리껍질, 창출뿌리줄기, 작약, 황기, 칡뿌리,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를 위해 여주환을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간과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으로 해결하세요. (본초강목)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윤인수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소개합니다
불면증, 어지럼증, 이명(귀울림), 두통, 고혈압, 저혈압, 동맥경화, 만성설사, 목이 쉬었을때, 건망증, 협심증, 위염, 변비, 안면신경마비, 졸음병, 실어증, 삼차신경통, 간경화, 황달, 대상포진, 피부가려움증, 생리통, 생리불순, 다이어트, 귀머거리, 녹내장, 갑상선 이외
총 287종이 수록되어 있음.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열매, 옥수수수염,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토사자, 사상자, 복령,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참당귀, 천궁, 우슬, 오갈피, 두충, 질경이, 산사나무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측백나무, 자소엽, 서목태, 복분자, 삼백초, 참당귀,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솔잎, 녹차잎,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불교인문학살롱

㉓ 오노레 드 발자크의 소설 〈나귀 가죽〉

▶ **문윤정 수필가**는 경북 경주 출생. 1998년 〈에세이 문학〉으로 등단. 저서로는 〈선재야 선재야〉 〈마음이 마음에게 묻다〉 〈답일소〉 〈걷는 자의 꿈, 실크로드〉 〈터키, 낯선 시간에 흐르다〉 〈세계 문호와의 가상 인터뷰〉 외 다수. 지금은 서울교대 평생교육원에서 강의 중.



'나귀 가죽'이란 '탐욕'서 벗어나라

인간의 욕망은 무한대이다. 인간의 욕망을 '밑 빠진 가죽 부대' 라고 부른다. 욕망은 생의 의지로 읽을 수도 있지만, 만족을 모르는 욕망은 파멸을 불러올 수 있다.

감각적 욕망을 행복으로 알고 끝없이 추구하다 결국 죽음으로 끝맺는 그 과정을 그린 장편소설 〈나귀 가죽〉을 소개한다. 〈나귀 가죽〉은 오노레 드 발자크의 작품으로 철학 소설이자 테제 소설이다. 1831년에 출간돼 발자크에게 명성을 안겨준 작품이다.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트가 극찬한 책이며, 숨을 거두기 전까지 손에서 놓지 않았던 작품이다. 프로이트가 죽기 전까지도 〈나귀 가죽〉을 읽었던 것은 자신의 정신분석이론을 잘 담아낸 작품이라서, 또 자신보다 앞선 세대를 살아낸 발자크가 어떻게 인간의 의식세계를 이렇게 명징하게 알고 있었을까 하는 놀라움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나귀 가죽〉의 줄거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삶에 절망한 청년 라파엘은 자살하려고 다리 위에서 센강을 내려다보았다. 자살하려고 난간 위에 선 순간 강변의 헌책방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난간에서 내려와 걷다가 골동품 가게에 들어갔다.

골동품 가게의 주인은 라파엘에게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게 해주지만, 그 대가로 가죽 소유자의 목숨을 그만큼 단축시킨다' 는 신비한 '나귀 가죽' 을 보여준다. 라파엘은 신비한 가죽을 선택하면서 이 세상의 환희와 기쁨과 환락은 모두 즐겨보리라 결심한다.

골동품 가게에서 발견한 나귀 가죽에는 산스크리트어로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다.

만일 그대가 나를 소유하면 그대는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대신 그대의 목숨은 나에게 달려 있게 될 것이다. 신이 그렇게 원하셨느니라. 원하라, 그러면 그대의 소원은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그대의 소망은 그대의 목숨으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대의 목숨이 여기 들어 있다. 매번 그대가 원할 때마다 나도 줄어들고 그대의 살날도 줄어들 것이다.

발자크는 이 나귀 가죽을 부적이라고 표현했다. 주인공 라파엘은 '욕망을 이루는 만큼 자기의 생명은 줄어든다' 는 노인의 말을 듣고도 나귀 가죽을 집어 들었다. 원하는 것은 모두 이루게 해주는 나귀 가죽은 현대판 로또와 같다. 라파엘은 섬뜩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절제하면서 제어하면서 산다면 한평생 나귀 가죽의 덕을 보면서 살아갈 것만 같았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충동본능이 있기에 자기를 다스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이드(id), 자아(ego), 초자아(superego 세 가지로 보았다. 이드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어두운 부분이며, 충동으로부터 나오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 무의식의 세계인 것이다. 이드는 통제되지 않은 정념과 의지, 충동이 발원하는 일종의 저장고로서 하나의 역동적인 실체처럼 간주된다. 이드는 인간 육체의 본질적 차원이자 리비도(성충동) 자체이며 삶의 뿌리라 할 수 있다.

나귀 가죽을 얻은 라파엘은 먼저 으리으리한 대저택부터 짓는다. 대저택은 화려하고 값비싼 물건들로 채워진다. 저택에 하인을 여럿 두고 주지육림(酒池肉林)의 나날을 보낸다. 대저택에서는 날마다 파티가 벌어진다.

무서운 아버지와 마주하고 있으면 언제나 여덟 살로 돌아가는 라파엘은 스무 살 때부터 정신적인 방종을 꿈꾸었다. 그러다 라파엘은 아버지 사촌인 나바랭 공작의 저택에서 열린 무도회에 가게 됐고, 그곳에서 몇몇 사람과 노름을 했다. 처음으로 해본 노름판에서 돈을 딴 라파엘은 도박에 대한 환상을 가지게 됐고, 이 환상은 자신을 파멸의 길로 이끌게 된다.

인간의 폭주하는 욕망을 다룬 소설
로또 같은 '나귀 가죽' 얻은 주인공
평소 억압들을 쾌락을 통해 해소해
방탕의 대가는 자신의 파멸로 귀결
인간의 의식구조 묘사 탁월한 작품

심리학 이론에 의하면 거울단계는 아동이 자기 신체라는 개념을 획득하고 사회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 거치기 마련인 인격발달의 한 과정을 말한다. 거울단계에서 거울 역할을 하는 것은 다양하다. 부모 등 아이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아이가 자기를 인식하게 되는 거울 이미지에 해당된다.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어 있는 거울을 들고 있다면 바른 가치관을 확립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라파엘이 이 경우에 속한다.

날마다 라파엘의 저택에서 벌어지는 파티는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난장판이다. 만취해 시체처럼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 무희들의 광적인 춤사위에 환호하는 사람들의 고함으로 가득한 홀의 풍경은 환멸을 느끼게 한다. 홀에서 펼쳐지는 장면에는 성적본능만이 있는 것 같다.

프로이트는 성적본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랑 관계에서는 사랑받지 못하면 자존심이 떨어지게 되고, 반면에 사랑을 받으면 자존심이 올라가게 된다"라고 했다. 라파엘은 사랑을 통해 자존심이 올라가는 나르시시즘적 리비도를 통해 삶의 환희를 느낀다. 스무 살 때부터 쾌락을 꿈꾸었던 라파엘은 골동품 가게 노인의 충고도 무시한 채 쾌락에 탐닉한다.



오노레 드 발자크(1799~1850). 유럽 사실주의 문학의 창시자이자 '인간 재등장 기법' 을 최초로 사용해 일종의 유니버스를 확립한 대문호로 평가받는다.

어느 날 문득 나귀 가죽이 생각나서 꺼내 보았더니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그의 생명이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죽음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느낀 라파엘은 그제야 방탕한 생활을 멈춘다. 하지만 죽음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나귀 가죽을 통해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음을 확인한 라파엘의 핼쑥한 얼굴은 소름 끼치도록 창백해졌다. 방탕의 대가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됐다. 그제야 노인의 말이 생각났다.

"나귀 가죽에는 당신들의 사회적 이념, 당신들의 멈출 줄 모르는 욕망, 당신들의 무절제, 죽음을 부르는 당신들의 쾌락, 삶을 과도하게 압박하는 당신들의 고통이 들어있네."

노인은 극심한 쾌락은 악과 다르지 않음을 강조한다. 또 "물질세계의 어둠은 가장 온유한 것이라도 항상 눈을 멀게 한다"라고 말했다. 욕망과 탐욕에는 고통과 죽음이 내포돼 있음을 말한다. 욕망은 인간 존재에게 필연적으로 남아있는 결여에 의한 것이며, 채워질 수 없는 것에 대한 불가능한 갈망을 의미한다.

불교에서는 탐진치(貪瞋痴),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삼독이라 해 생을 파멸로 이르게 하는 독에 비유했다. 부처님은 '탐욕의 재앙' 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탐욕이란 어디를 가도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다. 탐욕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어 우리를 절망의 구렁으로 떨어뜨리고, 무서운 재앙을 불러들인다. 바른 지혜로써 그것이 그른 줄 알더라도 평안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면 탐욕에 쫓기고 마는 것이오. 그것이 그른 것인 줄 바르게 알고 탐욕을 떠나 평안의 경지에 이르러야만 탐욕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오."

불교의 궁극적 목표는 고통으로부터 해탈이며 이것은 탐욕의 불꽃을 완전히 끄는 것이다. 탐욕의 불꽃을 완전히 껐을 때 비로소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채워질 수 없는 것에 대한 욕망을 갈애라고 하는데, 갈애는 커다란 괴로움을 야기한다. 또 갈애는 윤회의 고리를 반복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탐욕과 애욕에는 즐거움과 재앙이 함께 하는 것임을 망각하는 것이 무명(無明)이다.

라파엘은 안색이 핏기를 잃어 납빛으로 변하고, 두 눈의 초점은 한 곳에 고착된 자신의 얼굴에서 죽음을 보았다. 그는 욕망이 이루어질 때마다 앞으로 살날을 대가로 치러야 한다는 것을 똑똑히 본 것이다. 라파엘은 나귀 가죽이 허언이 아님을 실감했다.

라파엘은 "백만장자는 바로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사형집행인이다"라고 말한다. 라파엘은 누릴 수 있는 쾌락을 다 누렸지만,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이었다. "감각적 욕망의 행복은 뼈다귀와 같으며, 그것은 많은 괴로움과 많은 절망을 주고 거기에는 재난이 더 많다"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라파엘이 알았더라면 죽음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귀 가죽에는 생성과 소멸, 생명과 죽음이 담겨있다. 소설 〈나귀 가죽〉에는 프로이트가 말한 에로스(Eros, 삶의 본능)와 타나토스(Thanatos, 죽음의 본능)가 담겨있다.

프로이트는 〈쾌락원칙을 넘어서〉에서 생명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이라는 욕구의 이원론을 말했다. 성적본능은 살아 있는 물질의 부분을 통합하고 융합하려는 에로스의 개념이다. 죽음의 본능인 타나토스는 무기적 상태의 재현을 목표로 해서 해체의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개념이다. 욕구의 이원론에서는 인간에게 창조의 본능이 있다면 파괴의 본능도 있다고 본다. 프로이트를 추종하는 프랑스의 정신분석 학자 자크 라깡(Jacques Lacan)은 "모든 충동은 사실상 죽음의 충동"이라고 했다. 그 이유는 모든 충동은 그 자체의 소멸을 추구하며, 모든 충동은 주체를 반복에 관여하게 하며, 모든 충동은 쾌락원칙을 넘어서서 즐거움이 고통으로 경험되는 과도한 향락의 영역으로 들어가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나귀 가죽〉을 한 줄로 요약하면 ' 과도한 욕망과 애욕은 삶을 파멸로 이끈다 '는 것이다. 주인공 라파엘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자신이 꿈꾸었던 감각적 쾌락과 방탕한 생활이었다. 인간의 욕망은 뫼비우스의 띠처럼 에로스와 타나토스가 함께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나귀 가죽은 현대판 로또와 같다. 로또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발자크는 강력하게 어깃장을 놓고 있다.

불교에는 깨달음으로 가는 지침서이자 괴로움을 소멸로 인도하는 팔정도(八正道)가 있기에, 불자들은 욕망에 빠져 허우적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02-578-1708 강남점 (도곡동 467-24)
010-7384-1708 김영숙 대표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평안한 하루 휴심침향

침향의 향기는 예로부터 향로에 피우는 것만으로도 천지인의 기감을 깨닫는 묘약이라고 하여 정신세계를 맑게 하며 상기된 신체의 이완과 심신의 안정을 취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비사 '휴심침향'은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안전 확인을 받았습니다. 휴심침향을 만드는 모든 과정은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 천연재료를 숙성하여 수작업으로 제조한 제품입니다.
법당, 기도처, 요가·명상처, 가정, 사무실 등 다양한 곳에서 피울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인증제품 : 코드번호 FB22-12-0233



종합향

■ 문의전화 : 033-375-2100
010-9245-2357
■ 주 소 : 강원 영월군 주천면 황산벌길 157-6
■ 홈페이지 : ok114.co.kr/0333752100
■ 계좌번호 : 농협 351-1101-8874-03

• 종 합 향 : 100.000원 • 선향 大 : 70.000원
• 불 향 : 80.000원 • 선향 小 : 30.000원
• 가루향(도향) : 70.000원 • 침향비누 : 15.000원



종합향


선향


불향



가루향 & 침향비누

마음은 끝없는 빛의 공간



지안 스님의 〈능엄경〉 강해

⑮ 상음(想陰)의 구우(區宇)

〈원문〉 "아난아, 삼마지를 닦다가 수음(受陰)이 다한 자는 비록 번뇌가 다하지는 못했으나 마음이 그 형상을 떠난 것이 새가 새장을 벗어난 것과 같아서 이미 범부로부터 위로 보살의 60 성위(聖位)를 지나고 의생신을 얻어 가는 곳마다 걸림이 없으리라. 비유하건대 어떤 사람이 잠을 자다 잠꼬대를 하되 잠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말을 하지만 그 말이 음운이 또렷하여 곁에 깨어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말을 알아듣게 하는 것과 같나니 이를 상음(想陰)의 구우(區宇)라 하느니라. 만약 움직이는 생각이 다하고 들뜬 생각이 없어져 깨달은 밝은 마음이 진로의 때를 제거하면 나고 죽는 생사의 자초지종을 환히 비추나니 이것이 상음이 다한 것이니라. 이 사람은 곧 번뇌탁을 초월하게 되느니라."

〈강해〉 고도의 삼마지(禪定)를 닦는 중에 마음이 형상(몸의 구조적 한계)을 벗어나는 것이 새가 새장을 벗어난 것과 같다는 비유가 나왔다. 수음(受陰)이 다한 경지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때 이미 〈능엄경〉에서 제시하는 수행의 지위 점차(地位漸次)인 60계위(六十階位)를 지나 생신(意生身)을 얻어 자유로운 왕래를 하게 된다고 하였다. 의생신이란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생각으로 만들어지는 몸을 말한다. 뜻(意), 곧 의식에 의하여 생기는 몸이다. 범어 마노말야(摩奴末耶 :Manomaya)를 음사(音寫)한 말로 의성신(意成身)이라고도 한다. 이 대목에서 말한 의생신을 얻는다는 것은 분단생사(分段生死)를 하지 않고 변역생사(變易生死)를 한다는 뜻이다. 수음(受陰)이 다했으므로 수음의 속박을 벗어나 생각대로 시방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보살이 중생을 교화 제도하기 위한 원력이 있을 때 변역생사를 하여 제도할 중생이 있는 곳으로 간다고 한다. 중생들은 자신이 지은 업인(業因)을 따라 태어나 신체적 환경의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수명의 제한이 있다. 삼계(三界), 육도(六道)의 중생들이 대부분 분단생사를 한다. 변역생사는 삼계 밖의 생사로 분단생사를 바꾸어 비원(悲願)의 힘으로 받는 생사다.

수행의 목적을 '생사해탈'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불교는 한마디로 해탈사상(解脫思想)이다. 이 말은 깨달음(覺)이란 키워드와 같은 뜻이다. 마치 악몽에 시달리던 사람이 잠이 깨어 악몽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다. 괴로움을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고 열반인데 상음이 다하면 그 근사치에 이른다는 것이다. 상음(想陰)의 구우(區宇)를 잠꼬대에 비유하여 말했다. 잠꼬대가 꿈에서 나오는 것이며 자신은 모르고 하는 말이지만 곁에 깨어있는 사람이 있을 때 잠꼬대의 말 음운이 분명하여 정상적으로 알아듣는다는 말이다. 몽경(夢境) 속에 내 몸이 있다면 그것도 의생신에 속한다. 범부와 불·보살의 경우가 다르지만 죽은 망자(亡者)를 영가(靈駕)라 부를 때 그 영가도 일종의 의생신으로 본다. 또 부처님의 천백억 화신도 의생신의 영역이다.

상음(想陰)이 결국 생각이기 때문에 상음이 다하면 오탁(五濁) 중에 번뇌탁(煩惱濁)을 초월하게 된다고 하였다. 〈능엄경〉에서는 오탁이 소멸되는 것을 오음이 하나하나 다하는 것에 배대(配對)하여 설명한 것이 특징이다. 또 음(陰)이 다할 때 단계적으로 빛이 난다는 것도 〈능엄경〉 특유의 표현이다. 마음이 빛(心光)이라고 하는 말은 〈화엄경〉 〈법화경〉 등 대승경전에서 자주 하고 있는 말이다. 또 선게(禪偈)에도 심월(心月)이니 광탄(光呑)이니 하는 말이 나온다. 〈능엄경〉에 의하면 선정을 닦는 것은 마음속의 빛을 개발하는 것이다. 마음속이 빛이 통째로 드러난 것이 법신 비로자나불이다. 광명변조(光明遍照)라 번역하듯이 마음이 끝없는 빛의 공간이라는 말이다. 중생의 번뇌는 심광(心光)을 차단하는 것이다. 겁탁을 초월하면 빛의 세계가 열리게 된다. 그래서 무량수(無量壽), 무량광(無量光)의 부처님 세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정토수행의 아미타불 명호가 바로 무량수 ·무량광의 뜻을 가지고 있다. 영원한 생명의 빛을 따라가겠다는 서원으로 '아미타불' 염불을 하는 것이다. 방편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염불이지만 실제는 자기 마음의 빛을 개발하는 자성염불(自性念佛)인 것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32진로 수행 통해 권능 갖춰



구선 스님의 〈묘법연화경〉 강의

㊺ 4, 5번째 삼각형

한물건이 맺히면 하단전을 중심으로 삼아서 중심과 중극을 삼각형으로 연결한다. 손가락으로 수인을 짓는다. 그런 다음에 중심과 하단전을 수직으로 연결하고 중극과 하단전을 사선으로 연결한다. 이 라인은 연결해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에너지의 집약이 강력하게 이루어진다. 중심에서 중극으로 숨을 들이쉰다. 숨을 내쉬면서 중극에서 하단전, 중심에서 하단전으로 동시에 내려간다. 세 기점을 삼각형으로 연결한 다음 한물건에 집중한다. 한물건에 머물러서 중심과 중극을 연결하고 있는 삼각형의 내부 공간을 들여다본다. 간, 비장, 담, 췌장이 함께 순화된다. 세 번째 삼각형을 운용해서 배꼽과 하복부의 상(像)이 갖추어진다.

네 번째 운용 경로는 하단전, 명문, 중극 경로이다. 명문의 쿤달리니에너지와 중극의 교감신경 에너지, 척수액의 슈슘나에너지, 하단전의 부교감신경 에너지를 운용하는 경로이다. 자율신경계를 순화하는 기능이 있다. 32진로 수행을 통해 권능을 갖추게 된다. 하나의 경로가 열릴 때마다 거기에 따른 권능이 생겨난다. 몇 개의 삼각형을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식의 발현이나 자기 활용의 범위가 달라진다. 중생이 부처님의 형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 가야 할 수행이다.

수인을 짓는다. 옴자 발성으로 하단전과 명문, 중극을 함께 울려준다. 중극의 교감신경 에너지가 명문의 쿤달리니 에너지와 합쳐지고 하단전과 명문 사이에 열기로 이루어진 터널이 생겨난다. 명문의 쿤달리니가 하단전의 한물건과 서로 반응하고 한물건이 명문으로 이동한다. 명문에 머물러서 꼬리뼈순화를 행한다. 투쟁심과 경쟁심을 제도한다. 한물건에 집중한 상태에서 명문과 중극을 연결하고 있는 삼각형을 올려다본다. 삼각형의 내부 공간을 마음 거울로 삼아서 안팎으로 접해지는 경계들을 비추어본다. 이 경로의 운용을 통해 허리부의 상(像)이 갖추어진다.

다섯 번째 경로는 황정, 명문, 회음 라인이다. 이 라인을 통해서는 꼬리뼈 순화를 마무리하고 채약을 이룬다. 한물건이 하단전과 명문 사이를 내왕하다 보면 어느 지점에서부터 툭툭 걸리는 느낌이 생겨난다. 그러다가 어느 때부터 신장과 한물건 사이에서 서로 당기는 느낌이 생겨난다. 툭툭 걸리던 자리에 한물건을 안착시키면 신장으로부터 선천기가 표출된다. 신장의 선천기와 한물건이 합쳐지면 한물건이 뜨겁게 달아오른다. 그 자리가 황정이다. 황정이 세워지면 명문과 회음을 삼각형으로 연결한다. 수인을 짓는다. 황정, 명문, 회음을 연결하는 삼각형을 인식한다. 명문과 회음 라인을 주시하면서 꼬리뼈에서 일어나는 증상들을 지켜본다. 엄청난 냉기가 표출되고 경쟁심이나 투쟁심, 욕정이 일어난다. 삼각형으로 비춰준다. 꼬리뼈에 내장되었던 업식들이 제도되면 황정과 회음 경로를 연결해놓고 삼각형의 내부 공간을 주시한다. 양기가 동하면 그 느낌을 삼각형으로 비춰주고 욕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그러다 보면 회음부에서부터 쩌르릉하는 자극감이 생겨난다. 회음부가 자극되면서 황홀감에 빠지게 된다. 이때의 황홀감은 전립선과 두정부 피질이 반응하면서 생기는 현상이다. 시각적으로도 특이 증상이 나타난다. 시야가 온통 백색 빛으로 채워지기도 하고 꽃잎이 휘날리는 듯한 현상을 보기도 한다. 이 현상은 시상 내섬유막이 자극되면서 생기는 것이다.

이런 현상들도 삼각형의 내면으로 비춰준다. 회음부에서 올라온 자극감이 황정과 합쳐지면 황정이 또다시 뜨거워진다. 그 상태도 삼각형으로 비춰본다. 이것이 다섯 번째 경로를 운용하면서 채약을 하는 방법이다.

〈영양 연화사 주지〉



지흠 스님의 〈능가경〉 강설

㊺ 망념

보고 듣고 말하는 것에 속지 말아야

'무엇이 부처입니까?' 이 말이 떨어지는 순간 아주 깊은 곳에서 눈물이 핑 돌면서 예전에 한 번도 인식하지 못한 감격이 일어야 하지만, 무엇을 감격해야 할지 모르니 다른 말들이 아무 소용없어진다. 이 말 이전이야 그 놈의 집 앞마당이었으니 선뜻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놈이 저절로 자신의 앞마당에서 나와 목을 내밀어 주니, 그때가 단번에 목을 벨 기회가 생긴 것이다. 그러나 그때 그 놈의 목을 벨 용기를 내지 않고, 주춤하면서 기회를 놓치면, 엉뚱한 방향으로 수행을 하면서 목이 저절로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되겠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만약 '무엇이 부처입니까?'의 물음이 진심을 다하여 얻었다면, 그는 말에서 분명 자신의 근원을 보겠지만, 그저 지나가는 말처럼 던졌다면, 어떠한 답에도 반응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동안 '나'라는 이름의 사용처가 어디인지를 모르고, 그저 앞에 나타난 그 모습에 다른 이가 붙여준 나 아닌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알고 있었으니, 돌아가고 싶겠지만 돌아갈 방법을 모두 잊은 탓에 기약이 요원할 뿐이다.

수억 겁을 생멸한다고 누가 나의 진짜 이름을 불러주는 것도 아니니, 허송세월이 참으로 안타깝고 안쓰럽지만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다. 유일한 나의 일은 그가 가장 싫어하는 말을 해야 하니, 서로가 다른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그로 살아온 육신을 그가 아니라 해야 하고, 그가 열심히 일궈낸 모든 것들을 그의 것이 아니라 해야 하고, 살아오면서 어렵게 쌓아온 명성과 존재감조차도 그가 아니라고 말해야 하니, 누가 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누가 이 말의 뜻을 알고, 누가 이 말에 기뻐하고 좋아하면서 같이 춤을 추며 이야기꽃을 피우겠는가!

모두가 자신을 찾아 떠나겠지만, 누구도 자신과 대면한 사람을 만날 수 없으니, 세상에 돌아다니는 불필요한 문장과 언어에 속아 시간을 보내더라도, 나중에는 누구에게도 원망할 수 없으니, 당장 쓸모없는 행위는 멈추고, 불필요한 것은 버리고, 고요히 앉아, 자신이 주워 모은 것들이 자신의 늙음과 병듦 그리고 죽음에 대해 무엇을 해결해주었는지를 보면,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근심만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항상 바르게 움직였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었고, 언제나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실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 처음의 출발이 실수인 줄을 알아야 움직여서 되는 일이 아닌 줄 알게 되지만, 처음부터 구하는 것으로 앎을 얻으려 한다면, 아무리 많은 생을 살더라도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일일 뿐이다.

그렇다고 단지를 던져 부숴버리면 된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 채우는 것도 병이지만, 부수는 것도 병일뿐이다. 지금 있는 그대로 변함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에는 내가 따로 그것에 대해 사유할 것이 없음을 알아야 하니, 그 사유할 것이 없는 바른 사유는 다시 다른 견해를 내지 않게 한다. 그렇지만 만약 조금이라도 그것에 대한 다른 상태를 생각하거나 사유하게 되면, 그는 목이 달아나는 꼴이지만 목이 날아간 줄은 모를 것이다. 목이 날아가고 수행에 진전이 있기를 바라겠지만, 어찌 송장이 살아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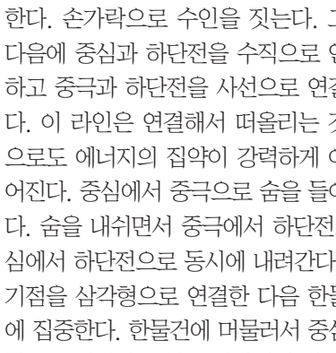
수행을 통해 얻어지는 것보다 모름에 대한 믿음이 더 현명할 수 있으니, 지혜가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간택 없이, 답답함을 숨겨 놓은 보물처럼 여기고, 인내하여야 밝은 태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조그마한 지견에 마음을 움직이면, 모든 일에 법으로 대입하는 잘못된 견해를 만들게 되니, 항상 조심하여야 한다. 삼계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일에는 어떤 사람에 의해, 법이라 말할 수도 없고, 법이 아니라 말할 수도 없으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하는 자를 자세히 알아야 속지 않게 되고, 보고 들은 생각들이 일시에 안개처럼 사라지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괴로움이 내가 존재하지도 않은 이미지를 가짐으로써 생긴 것이라 알고, 부족함이나 어떤 상태가 바르게 처리되지 않아 생긴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사찰에 난무하는 눈탱이!

삭발에 가사장삼을 입은 스님을 보는 일반업자들의 시선들! .... 세상 물정에는 좀 어두운분들이겠거니 하며 눈탱이 염불시설들로 가득채움 눈탱이 : 속은 비어있는 그럴듯한 동남아 부품으로 가득채워 바가지를 씌우는 시설업자들의 비속어로 스님들은 여기에 거의 속음



눈탱이 시설의 표본

눈탱이 시설의 결점

1. 다루기 복잡하여 고장이 잘남 (A/S 불가)
2. 복잡한 기능으로 소리 기능이 분산되어 저질소리
3. 또한 염불이 힘들면 성대 질병과 스트레스 누적
4. 법당서 본사 견본과 법당 제품과 양손의 마이크로 스님 자신이 성능비교시 장난감 소리차이 확인

■ 본사 제품 : 마이크는 이태리 숍스제품, 디지털앰프 스피커는 MADE IN KOREA 확인

※ 특징 : 앰프 다루기 1초, 남해의 토굴부터 설악 신흥사 설법전까지 2천여 시설동안 단 한곳도 고장이 없었음. 명산대찰의 수천만의 시설과 소리비교시 장난감 성능차이(반드시 확인) 가격 기존시설과 $\frac{1}{3}$ 차이 확인, 앰프 스피커 최신디지털

▣ USB겸용 디지털앰프 법당스피커 2개, 법당 밖 스피커 2개, 스피커 4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시설가격 190만원부터~ 무한대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가격 ₩ 69만원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시중에 없음



가격 ₩ 80만원



최신 디지털 앰프 USB겸용 유·무선겸용 마이크 4개 동시사용
대형스피커 8개까지 연결가능



염불전용스피커
장엄하고 은은한 소리재생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로 화답!

가격 ₩ 80만원



국내 최초

한국스틸 고건축

스틸 대웅전 스틸한옥 누각 산신각 박물관 공용화장실
안내소 전시장 문중제실 한옥인테리어 종각

국내 최초 법명사 스틸 종각

초파일 산신각 특별 할인 판매 가로 2500/세로 2200=1500만원

(석가래 부연 스틸기와 내부상단 한옥문 바닥장판 전기 기본)

저렴한 금액 편리한 유지보수 화재에 강함 간단한 조립구조

문의 010-5023-5050

2023년 12월 6일 수요일 | 불기 2567년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04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462호 | 21 | 전면광고

그 성질이 인자하고 부드럽고 온화하면
현인이나 우인이나 모두 따르고,
탐심 많고 거칠면
사람도 짐승도 모두 멀리 떠난다.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 대지 : 200평
- 건물 : 법당 60평, 외전각 3채
- 주변 : 시내산 및 주차가
- 매가 : 35억
- 경기분당포교원
- 8층 건물에 8층 • 128평에 전용80평
- 역세권, ev. 주차가, 옥상사용
- 매가 : 15억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승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대형 천년사찰터 다량 보유
부전 등 절집소임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사찰(급)안내

스님 병환으로 급매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6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 대지 : 6백평, 임야 : 3천 6백평
- 건물 : 대웅전 55평, 공양실 35평, 종무소 10평, 요사 30평
- 천연 지하 석수 1일 200톤 이상
- 가액 : 9억

010-6764-0034

사찰(급)안내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대지 143평 (현재 운영중)
- 가액 : 9500만원 (조정 가능)
- 법사님 일반인 무속인 인연맺습니다.
- 사찰, 굿당 등 활용 가능 문의



010-4180-1788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해남군 계곡면
- 대지 : 350평 • 가액 : 4억 5천
-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 건물 : 약85평 (법당 요사채) (건물 3층 180평까지 증축 가능)



010-7710-8334

사찰(급)안내

- 위치 : 창원시 소재
- 부지 : 약 50여평
- 법당 : 30평
- 요사채 : 30평 (종무소1층)
- 가액 : 3억원(절충가능)
- 특징: 도심 번화가에 위치한 사찰로 포교지로 적지입니다.

*스님 건강상 때문에 모든집기 다 드립니다.

010-3190-8113

사 찰 안 내

- 위치 : 마산 합포구 교방동
- 임대 : 보증금 500만원 / 월세 10만원

밀양으로 확장 관련 현 가람 임대 놓습니다. 암 말기 환자 치료한 기운이 있는 곳입니다.

010-3132-9666

건 물 안 내

- 위치 : 부산시 북구 시랑로 118
- 4층 건물 (1층 33평 법당, 2층 24평 종교시설, 3층 20평 주택, 4층 15평 주택)
- CCTV 4대 설치
- 가액 : 4억원

010-9881-7363

사 찰 안 내

- 위 치 : 부산 동구
- 다가구주택 6가구 포함. 3층 건물
- 법 당 : 부처님 삼존불
- 매매가 : 3억8천만원

몸만 오셔도 됩니다.

051-634-3366

사 찰 안 내

- 위치 : 동해시
- 여법한 목조건물(법당30평, 산신각, 주지실, 요사채, 공양간, 창고, 주차장) 동해시와삼척 중간지점으로 포교 최적지임 / 인근에 휴양지 근접 (추암, 망상, 증산, 삼척해변)
- 원력과비젼을 가진분께 양도함
- 주지스님의 건강상 가액은 시세 이하로 협의합니다.
- 좋은 인연을 기대합니다

010-9279-4542

암 자 안 내

- 위치 : 익산시 삼기면 석기길 익산시내에서 10분거리
- 토지 : 160평
- 건물 : 법당30평외 2동
- 동불보살님 3분과 탱화 및 살림 포함가능
- 가격 : 1억1천만원 (다른곳 소임문제로 급매매)

010-3676-4788

현대불교신문 구독안내

전화 한번에 끝!

자동이체로
전환하세요

(02)2004-8212

신문을 구독하시면 생활안내 · 불자정보
(사찰, 포교당 양도및 기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akao Ch 카카오톡 채널에 현대불교신문 검색

NAVER 현대불교신문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사 찰 안 내

- 위치 : 통영
- 규모 : 380평 (법당 30평 및 요사채 공양간)
- 가액 : 4억 5000만원

010-9456-050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옥종면 궁항리 삼신봉 주산
- 면적 : 약 360평
- 법당 : 20평, 산신각, 요사채, 공양간, 창고, 화장실(2개)
- 해수관세음보살상 : 7m
- 많은 꽃과 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사찰 옆에 작은 폭포와 개울이 흐르고 있습니다.
- 매매가 : 1억 1천만원 (비품대 미포함)

010-2807-050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멋진사찰 (급) 안내

- 위 치 : 경상북도 영천시
- 대 지 : 약 175평
- 건 물 : 법당 1동 25평(단청) 산신각 1동 약4~5평
- 요사채 : 1동 약 25평 1동 약 25평, 2층 약 6평
- 가 액 : 2억 3천만원(절충가능)

건강상의 이유로 시세 이하로 계산합니다.

010-3007-561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사찰
- 대지 : 120평
- 건물 : 건물외 부속건물 약 30평
- 난방 : 태양열 시설이 되어있음
- 가격 : 1억 2천만원 (절충가능)

010-5436-580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 411-1, 411-2
- 매매금 : 3억원
- 올수리, 사찰 장엄 완료, 250평

010-3618-6061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젠 인터넷 뉴스사이트 현불뉴스 hyunbulnews.com에서도
불자정보·생활안내를 생활안내
찾아보실 수 있어요

NAVER 불자정보·생활안내 검색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보세요

'생활안내'
'불자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04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462호 | 22 | 전면광고

여래의 가르침을 항상 보물처럼 소중히 여겨 항상 읽고 외우고 생각하고 삶 가운데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너희는 언제나 행복하리라.

부처님 말씀 읽기 - 《반니 원경》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보존회 학인모집

1. 염불 ·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전통문화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점 연구원

• 미래 현재 과거 점 보는 법
• 타고난 팔자는 바꿀 수는 없고, 좋은 팔자는 만들 수 있다 !
• 사주팔자 풀이 잘 안되는 분, 쉽게 풀이하는 법 전수
• 예) 명리 육임 육효
• 하늘, 땅, 나, 삼합 보는 법
• 준비물 없음
• 토화사 삼봉법사

010-3750-8555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GTN
손도사
책50권 저술출간함
세계1등 운명상담
010-5105-5000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제,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 010-5270-8260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탈 종 공 고

• 사찰명 : 관음사
• 주 지 : 향적 스님 (속명 : 노원향)
• 주 소 : 전북 남원시 보절면 관음사길 82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한국불교태고종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와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나를 닦는 백팔배(백팔대참회문)

The Sound of Life
생명의 소리 CD

특가 12,000원

'절이란 참으로 진지하게 나를 닦는 방법입니다!'

"모든 생명을 지극히 내안에 모시고 살림의 장을 확산해 나가는 생명과 평화를 위해 108배를 올립니다"



1. 절을 하는 마음 낭송 (01:17)
2. 나를 닦는 108배 낭송과 음악 (37:39)
3. 명상음악 "영혼의 피리소리" (05:40)

연주 – 김영동 (대금, 단소, 훈)
삽입곡 –
대금독주곡(즉흥연주)
단소독주곡(즉흥연주)
영가1 – 자연의 소리
영가2 – 자연의 소리
수제천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 본 지면의 생활안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효민의
서도로 새기는 경구

㉑ 牧牛家風(목우가풍)



소처럼 묵묵하게

牧牛家風(목우가풍), "말과 행동을 절제하며 소처럼 묵묵하게 정진한다"는 뜻이다. 여기에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말(言)과 행동(行)이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 속에 복이 들었는지 독이 들었는지, 선인지 악인지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내뱉고 그 언어에 뒤이은 행동 역시 충분한 생각 없이 하는 경우가 많다.

언어의 혼란스러움과 그 언어를 따라 나오는 행동들, 혼란스럽기만 한 현실 속에서 '절제'라는 단어를 떠올린다. 묵묵이 정진하는 것. 말을 정제(精製)할 수 있고 우리들의 행동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한 해를 되돌아본다. 나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부처님 제자로서의 내 마음을 다스려 봤는지? "부처님 법 전하자"는 요즘, 나는 불자로서 말과 행등을 절제하며 소처럼 묵묵히 정진했다고 할 수 있을까? 올바른 부처님 제자로서의 모습을 갖추며 계묘년을 잘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 나무석가모니불

〈서예가〉



하성미 기자의
心 心 talk talk

⑤ 완벽주의, 불가능에 속다

현악기 다루듯 마음도 조율 필요

우민(가명) 씨는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교로 복학하기 앞서 심각한 불안 증상을 호소하며 상담실을 찾았다. 그는 비죽하게 마른 몸에 얼굴은 광대뼈가 불거질 정도로 홀쭉하고 마른 인상이었다. 키는 180㎝가 훌쩍 넘어 보였고 외모에서 무언가 아슬아슬한 위화감이 느껴졌다. 소소한 질문을 할 때에도 그는 잠시 머뭇거리며 답을 하다가 이내 말소리가 줄어들었고, 한참 침묵한 뒤 눈치를 살피듯 고개를 들어 쳐다보았다.

그는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항상 살피게 되고 무엇이 맞는지 몰라서 자신감이 없다"고 했다. 그는 어릴 때 무엇이든 제대로 해내야 직성이 풀렸다. 간단한 과제를 학교 선생님이 내주면 다른 친구들은 10분 만에 풀고 노는 것도 그에게는 한 시간이 넘게 걸렸다. 실수한 것이 없는지 재차 반복해서 확인하고 과제 종이를 선생님이 억지로 거두어 갈 때까지 그는 다시 확인했다. 그뿐 아니라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도 제대로 어울리지 못했다. 말을 해도 될지 확인하고 어렵게 타이밍을 찾으면 화제가 전환되어버렸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신경이 곤두서있고 작은 지적에도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우민 씨는 극도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완벽주의적인 그의 사고패턴은 불안, 강박으로 나타났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는 위축감에 머물게 했다. 완벽주의는 도착지가 없는 마라토너 같이 느껴진다. 너무나 높은 기준과 이상을 목표치로 두었기에 아무리 노력해도 도달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을 '예정된 실패자'라고 부른다. 존재하지 못하는 것을 갖고자 하기에 우울하고 초조하다. 높은 기준은 도달할 수 없기에 언제나 그들을 부족한 사람으로 만든다.

완벽주의는 사실 한 가지 차이로 '건강한 완벽주의'와 '신경증적인 완벽주의'로 나뉜다. 한 가지 차이는 바로 '현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건강한 완벽주의자는 성공의 기준을 현실에 바탕을 둔다. 그들은 성취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실패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성취를 즐거워한다. 그들은 높은 성취 욕구를 가지면서도 현실에 기반을 두기에 도달이 가능한 목표로 달려간다. 그래서 그들의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있다. 또 목표를 성취한 후에 누리고 즐거워하며 자신을 칭찬한다.

신경증적인 완벽주의는 세상이 온통 흑백이다. 옳지 않으면 그른 것이고 좋지 않으면 나쁘고, 최고가 아니면 쓸모없는 쓰레기다. 또한 엄격하고 경직된 사고로 벽을 마주한 듯한 느낌이 든다. 일반적인 성취를 이뤄도 그들은 기뻐하지 않는다. 이유는 자신의 기준에 비교하면 하찮기 때문이며 도달한 성취는 별로 의미가 없다.

완벽주의가 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수치심(shame)'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심리학에서 수치심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단순한 부끄러움과는 차이가 있다. 수치심은 자신을 평가하는 감정이며 복잡한 사회적 기대로 만들어진 시선에 얽매여있다. 사회는 멋진 사람, 좋은 엄마, 좋은 연인, 능력자 등등 여러 미디어 및 교육 등을 통해 만들어진 이미지를 만들고 사람들은 반드시 이뤄야 할 기준의 이미지를 스스로 만들어 이상화한다. 스스로에게 강하게 요구하며 반드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유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인정과 사랑 때문이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 완벽주의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수행자가 나온다. 책 〈고타마 붓다의 생애〉에 비구 소나 콜리비사는 지나치게 정진하고 경행했다고 표현되어 있다. 소나 콜리비사는 구족계를 받은 후 시타바나 숲(중인도 마갈타국 왕사성 북쪽 공동묘지)에서 수행을 했고, 경행을 했던 장소는 마치 도살장처럼 피로 뒤덮였다. 부처님은 급히 그곳을 찾아 피로 뒤덮여 있는 것을 보시고 여러 스님들에게 왜 이렇게 도살장처럼 피로 뒤덮여 있는지 물었다. 비구들은 "붓다시여, 소나 비구가 너무 열심히 정진해 경행하던 발이 터져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답했다.

부처님은 소나 비구가 머무는 곳으로 가서 비파의 현(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부처님은 소나에게 비파의 현이 팽팽하거나 느슨하면 연주하기에 어떠한지 질문하며 중도에 대한 비유를 전한다. 비파의 현이 너무 팽팽해도 느슨해도 소리가 나지 않는 것처럼 지나치게 정진하면 마음의 상태가 흥분 속에 들뜨게 되고, 지나치게 느슨히 정진하면 나태함에 빠지게 된다고 부처님은 말했다. 부처님은 소나 비구에게 악기의 현을 조현(調絃)하듯 균형을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부처님이 소나에게 설법한 내용은 현재 정신분열증을 다르게 부르는 의학 용어 조현병의 시초가 됐다. 정신분열병이란 말이 주는 의미가 마음이 분열되고 제대로 기능하지 못

발에 피가 나도록 수행한 비구 소나
신경증적 완벽주의가 건강 해치게 돼

한다는 뜻으로 사회적으로도 불편한 편견을 만들고 치료 시 어려움을 안게 만들었다. 환자들과 가족들의 요청으로 조현병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처럼 마음을 조율하는 것은 중요하다. 현악기의 조현처럼 중요하고 세심해야 하고 의도를 확인해야 한다. 완벽주의자의 마음에는 근원적으로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며, 사랑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다가 좌절되면 자신을 비난하거나 자기를 혐오한다. 반복되는 굴레 속에 갇힌 듯 괴로움이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이 때 부처님께서는 현을 조율하고 고르듯 멈춰서 살피기를 요청했다. 이것이 또 다른 의미의 중도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간다. 이 생각들을 차분히 살펴보면 사회적으로 요구받고 있는 환상들이 기대치가 되어 사람들의 존재 가치를 평가한다. 수치감을 연구해온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이런 기대치를 '사회공동체적 기대'라고 불렀고, 이에 영향을 주는 가장자리에는 미디어가 있다고 했다. 수치심의 문화는 TV와 광고, 마케팅에 의해 강화된다고 정의했다. 자신의 마음을 균형 있게 조율하기 위해서는 악기의 소리를 잘 들어야 조현이 가능한 것처럼, 자신의 사랑받고 싶은 욕구와 있는 그대로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짓된 사회공동체적 기대를 잘 알아차리고 내려놓아야 한다.

*사례는 내담자 보호를 위해 취지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리했습니다.

일일시호일

혈액암 치료비·약값 눈덩이에
생계도 막막

어머니 심장병 해결하고자 한국 온 미얀마 이주민 테민앙씨
림프종 혈액암에 1년 넘게 생사기로…수술비만 400만원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마음책 다시 읽기 명상 100문 100답 ❻ 상황별 명상의 실천법 上

▶ 한줄 요약
우리가 외국어 공부를 할 때 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정해놓고 어느 정도까지 하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하듯, 명상도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상하려는 이유·방식 점검은 '필수'



명상은 지루한 것?

흔히들 명상은 지루하고 따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눈을 감고 조용히 앉아 있는 모습도 그렇고, 자신이 직접 앉아서 해보는 경우에도 이걸 왜 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상이 지루하고 따분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명상은 어떤 대상에 대해 집중하는 훈련이자 노력입니다. 그러면 왜 집중하는 것이 지루하고 따분한 걸까요? 우리가 공부할 때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제가 나오면 우리는 이미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즉 이미 아는 내용을 다시 보는 것은 재미가 없어 따분해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전혀 모르는 내용이 나오는 경우 아예 관심을 가지지 않거나, 반대로 집중을 해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따분해 하며, 이것이 반복되면 공부를 그만하게 됩니다. 아는 내용은 알기 때문에 따분하고, 잘 모르는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따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명상을 할 때도 명상의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거나, 명상을 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 명상에 대해 지루해하거나 따분해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요한 것이 명상의 필요성에 대한 동기부여입니다. 자신이 왜 명상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명상은 다만 졸리고 지루하고 따분한 것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명상을 하고자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이를 정리한 후 종이에 적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건강상의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심리적 안정의 필요성이 있어 하고자 하는 것인지 등등 명상을 하는 이유가 어느 정도 명확해야 합니다.

만약 명상에 대해 어떤 선입견을 가지게 되면 명상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외국어 공부를 할 때 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정해놓고 어느 정도까지 하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하듯, 명상도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명상의 특성상 너무 애쓰게 되면 오히려 명상이 힘들게 느껴지고, 결국 명상을 안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명상을 하고자 하는 이유와 명상을 실천하는 방식을 미리 정해놓고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상 방법 등에 대해서는 명상 지도자의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자신이 행하는 명상에 대해 계속 지루하고 따분함을 느낀다면 명상 방법을 바꿔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좌선과 같은 정적 명상에서 걷기명상과 같은 동적 명상으로 바꾸거나, 정적 명상 중에서도 명상의 주제를 바꾸면 상대적으로 덜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상 방법을 바꾸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명상이 지루한 것은 대상에 대한 흥미가 유발될 정도로 집중력이 향상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초보자의 경우에는 한 가지 방법에 익숙하기도 전에 다른 방법으로 바꾸다 보면 명상의 참맛을 못보고 쉽게 포기해버릴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숙달되어 집중력이 향상되면 극복되는 현상이므로 참을성을 갖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폐활량 적은데 호흡명상 되나요?

호흡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숨이 끊어지면 죽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항상 호흡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인지 모든 명상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호흡을 이용한 명상입니다. 굳이 정적 명상에서 호흡명상을 따로 하지 않더라도 동적 명상에서도 호흡의 역할은 아주 중요해서 호흡조절을 하게 됩니다. 명상뿐만이 아니라 운동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미터 달리기 선수나 양궁선수의 경우 모두들 경기 시작 전에 심호흡을 통해 호흡을 조절합니다. 우리는 숨을 통해 안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호흡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호흡을 통한 명상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호흡을 하고 그 상태에 마음을 두는 순간만큼은 우리의 생각이 방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과거나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근심하지 않으며 몸과 마음을 이완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한 감기처럼 호흡기질환이 심한 환자의 경우 증상이 심할 때 비강이나 기도가 좁아져 숨을 쉬기 어려우므로 자신의 신체와 마음을 조절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느 정도 호전이 되면 호흡을 통해 자신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명상이 따분하다고 생각되는 건
명상하는 목적 분명치 않기 때문
한 가지 방법 익숙해지기 전에는
명상 방식 바꾸지 말고 유지해야

따라서 호흡명상시 폐활량이 적은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호흡기질환이 아주 심해 숨을 조절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우리는 보통 때 우리가 숨을 쉬는 사실조차 잊어버립니다. 나아가 호흡명상을 하게 되면 호흡수와 맥박 등이 오히려 평소보다 줄게 됩니다. 몸이 이완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자연스럽게 호흡이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폐활량이 적은 것과 호흡명상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폐활량이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인해 호흡명상을 할 때 불편하다고 느껴 의도적으로 호흡을 조절하고자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생각조차 호흡명상시 일어나는 잡념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심한 호흡기질환과 같은 질병이 아니라면 우리는 호흡을 통해 우리의 심신을 충분히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호흡명상시 숨을 쉬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 걱정하면서 너무 애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연스런 호흡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호흡명상에 익숙해지면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호흡명상을 통해 우리의 심신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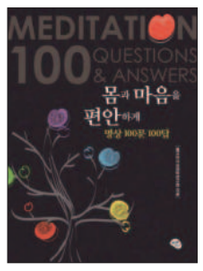
명상 중에 졸음이 쏟아지면?

명상을 시작하는 초보자의 경우 초기에 좌선과 같은 정적 명상을 할 때 졸음이 쏟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졸음이 오는 것은 생리적 현상이므로 꼭 무엇을 잘못해서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졸음은 특히 식사 후 소화를 위해 피가 위장 등에 장기에 몰릴 때 더욱 심해집니다. 또한 과로, 과음 등으로 몸이 피곤한 때 명상을 하면 바로 졸음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보통 불교명상에서는 명상 중 찾아오는 졸음 등에 대해 혼침이나 해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혼침이란 무기력하게 가라앉은 마음을 뜻하며 몸과 마음 모두를 무겁게 하여 활기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졸음이 오는 경우가 혼침에 해당합니다. 해태란 명상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데 만약 피곤하지 않은데도 명상 중에 자꾸 졸음이 온다면 내적으로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상태이거나 명상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약해져서 졸음이 온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명상 시 계속해서 졸음이 오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졸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상은 대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집중하는 고도의 정신활동이므로 몸이 그다지 피곤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대상에 집중하다보면 몸과 마음이 흐트러지면서 자신도 모르게 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때 자신 졸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후 자신의 몸을 살펴보면 대부분 자세가 흐트러져서 허리가 굽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졸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허리를 곧추세워 자세를 바로 잡은 후 심호흡을 몇 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를 바로 잡은 후에도 계속 졸음이 온다면 살짝 눈을 떠 빛이 들어오게 하는 것도 간단한 방법입니다. 명상의 대상을 바꾸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즉 자신이 집중하고 있는 현재 명상의 대상에서 다른 대상으로 옮겨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졸음이 온다면 천천히 일어나 동적 명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적 명상의 경우 자신이 주로 하고 있는 명상이 좋습니다. 대체로 걷기명상이나 스트레칭 등 몸을 쓰는 명상이 이에 해당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일을 하면서 명상을 해야 하는 현대인의 경우 하루에 특정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명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상할 때는 느닷없이 찾아오는 졸음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적 명상의 경우, 식사 직후보다는 식전과 같이 공복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음을 했거나 잠을 잘 자지 못해서 피곤한 경우라면 명상을 할 때 졸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때에는 무리하게 명상을 하기 보다는 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명상 도중 잠깐 졸음에 빠지게 되면 오히려 푹 쉰 것처럼 심신이 상쾌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졸음이 오는 경우 잠을 잘 것을 권유합니다. 단 마음속으로 미리 깨어날 시간을 정해놓고 잠을 자는 것이 후에 마음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저 : 박성식(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 사상체질과 교수) 외 12명 / 올리브 그린 펴냄〉

안내 **이번 호에 게재될 예정이었던 기획연재 '박태수의 알아차림의 파워'는 필자의 사정으로 연재가 종료됐습니다.**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 편집자〉 ●보낼곳 :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462 호 현대불교
2023년 12월 6일(음 10월 24일) 수요일 / 불기 2567년

내가 묵묵히 한 발짝 떼어 놓을 때 그게 법이 돼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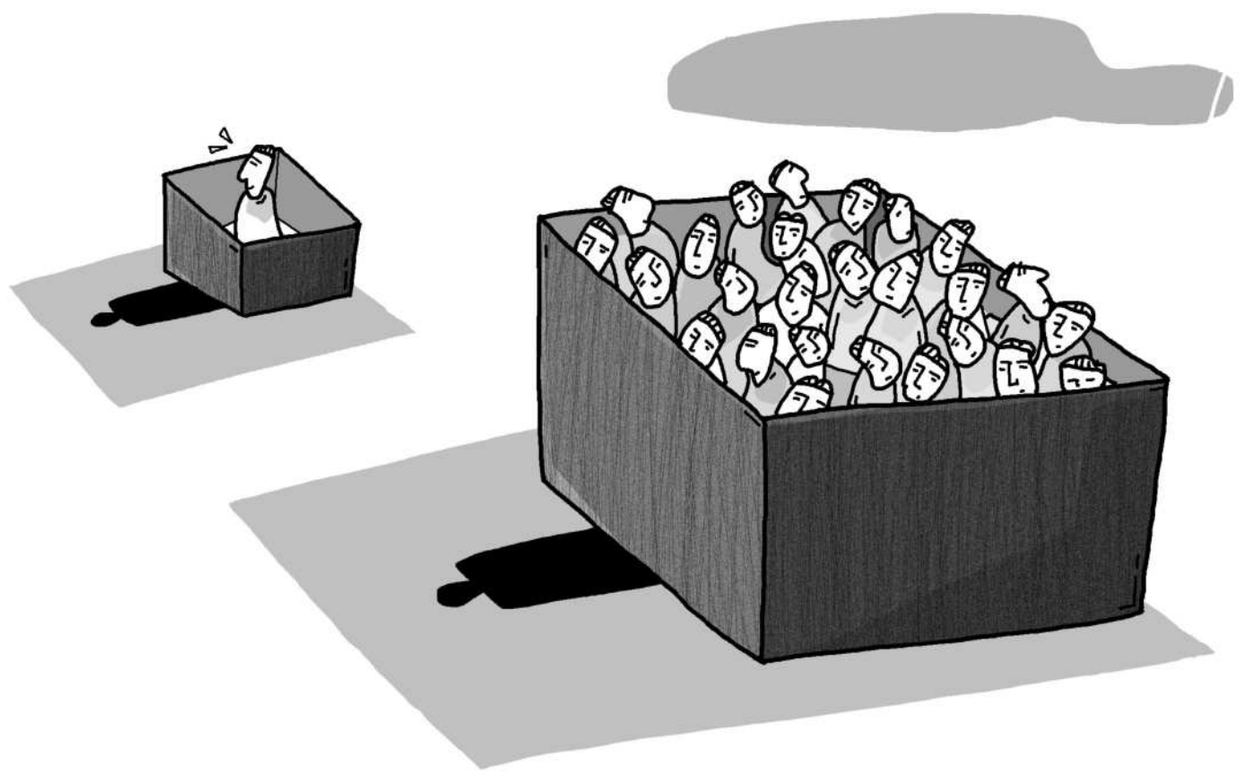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여러분이 자성 삼보에 귀의한다고 하시죠? 그 이름만 들어도 자성 삼보라는 그 뜻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나의 움죽거리지 않는 근본과, 움죽거리지 않는다 하면은 또 이상스럽게 듣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수레가 돌아가도 중심이 끼워진 주 중심 봉은 움죽거리지 않습니다. 힘만 배려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힘만 배려해 준다 이겁니다. 움죽거리지는 않는다. 수레가 돌아갈 뿐입니다. 그와 같이 인간의 근본도 부동자세한 그 뜻으로서의 힘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을 배출하는 반면에 우리는 시공을 초월해서 고정됨이 없이 항상 찰나찰나 화하면서 바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보에 귀의한다는 거, 그 움죽거리지 않는 힘을 배출해 줄 수 있는 그 자(自)의 근본에서 마음을 내는 것이 법이니까요. 마음을 내는 것이 법입니다. 자성 삼보라는 것이 불법승, 그리고 승은 움죽거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움죽거린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자기 자성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정혜는 어디에 붙어 돌아가는가. 자성 삼보에 귀의했으면 바로 자기가 행할 수 있는, 들이고 내는 행을 어떻게 해야만이 계라고 할 수 있을까. 항상 제가 이런 말을 하죠. 들이고 내는 것도 네놈이고, 움죽거리는 것도 네놈이요, 보는 것도 네놈이요, 듣는 것도 네놈이요, 가고 오는 것도 네놈이요, 똥 싸고 밥 먹는 것도 네놈이요, 자는 것도 네놈이요, 모든 게 일거수일투족이 다 네놈이 하는 거다. 나무가 바로 제 뿌리가 있기 때문에 제 나무가 있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움죽거리는 게 전체가 다 그러하니 모든 거를 즉 정에다가 모아야 진짜 정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계향' 할 때에도 그렇고 '계정혜' 할 때도 그렇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자신에게 누가 되지 않게 첫째는 해야 하는 것이 부처님 도량에 누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고, 은사나 사제 사형한테 또 누가 되지 않는 겁니다. 스님네들은 물론이요,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자 누가 되게 한다면 가정이 다 누가 되게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한 가정에 한 사람이 누가 되게 한다면 가정이 전체가 누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까지도 자식까지도 말입니다.

그러하니까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도 잘 들어오든 못 들어오든 내 탓으로 돌려라.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 일어난다 하더라도 내 탓으로 돌려라. 남편을 원망하지 말고 아내를 원망하지 말고, 자식을 원망하지 말고 부모를 원망하지 말고 모든 거를 내 탓으로 돌려라. 왜냐하면 내가 못났든지 잘났든지 내가 이 세상에 났기 때문입니다. 내 탓으로 돌려라 하니깐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야 내 탓으로 돌리지." 이렇게 말씀들 하시겠지만 내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는 것이지, 내가 없다면 무슨 상대가 있을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탓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거를 내 탓으로 돌려서 깊은 마음속에다, 근본에다가 놔서 그게 입력이 돼서, 다시 입력이 된 게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법이요, 그냥 머리로 생각해서 나오는 대로 지껄이는 것은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음 도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주 입이 무거워지고, 말이 적어지고, 그렇게 하면서도 이 안으로 매사를 굴려서 거기다 맡기기 때문에 입력이 돼 가지고 다시 현실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법이 되니까 그대로 걸림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정신계를 거쳐서 물질계로 나오니까 그것은 걸림이 없지만, 물질계에서 물질계로 그냥 나간다면 그건 항상 걸리고 사고가 생기고 이탈을 하게 되고 망종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고 하니 온통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다 대치를 하시렵니까? 여러분이 이 마음 하나를 잘 해서 안으로 굴려서 바깥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법신이 되신다면 그 생활은 물론이거니와 여러 가지로 편리한 점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 세상 일체 만물만생이 이심전심으로써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몸속에도 천차만별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이 수억겁을 거치면서 진화해서 창조됐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 몸속에 바로 지나간 세월의 자기 모습들로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습이니만큼 그 모든 물질적인 생물들이 나 아님이 없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공법(空法)에…, "보이지 않는 공법에" 이러는 건 여러분이 육안으론 볼 수 없는 이런 세계 속에서 항상 그게 통신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 자기만 아는 비밀이 있다고 하지만 비밀은 없죠. 물질세계에서는 그 비밀이 있다고 하지만 무의 세계에서는 비밀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밀이 없기 때문에 비밀이 없는 그 자기가 하나하나 해 나가는 그 자체가 바로 자동적으로 입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계향에 의해서 모두 첫째, 안에서 일어나는 거나 바깥에서 용도에 따라 들어오는 거나,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나, 모두 자식 부모지간에 일어나는 거나 모든 걸 거기다가 입력을 해서 스스로 나오게 만들어야 화목해지고 한마음으로 돌아가지, 거기다 넣질 않고 그냥 입으로 "어유, 저놈의…, 차라리 얼른 돌아가셨으면 좋겠어!" 이러죠? "어유, 저놈의 자식! 저거 차라리 눈에 안 띄었으면 좋겠어." 이러는 말이 선선하게 나가죠.

이거는 과거로부터 쭉 인연을 맺어서 온 모두 한 가족인데 그렇게 해서 됩니까? 그럭한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모두 안에다가 입력을 해서 바깥으로 물질세계로 나와서 둥글게 응용하도록 이렇게 한다면 모두 그게 법이 돼서 여러분을 지켜 줄 거고, 여러분 길이 험악하더라도 험악지 않게 되고, 어떠한 게 걸림이 오더라도 걸리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 그렇게 하신다면 정향이 됩니다. 한데 모아서 심봉을 완전히 뿌리를 박았기 때문에 어디 내세워도 흔들리지 않게끔 돼 있습니다. 첫째, 계를 안으로 잘 지켜야만 되지 내가 바깥으로 아이고, 지키려고 아무리 해도 오계도 못 지켜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깥으로 떠돌게 된다면 이거는 정에 들지를 않아요. 이 중심이, 심봉이 완벽하게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들이고 내는 데에 손상이 오죠.

이 뿌리가 완전히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나가시는 데에 어떤 게 닥치면, '아이고!' 하고 겁이 턱턱 나고 그냥 안절부절을 못 하게 되죠.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그렇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자식들의 일이 일어나는 것도 그렇고, 부모의 일이 일어나는 것도 그렇고 그냥 갈팡질팡을 하죠.

그러면 이 주인공 찾는 것도 말입니다, 그냥 아리송하게 되죠. "그거 불러 봤던들 그렇더라." 이러구요. 하 참 내, 기가 막혀서. 하하하. 그러니 말입니다, 이게 (가슴을 짚어 보이시며) 완벽하게 서서 자리를 완벽하게 잡아야 들이고 내는 대로 입력이 되고, 입력이 되면은 바로 즉시 현실로 나오고 이렇게 되죠. 이게 돌아서 말입니다. 그런데 머리로다 굴려서 아는 건 아는 게 아니거든요. 실천을 한 발짝도 떼어 놓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발버둥이 치죠.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도 모르고, 그냥 지금 내가 무엇을 어떻게 중심을 잡아서 하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거를 대치할 수 있는지 그것조차도 아리송한 거죠. 그래 가지고야 어떻게 이 우주를 삼킬 수 있는, 과거 현재 미래 삼천대천세계를 삼킬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초발심에서 내가 완전히 완벽하게 자리를 잡아야죠.

☞ 26면으로 계속



이 세상 일체 만물만생이 이심전심으로써 다 연결돼 있다

☞ 25면에서 계속

사람들 사는 것도 그래요. 내가 집을 지어서 그 안에서 살면서 완전히 자리를 잡아야 가정이 화목하고 다 편리하고 식구들도 다 편리하게 살 수 있지, 가정이 자리가 잡히지 않았는데 어떻게 화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듯이 내 몸속의 생명들도, 중생들도 다 한마음으로 자리가 잡혀야 이게 뿌리가 내리고, 뿌리가 내려야 바로 여유가 있게 유유하게 열매를 맺고, 바로 거기에 무르익어서 그것을 남들을 다 주고, 주면서도 항상 거기에 중심은 되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불종자가 되남아 있기 때문에 근기로써, 모든 지혜로써 들이고 내는 데에 손색이 없고, 그렇게 돼야만이 이제 정에 들었다고 합니다.

정에 들면 이 뿌리가 완벽하게 내렸기 때문에 바로 어딜 가도 내 자리요, 누구를 봐도 나 아님이 없음이요, 어떤 아픔을 봐도 내 아픔 아님이 없음이요, 어떠한 벌레를 봐도 내 생명 아님이 없음이요, 모든 것이 나 아님이 없으니 어찌 자비가 그 속에서 안 나오리까 이겁니다. 가짜 사랑이 아니라, 껍데기 사랑이 아니라 아주 진실한 자비! 그 자비만이 들이고 내고 안에서 내고 들이고, 여러분도 항상 그렇게 생활하시고 계시죠? 보면 생각나고 생각나면 움죽거리고, 이게 들이고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들이고 낼 때에 지혜로운 마음으로 들이고 내느냐, 아까 말대로 말입니다. 지혜롭지 못하게 머리로 그냥 굴려서 작용을 하느냐, 들이고 내는 데 지혜롭게 작용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천지차이입니다, 이게.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그랬습니다. 왜? 새하고 둘이 아니기 때문에요. 내가 새가 된다면 새가 그냥 가만히 내려서 앉죠. 내가 그렇게 내려앉고 싶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공부를 못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를 본다 하더라도 그렇고 우리 지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혹성들도 많죠. 또 우주는 우주대로, 은하계의 모든 별성들의 때가 다 지나면은 껍데기가 저절로 떨어지고 알맹이만 추려서 바로 블랙홀이 생산을 하죠. 이 모두가 사람이 살고 있는 섭리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문제냐.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 도리를 공부하시게 된 것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도 아니 되고 하기 싫어서 아니 해도 안 되는 이러한 도리에 벌써 이 천지 간의 이치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너, 이 공부를 해서 모든 걸 대치해라.' 이런 소임을 여러분한테다 준 것입니다. 이게 그냥 의도적으로 그냥 우연히 이렇게 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건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게 된 인연들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거를 어떻게 대치를 하느냐. 안에서 내 가정에서 내 몸과 가정과 모든 내 자녀들과 부모와 모든 이런 대치를 할 수 있는 그 마음과 더불어, 내 몸뚱이 속에 있는 이 생명들도 다 한마음이 되고, 모두 한마음이 됐다가 벌어지면 입자로 화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조절하죠. 또 어떠한 문제가 생겼어도 모두 대치하고 말이에요. 의사가 될 때는 의사가 되고, 관세음이 될 때는 관세음이 되고, 지장이 될 때는 지장이 되고, 칠성이 될 때는 칠성이 되고, 용신이 될 때는 용신이 되고, 지신이 될 때는 지신이 되고, 마음대로 거기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입자도 똑같은 그 위치로 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대로 그냥 모두가 천차만별로 갈라져서 활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이 완벽하게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 자성 삼보가 계 정 혜를 어떻게 해야만이 이게 완벽하게 돼서 해탈, 해탈지견향까지 이르게 되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거 현재 미래 이 삼세를 우리가 뒤로 돌아가려면 돌아갈 수 있고, 앞으로 가려면 갈 수 있고, 현재도 공해서 어떤 걸로라도 내가 될 수 있는 그런 여래가 돼야 이 우주의 태양력이나 모든 문제들, 지구 저 태양 모두, 달이나 별성들이나 우주 블랙홀, 그 별성의 문제들도 대처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일 큰 별을 블랙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왕벌 하나가 알만 자꾸 까고 그 결의 벌은 전부 그 왕벌 하나를 따라서 다 살듯이 그런 거죠. (중략)

여러분이 다 잘 아시죠. 지구의 지형이 벌어졌다가 오므라졌다가 다시 방향을 바꾸고 이렇게 지형이 변경이 된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알죠? 이 변경이 되는 것도 순조롭게 잘 리드해 나가면서 변경이 된다면 이거는 걱정이 없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살아 있기 때문에 움죽거린다는 겁니다. 흙도 살아 있고 물도 살아 있고 돌도 살아 있고, 다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움죽거리는 거는 하다못해 일본이라든가 어디 중공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어디든지 어떠한 손색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사람이 숨을 쉬고 살 수 있게끔 어떤 게 변경이 된다 하면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지마는 멸망한다는 소리는 그건 있을 수가 없지 않으냐. 멸망 자체가, 아니, 말이 거기에 붙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지수화풍이 전부 불종자인데 어떻게 멸망이 됩니까? 우리가 애당초에 생명이 생긴 것이 지수화풍으로 생겼는데 지수화풍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생명이 생겨서 이렇게 나무도 생명들도 이렇게 생겨 가지고 진화돼서 사람까지 됐는데, 바탕이 없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멸망이 됩니까,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 멸망이다 하는 것도 우리 마음공부 하는 분들이 다 이렇게 넓고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금성이나 화성이나 또는 목성이나 천왕성이나 이런 데는 전부 생명체가 없죠. 없다고 하죠? 그러나 물이 있거나 흙이 있거나 하면은 바로 그것이 공기를 일으켜서 생명체가 생기게끔 돼 있습니다. 아주 펄펄 끓는 물이라고 해서 생명이 없는 게 아닙니다. 펄펄 끓는 물이 있어서 흐르면 흐르는 대로 완화되고, 종합이 되고 또 이게 한데 합쳐져서 생명이 생기게끔 돼 있는 거죠.

이 모두가 이렇게 심오하고 광대한, 이 법을 불법이라고 하죠. 이 불교라는 단어가 얼마나 광대하고 미묘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종교가 다르다고 이게 머리 깎은 사람만 불교라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체 벌레로부터 물, 뭐 지수화풍이 더불어 전부 다 불(佛)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불입니다. 불 아닌 게 하나도 없지요, 풀 한 포기까지도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자라면서, 자기가 자라면서 살아가면서 '아휴, 참 이건 아쉽다. 요건 요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진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올라왔구요. '난 서서 다녔으면 좋겠다.', '난 제대로 먹을 만한 걸 못 먹고 이렇게 사는 것도 참 힘들다.' 해서 모두 여러분이 서서 꼬리를 뗀 채 다니지 않습니까? 그 꼬리가 붙었던 자리는 아마 모두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드러내고 살던 그 모습들이 여러분 육체 안에 다 들어 있을 겁니다. 아주 생각하면 심오하죠.

그래서 아주 흰 사람이 있고 붉은 사람이 있고 또는 검은 사람이 있고 누런 사람이 있고 이런 것도 지역에 따라서 다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스스로서 다 지역별로 분포되어 살고 있고, 이 사과도 큰 거 작은 거 썩은 거 골라 놓듯이 끼리끼리 모이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지망년도 당하는 거죠. 왜냐하면 굵은 거는 추리고 썩은 거는 모두가 퇴비로 들어갈 테니까 말입니다. 다시 해서 다시 나오게 되니까, 용광로로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게 그렇게 어느 지역이 전부 타 죽게 생겼다, 굶어 죽게 생겼다 이러는 원인도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냉정하게 판단한다면 말이에요. 불쌍하게 만든 것도 자기네들이요, 불쌍하게 된 것도 자기네들이요, 다시 용광로에 들어가서 재생이 되는 것도 자기네들입니다. 아주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런 데서도 추리는 거지요. 다시 추려서 다시 넣고, 다시 재생해서 나올 때 아, 여기로 갈 거냐 저기로 갈 거냐 이렇게 추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는 그냥 그대로 세상 변동이라고 하고 우리가 그저 닿는 대로 돕고 이렇게 살지마는,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그렇게 된 것도 당연하지, 뭐.' 이렇게 하질 마시고, 이런 거를 이렇게 알았으면 더 불쌍히 생각해서 더, 만약에 강도라 할지라도, 도둑놈이다 할지라도 도둑질을 왜 하게 됐느냐는 거죠. 강도질을 왜 하게 됐느냐부터 알아서 불쌍히 생각해서 선처를 베푼다면 다시 요다음에 태어날 때는 아주 과감하게 큰 인물로다가 태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배고파서 죽는 데를 보시를 해서 보낸다거나 위문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각자 이렇게 하죠. 그런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주적으로 이게 지구가 망하면 다른 데도 다 지장이 있고, 다른 데도 다 한번 뒤집어져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종이 많으면 많은 대로 또 갈라서 살고 이러면 되지, 넓은 데로 가서 살고 그러면 되지 아, 그러한 요량이 없어 가지고야 어떻게 이 세계를 대치해 나가겠습니까? 그리고 세계인으로서 연구를 해서, 이 마음 세계의 연구로써 다 어떠한 거든지 대처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도 이제는 집이 헐어져서 우리가 보수를 해야 할 텐데 보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수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보수를 못 한다면은 속수무책으로 그 집이 헐어져서 우리는 죽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의 도리가 아니라면 보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할래야 할 수도 없고 또 보수를 하고도 에너지가 없어서 어떻게 살아나가느냐는 거죠. 우리 마음의 도리가 아니라면 허공에서 에너지를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러면 어떻게 그 도리를 알아서 하느냐? 이런 것도 우리는 과학자들한테 과학자들이 내가 돼서 연구를 하게끔 베풀어야 합니다.

즉 말하자면 마음은 체가 없어서 백도 되고 만도 되고 천도 되고 이렇게 그 개수가 따로 없이 사람이 열이라면 열 개도 되고, 백 개라면 백 개가 되고, 만 개라면 만 개가 되고 이렇게 분류돼서 천차만별로 되는 거니깐요. 그래서 이름 없이, 함이 없이 하는 법이 이 법입니다. 그래서 딴 사람이 연구를 하더라도 연구하는 사람에게 모두 그렇게 배출시켜 주고 베풀어 준다면은 그것이 눈을 뜨게 하고, 다리를 한 짝 못 들었던 거를 들게 해서 걸음을 걷게 하고 눈으로 보게 하고 이런다면 한계 없는 이 세상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미묘한 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모두 "못 한다, 못 한다. 우린 그렇게 되면 멸망해서 죽지." 이렇게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멸망해서 죽을 테니깐 우리 굴이나 파고 들어가자." 하하하. 그냥 몇 달 먹을 거, 몇 해 먹을 거 가지고 들어가서 우리나 살자 이러면은 벌레밖에는 못 됩니다. 땅속에 사는 벌레밖에는 못 돼요. 그리고 땅속도 땅속입니까, 어디? 지구가 어떻게 생긴 건데, 지금 공중에 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땅속으로 들어가 봤던들 위냐 아래냐 이것도 없는 건데 거기 들어가 봤던들 뭘 합니까? 거기 들어가면 살 것 같습니까? 하하하. 만약에 지구가 망가진다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소한, 죽기 싫어서 소소한 생각은 마시고 영원한 참다운 나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고, 영원한 참다운 나가 있어서 종자 하나를 가지고도 세계를 다 먹이고 그 종자가 되남아서 또 세계를 다 먹이고, 영원하도록 먹일 수 있는 그 광대한 법을 우리가 체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한 걸 종합해서 말씀드린다면요, 이 공부를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바깥으로 끄달리지 말고 안으로, 바깥으로 끄달려서 이론적으로 다 안다고 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묵묵히 한 발짝을 떼어 놓을 때에 그게 법이 돼야 하고, 그게 실천에 옮겨져야 됩니다. 이게 그런 공부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우주에 관한 건도, 우리 지구에 관한 건도, 우리 세계적인 건도 모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모두 안에다가 입력을 해서 바깥 물질세계로 나와서
둥글게 응용하도록 이렇게 한다면
그게 법이 돼서 여러분을 지켜줄 것이고
어떠한 걸림이 오더라도 걸리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5년 12월 17일 정기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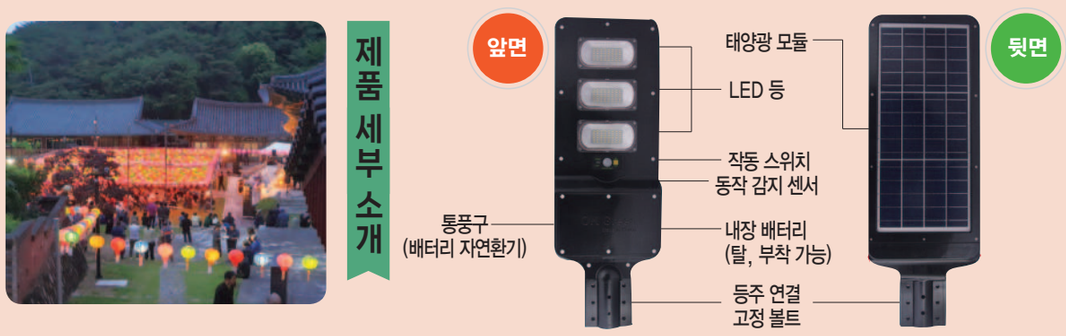
사찰고급연등
자동승하강시설
사찰경내외에
전선없는 파동식
가로등·장엄등
설 치

각 사찰 법당 및 경내외 연등설치 공사를 주요 업무로도 하고 있습니다.

시공전 / 시공후







제품 세부 소개

가까운 불교 전문상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상점문의및 안내
가야기획 02-379-2400 010-5340-7941

자동 승 하강장치 설명

자동 승 하강 장치란 기존 또는 신축법당에 설치하여 연등을 편리하게 위 아래로 조정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자동 승 하강장치의 장점

1. 발원 등표 교체가 편리합니다.
2. 법당이 넓고 화려해 보입니다.
3. 법당 내 구조와 면적에 맞게 제작하기 때문에 연등의 오와 열이 확실합니다.
4. 반영구적이며 사후관리도 책임집니다.

자동 승 하강장치 시공시 많이 하는 질문

시공사가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안전성입니다. 시공전 현장 방문하여 현장 수치에 맞는 도면 작업 후 연등 개수와 무게를 측정하여 현장에 맞는 수치를 계산하여 계산치의 최대 용량에 60%를 넘지 않도록 튼튼하게 시공합니다.

세계 최초로 개발된 파동식 가로등

어둠을 밝히는 자비광명 가로등은 경내외에 전기공급 없이 자체 발전으로 켜지는 가로등입니다. 자비광명 가로등으로 경내외에 큰 공덕의 자비불사에 동참하시어 소원성취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가로등불빛아래 풍경을 달아 불사에 동참하신분들의 성함을 넣어서 달아드리니 오랫동안 기도와 소원을 이루리라 사료됩니다.
귀 사찰에 귀감이 되는 불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 특별기고 |

坐化와 불교사 속 스님의 마지막

정운 스님
前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현태 선사 열반 전날 장작 쌓아놓고
열반일 유게 남긴 뒤 불에 뛰어들어
근대 고승 허운 스님의 제자 '구행'
수행 매진하던 중 '좌화' 뜻 밝히고
불 붙여 化去… 법구서 향기 풍겨나

입적한 스님을 미화하자는 게 아니다
불교사서 '좌화' 승려 있음을 밝힐 뿐
세간 관점서 스님 입적을 가십화 말라

올해 내 나이 65세,
지 · 수 · 화 · 풍 4대는 허공으로 산산이 흩어지려 한다.
도는 그윽하고 현묘하나니
거기에는 부처도 없고, 조사도 없으며,
머리 깎는 귀찮은 일도 없고,
목욕하는 수고로움도 없네.
이제는 한 덩어리 사나운 불길만이 남아 있을 뿐,
나는 이것으로 충분히 만족한다네. **-〈경덕전등록〉**

위의 게송은 당말 10세기 무렵, 선사인 남악 현태(南嶽玄泰, 석상경저의 제자)의 열반게송이다. 현태 선사는 숲속에서 홀로 고고하게 수행하다가 열반하셨다. 열반에 들기 전날, 그가 머무는 토굴 앞에 장작을 산더미처럼 쌓은 뒤 다음 날 앞 유게(遺偈)를 남긴 뒤 불 속에 뛰어들어 스스로 입적했다. 이렇게 현태 스님처럼 불속에 화(化)한 승려들의 내용이 〈고승전〉 '망신편(亡身篇)' 과 〈보림전〉에 전한다.

근대 중국에서도 이런 스님이 있었다. 허운(虛雲, 1840~1959) 스님의 제자인 구행(?~1924)이다. 허운이 운남성 계족산 축성사에 머물 때, 구행은 지주의 횡포를 견디다 못해 가족과 함께 사찰로 들어왔다. 구행은 사찰에서 부목으로 일한 몇 년 후 출가하면서 '구행(具行)' 이라는 법명을 받았다.

하루종일 밭에서 일하면서도 염불을 게을리 하지 않았고, 밤에는 부처님과 경전 앞에 예배하며 잠을 줄여 수행했다. 그의 행주좌와 어묵동정 삶의 곳곳에서 면밀하게 아미타불과 관음보살을 지송했다. 구행은 사찰의 어떤 어려운 일에도 앞장섰으며, 몸 사리지 않는 보살 정신에 대중이 모두 좋아했다. 이렇게 일자무식이던 구행은 〈금강경〉 〈약사경〉 〈정토경〉 〈관음보살보문품〉 등을 전부 암송했다. 허운은 대중법문에서 구행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비록 '아미타불' 한마디만이라도 열심히 염송하면, 반드시 도를 이룬다. 그런데 자신의 총명함만 믿고 염불하지 않으면서 설령 만권의 경전을 외울지라도 해탈하지 못한다. 구행이 저렇게 빨리 깨달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네."

어느 날, 구행은 허운에게 좌화(坐化)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구행은 목숨을 마치려 할 때쯤 자신의 모든 것을 돈으로 바꿔 대중에 공양했다. 1924년 4월, 그는 운남성 화정사 말사인 승인사 공양간 뒤편에서 스스로 불을 붙여 화거(化去)했다. 구행은 가부좌한 채로 움직이지 않고 미소를 머금고 있었으며, 왼손에는 경소리를, 오른손에는 목어를 잡고 있었다. 허운 스님이 살펴보니, 구행의 손에 있는 목어는 손잡이가 재로 변해 있었고, 경쇠의 손잡이도 불에 탔으나 구행의 몸과 가사만은 그대로 있었다.

허운 스님이 구행의 법구에 합장해 마치자, 그의 법구에서 향기가 풍겨 나와 마치 난향과 같았다고 한다. 다음날 구행의 법력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구행의 좌화한 이야기는 〈곤명일보(昆明日報)〉에 기사화됐다. 부처님 재세 시에도 제자들 중, 종종 이런 경우가 있어 부처님도 염려했지만, 인도는 무엇보다도 윤회 개념에 입각한 사상이 지배됐기 때문이라고 본다.

필자는 입적한 자승 스님을 미화할 생각은 없다. 다만 학자로서 고대~현대까지 '불교사적인 관점에서 좌화한 승려들' 에 대해 밝힐 뿐이다. 물론 좌화하거나 소신공양할 경우, 미리 대중에 공포해야 한다. 그런데 현 시대 관점에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다. 법적으로 보면 자살방조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여튼 불교적 관점이 아닌 세상의 관점에서 한 승려의 입적을 부정적으로 가십화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열반(nirvana)이란 '모든 번뇌의 뜨거운 불길이 꺼진 상태' 를 말한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한 쿠시나가라의 말라족들은 '성자가 자신의 나라에 와서 열반했다' 고 악기를 연주하며 기뻐했다. 현재도 남방의 불교국 어느 마을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들었다. 슬퍼말자!



인현 스님의
제주 山房日記

탐라에서 제주로

한반도에 고려 무신정권이 들어서고 초원을 달리던 몽골의 군사들이 침략하면서 천년을 지켜온 황룡사 9층 목탑 등의 수많은 문화유산은 물론, 20년에 걸쳐 만든 초조대장경마저 잿더미가 됐다. 이에 맞서 고려 조정은 온 나라의 힘을 모아 또다시 팔만대장경 제작에 나섰다. 이처럼 전란에 휩싸인 한반도의 격변하는 시대 상황은 탐라국으로까지 밀려왔다.

탐라국은 고려 숙종 1105년에 군사 · 경제적 이유로 한반도의 역사 속으로 편입됐다. 이때부터 탐라국은 고려의 지방행정구역의 하나인 탐라군(현)으로 바뀌면서 독립적 지위는 막을 내린다. 이어 고종은 집권 초기에 탐라군을 '제주군' 이라고 고쳐 부르고 부사 및 판관을 두어 행정을 관장했다.

하지만 1273년 여몽연합군에 의한 삼별초 정벌 이후 이 땅은 원의 직할지가 되면서 '제주' 라는 지명 대신에 '탐라' 라는 국명을 다시 사용했다. 원나라가 탐라국 명칭을 사용하며, 탐라국(耽羅國)초토사, 탐라국안무사, 탐라군민총관부, 탐라만호부 등을 설치해 통치에 나선 의도는 자명하다.

이후 제주는 고려에 의해 1295년에 이르러 주읍으로 승격되고 중앙에서 목사가 파견됐다. 1374년에는 최영 장군 일행이 목호의 난을 평정하면서 탐라에 대한 원의 지배는 막을 내린다. 조선 태종 때에 이르러서는 오랫동안 전래하던 성주 · 왕자의 칭호가 폐지됐다. 성주는 좌도지관, 왕자는 우도지관으로 개칭됨으로써 종전의 토관직이 없어지고 제주 토착 지배층도 없어지게 됐다. 이후 태종 16년에는 한라산을 경계로 산북은 제주목이라 해 목사가 파견되고, 산남은 동서로 양분해 동쪽이 정의현, 서쪽이 대정현으로 구분돼 현감이 다스렸다. 이로써 탐라라는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제주라는 이름으로 정착돼 불리게 됐다.

조선 유림의 영수 점필재 김종직은 '탁라가' 에서 탐라의 원형을 "처음 나라 세운 신인들은 해 뜨는 곳에서 온 이들과 짝지어 살았으니 오랜 세월 세 성씨 혼인으로 전해오는 풍속이 주진촌과 같다네. 성주의 작호는 이미 없어지고 왕손도 끊겨 신인의 사당은 황량해도 해마다 원로들 옛 조상을 추모하고"라고 기록했다. 화목하게 살아가던 주진촌과 같다던 탐라는 그 국호를 잃고 중앙에 복속되면서 수탈의 땅으로 전락했다.

〈원각경〉 발문을 쓴 제주판관 김구는, 제주 밭이 예전에는 경계의 둑이 없어 다툼이 많았는데, 돌을 모아 담을 쌓아 경계를 만들어 백성들을 편하게 하는 등 선정을 베풀었다. 그러나 선정을 베푼 이들은 매우 드물고 수탈의 역사는 길었다. 더욱이 원제국 시기에는 고려와 원나라의 가혹한 이중의 수탈로 제주에서 민란이 여러 차례 발생했고, 그 수탈의 역사는 조선조로까지 이어졌다.

이처럼 탐라국의 지위를 잃고 고려에 편입되면서 겪게 된 변방의 고초는 4.3에까지 이르렀다. 그리해 제주는 지구의 어느 곳보다 아픔을 가슴에 묻었기에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섬이 됐다. 지금 제주는 역사의 화마에서 벗어나 있는가. 〈끝〉 〈제주 선래왓 주지〉

社 說

자승 대종사 '전법' 의지 이어가자

제33 · 34대 총무원장 역임…종단 발전 기여
'부처님 법 전합시다' 강조, 불교중흥 도모해
'대학생 전법'이라는 실천적 화두 지속돼야

상월결사 회주 해봉당 자승 대종사가 11월 29일 경기도 안성 칠장사에서 원적에 들었다. 조계종 제33 · 34대 총무원장을 역임한 자승 대종사는 2009~2017년 재임 기간 동안 종단 안정화와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

가장 도드라진 것은 종단의 대사회 참여도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자승 대종사는 제33대 총무원장에 취임하며 용산 참사 희생자에 대한 조문을 첫 행보로 보였다. 이는 제34대 총무원장 임기까지도 변함이 없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농성장 방문해 격려했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로 피신했을 때에는 공권력의 침탈까지 견뎌내며 정부와 노동계의 대화를 이끌어냈다.

자승 대종사는 총무원장 재임 기간 현재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의 전신인 '노동위원회' 를 설립했고, 갈등으로 치닫는 사회를 화쟁 정신으로 교화하고자 '화쟁위원회' 를 설립해 갈등의 중재자로 나서기도 했다.

현재 조계종단의 주요 인프라들도 자승 대종사가 기틀을 잡은 것들이 상당하다. 종단의 수행 종풍 선양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 스님들의 수행환경 기반 조성을 위해 종단 역사상 처음으로 승려 노후복지제도를 시행했고, 이는 현재 아미타요양병원 개원 등의 성과로 이어지는 바탕이 됐다.

세종신도시와 위례신도시의 종교부지를 확보해 신도시 포교 도량 건립의 초석을 놓은 것도, 경찰청 · 문화재청과 '불교문화재 도난 예방 및 회수를 위한 협약' 을 체결해 불교문화유산 환수에 기반을 다진 것도 자승 대종사가 한 업적이다.

퇴임 후에도 자승 대종사는 왕성한 활동을 이어갔다. 두 번의 겨울을 백담사 무문관에서 보낸 자승 대종사는 2019년 11월 11일부터 2020년 2월 7일까지 위례 상월선원에서 천막결사 안거를 지냈다. 이후 자승 대종사는 불교중흥의 기치 아래 만행결사 자비순례(2020) · 삼보사찰 천리순례(2021) · 평화방생순례(2022) · 인도순례(2023)를 이끌며 전법 원력 결집에 나섰다.

인도순례 회향식에서 '부처님 법 전합시다' 를 불교 중흥을 위한 원력으로 제시한 자승 대종사는 '대학생 전법' 을 실천적 과제로 제시했다. 이후 자승 대종사는 '대학생 전법'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상월결사 대학생전법위원회를 발족해 인적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세웠고, 불교 동아리 지도법사 · 지도교수 · 학생들의 활동비 지원을 위한 기금도 151억여 원을 모연했다.

자승 대종사의 일생을 하나의 키워드로 귀결한다면 그것은 '전법' 일 것이다. 대종사가 만든 '대학생 전법' 의 기틀이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 지난 11월 11일 사부대중 전법대회에서는 △각 교구별 지역 거점대학에 신규 불교 동아리 1개 이상 설립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소속 동아리 활성화 △대학생 불자 영(YOUNG) 캠프 △전국 대학생 불교음악축제 개최 등 계획이 제시됐다. 특히 2026년 3만 명을 목표로 '전국 대학생 불자대회' 를 정례화하고, 한국 대학생 불자를 주축으로 세계 불자 청년 20만 명이 참여하는 '세계불교청년대회' 를 개최하겠다는 청사진은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뛴다.

자승 대종사가 세운 '대학생 전법을 통한 불교 중흥' 의 원력을 이제는 후학들이 이어가야 한다. 그것이 마지막까지 종단의 미래를 걱정했던 대종사를 위한 길일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편집인 : 박재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NEW 신상품
"신은 듯, 안 신은 듯 맨발같은 신발"
어싱 접지 슈즈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접지) 효과
발볼 넓은 신발, 맨발 같은 신발
KSNS 적용 신발
어싱 트레킹화 판매가 : 65,000원
어싱 윙 캐쥬얼 슈즈 판매가 : 80,000원
어싱 트레킹화 판매가 : 65,000원
어싱 트레킹화는 발 볼이 좁거나 보통 넓이인 분들이 세련되고 날렵한 신발을 신고 싶을 때를 위하여 제작된 신발로 둘레길, 황토길, 캠핑용, 런닝용 신발로도 좋습니다.
※ 소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 네오프렌(잠수복 재질)

어싱 윙 캐쥬얼 슈즈
어싱 캐쥬얼 슈즈(구두 스타일)는 정장이나 캐쥬얼에도 잘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구두 끈 대신 신고 벗기 편한 날개(윙)모양의 벨크로 조임 구조로 개발된 신발입니다.

판매가 : 80,000원
※ 소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 인조가족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개정판



대행선사 법훈록 **그냥 목조건이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르치신

대행스님 법음의 정수!

"업이 있다 없다 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에, 오늘 그걸 알아내면
과거부터 끌고 오던 그 업은 순식간에
봄이 오면 눈 녹듯이 다 사라져버리니까 말입니다.
과거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이 문제입니다
내일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지금, 오늘이 문제입니다."

-본문 중에서-

"실생활에서 자기 마음 관觀하는 것을 일러줘서
자기 나무가 자기 뿌리를 믿고 찾을 줄만 안다면
그것은 보배를 찾아주는 것이나 같습니다."

규격 신국판 (154*200) 페이지 232쪽 출판사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정가 15,000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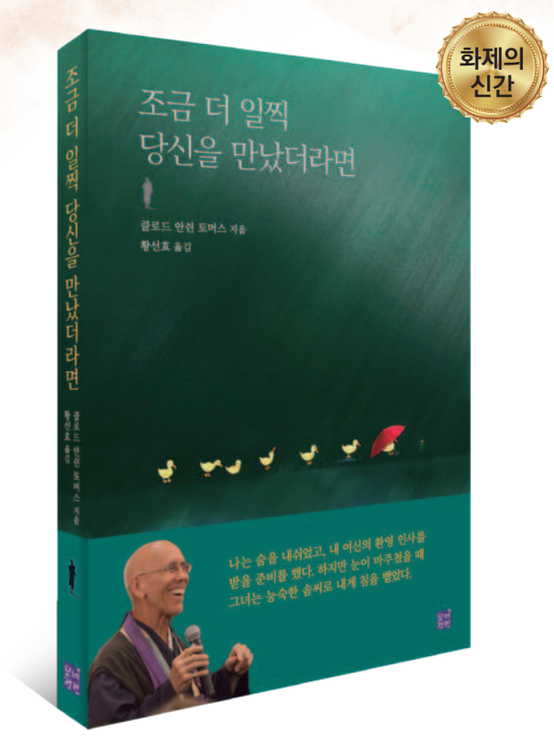
- 본문 중에서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클로드 안쉰 토머스 지음 / 황선효 번역 / 232쪽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한 전쟁 영웅이
지옥 같은 트라우마 끝에 얻어낸 삶과 고통에 대한 실증적 깨달음의 책

고통을 삶의 또 다른 기회로 만든 사람의 이야기

조금 더 일찍 당신을 만났더라면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치유를 향해 간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은 적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불쾌하고 실망스럽고 힘든 것은 거부하라고 끊임없이 주입받는다.
"이 모든 고통이 왜 필요한가? 행복하자! 즐기자!" 하지만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건너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다.
반대편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진정으로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이다.



지은이 **클로드 안쉰 토머스**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항공훈장과 공군수훈십자훈장을 비롯한
수많은 훈장과 상을 받은 전쟁 영웅이다.
전쟁에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는 비영리 기구인 'Zaltho Foundation'을 창립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 곳에서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강연 및 순례 활동을 하는
명상수행자로 거듭났다.

모네의정원 정가 ~~14,000~~원 ⇨ **12,600원** (배송비 별도)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